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2월 1일(음력10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502호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 유교문화원, 기명 법흥사 등
웰핑 ○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불자가 '개종' 유혹받는 까닭은?

체계적 교육 · 관심 결핍 … 타종교 적극 권유에 '흔들'

장애인 · 노동자 등 소외계층 특히 심각

경상도 K대학의 윤 모 교수(45). 최근 사찰에 발길을 끊고 가톨릭 신자가 됐다. 스님이 재력가 신도들에게만 유독 친절하게 대하는 등 신도들을 차별하는 모습에서 큰 환멸을 느꼈다. 불교의 심오한 사상에 매료돼 부부가 사찰에 다녔는데, 교리에 대해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 뿐이어서 실망이 쌓여가던 차였다.

경기도 안성 이 모(68) 할머니는 "딸의 이혼을 막기 위해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딸은 결국 이혼했고 아들까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다 개신교로 개종했다.

개종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서울대 은기수 교수의 논문 '한국종교의 개종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2001년)에 따르면 개종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봤을 경우 불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비율이 전체의 72%였다. 불교를 등지는 비율이 다른 종교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자의 개종비율이 높은 것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불자 개인의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복적 요소만을 내세우며 정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찰들이 많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결과 개종하는 불자들은 다른 종교에 매력을 느껴서라기보다는 불교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불교에 실망한 후 등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을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개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사찰이나 도반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개종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구에서 30여 년 동안 열심히 절에 다녔던 강 모 할머니(78)는 2년 전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불교에서 돌아섰다. 며느리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와 교우들이 밤낮으로 빈소를 지키며 아들의 명복을 비는데 감동받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간직해 온 믿음이 힘든 순간의 실질적 도움으로 인해 바뀐 셈이다.

(사)수효복지대학 상조회 정양훈 팀장은 "복지대학 노 보살들이, 주변 노인 불자들 중 임종을 앞두고 타종교의 자상함에 마음을 뺏겨 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상례(喪禮) 문제에 관한 한 타종교가 한 발 앞서 가는 것이 사실이다. 수효복지대학에서도 장의봉사 신청자에게 수의를 비롯한 물자를 지원하고 염불봉사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양훈 팀장은 "이 정도 지원도 가톨릭에 비하면 7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털어놨다.

개종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를 이제열 법사(유마선원장)는 "공덕만 내세우며 맹목적인 신행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제대로 배웠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사는 "사찰은, 불교가 불행을 면하게 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실상을 바로 보고 극복하는 지혜를 깨닫는 종교임을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나 노동자 등 사회에서 홀대받는 계층의 개종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불편한 몸으로 자주 절에 다녔던 지체장애 2급 박 모 씨(30)는 절에 갈 때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이해도 부족한 불교계에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찾은 연수제일교회의 장애인 전용 리프트시설과 장애인을 위해 개판한 성경책 등에 감동, 개종을 결심했다.

박 씨는 "연수제일교회의 200여 장애인 신도 중 나와 같은 이유로 개종한 이가 상당수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10년 넘게 장애인 포교에 힘써온 광림사 해성 스님은 "불교계가 장애인 심리를 읽지 못할뿐더러 프로그램도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불교를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박경준 교수(불교학과)는 "철저한 교육과 함께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신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 평생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출발한 '현대불교'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큰 사랑에 힘입어 교계 정상의 신문으로 1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굴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 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TEL: 직통 (02) 737-0090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창간 10주년 특별 영구구독 신청시 스마트폰 '아이 벗' 무료 증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r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벗(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불자 스마트폰 아이벗(I-BUD)은 2005년 1월 1일 부터 불교뉴스, 큰스님 법문, 사이버법당, 교양대학, 불교정보센터, 문화콘텐츠, 커뮤니티, my page, 문화상품샵 등 총 9개 메뉴로 구성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불교정보 매체입니다.

■ 아이벗(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벗(I-BUD):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社 告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마감 12월 15일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불기 2548년 동안거가 시작된 11월 26일, 전국 100여 선원에서는 일제히 3개월간의 동안거에 들어갔다. 사진은 '선찰 대본산' 부산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결제중인 수좌들의 참선모습. 범어사 금어선원=박재완 기자

전국 100여 선원 동안거 결제

불기 2548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전국 100여 선원은 11월 26일 일제히 결제법요식을 봉행하고 3개월간의 결제에 들어갔다. 결제대중들은 25일 저녁부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하고, 26일 오전 방장스님에게 결제법어를 청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수득수실(誰得誰失)고 약향자리(若向者裏) 득일철안(得一隻眼)하면 변지낙처(便知落處)하리라"고 법어를 내리며 수행자들의 분발을 격려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등도 각각 법어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전국 40여 시민선방에서 5천여 명의 재가불자들도 동안거에 들어갔다. 남동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할'



그림 · 조태호

우룡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현대인 생활에 맞는 법회로

오늘날 한국불교가 기복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는 사찰들이 기도위주의 법회를 운영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나마 일부 사찰에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거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사찰의 모습은 지금보다 달라져야 한다.

우선, 사찰에서 열리는 초하루, 보름, 재일 법회가 주말법회로 바뀌었으면 한다.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초하루, 보름, 재일 법회는 농경사회에는 적합할 수 있겠지만, 현대생활리듬과는 맞지 않다. 불자들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따라서 주말에 법회를 개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법회는 공부하는 법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축원이나 천도, 발원기도에 의존하는 법회로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울 수 없다. 선수행 법회나 교리법회, 봉사법회, 나눔법회 등 다양한 테마를 법회에 도입해 불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음력 위주…생활리듬과 안맞아
시간·계층·내용 등 검토돼야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신행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사찰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거의 모든 사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도의 경문을 알고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의미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절과 염불을 강요하는 일은 곧 무조건적인 기복을 조장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우리말 독경과 염불이 필요하다. 우리말 독경과 기도, 염불은 바른 신행풍토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다 많은 사찰이 사찰공간을 활용해 각종 문화강좌와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찰이 범접하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는 포교의 가장 큰 장애다. 사찰이 배움의 쉼터, 문화공간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찰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열리지 않고는 보다 많은 이들을 사찰로 불러들일 수 없다. 불러들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문화강좌와 교양프로그램은 좋은 방법인 것이다. 사찰이 더 이상 일부 불자들만을 위한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각 종단별로 소속 사찰들로 하여금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자교실' '글쓰기 지도' '생활예절' 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불자들의 자녀로부터 시작해 일반인들의 자녀들까지 확대한다면 불교와 사회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프로그램 외에도 '찬불가' '불교 구연동화' '레크리에이션' 등을 보급한다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장만수(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 어디까지 왔나

'선교육 후득도' 원칙 전제조건 '산적'

기초교육기간 연장 가장 큰 과제
시설·비용·인력 등 준비사항 많아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 · 이하 승개추)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련한 제도개선안의 초안이 최근 공개됐다. 그러나 추진위원단 조차 승개추 제도개선의 의미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어 당초 예정됐던 내년 상반기 입법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제도개선안 내용은?

승개추가 11월23일 제2차 승개추 회의와 제도개선 분과위(위원장 지안)회의에서 검토한 개선안의 골격은 출가본사에서 3개월 행자생활, 2년 기초(행자)+2년 기본교학과정(강원)을 통과후 학사학위(사미(니)계)를 수여, 다시 석사(전문)과정 2년(비구(니)계)을 마치는, 6년 후에 정식 스님을 배출하는 안이다. 현 승가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기초(행자)교육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2년으로 대폭 늘인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뒀다. 또 기본과정을 마치고 정규 학사학위 전문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이수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 할만 하다. 승개추는 이를 위해 상설 행자 교육장 마련, 중앙승가대의 확대 개편, 일부 강원의 통폐합(사미 5곳+사미니 5곳)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승개추회의가 이렇게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은 데는 사업의 성격이 승가사회 전체틀을 뒤흔드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과 제도분과 실무위가 제안한 초안이 단순한 '개선' 의 정도가 아니라 '개혁' 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위의 초안대로라면 기초 · 기본 · 전문교육과정 전체시스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11월 21일 열린 전국강원교직자연수에서 나타났듯이 승개추 안에 대한 강원 교직자들의 거부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기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강원, 동국 ·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의 각자 역할과 이해관계 조율 역시 쉽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기초교육과정의 변화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습의 · 교수사를 지원하는 '율원' 의 협조와 상설교육장, 교과내용 등 기존 행자교육이 2년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도개선안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는 문제역시 쉽지 않다. 출가 본사와 은사들이 부담하던 스님들의 교육비용 증가, 집단 교육에 드는 대규모시설과 이를 운영해나갈 행정체계, 석박사급 전문 교수진 마련에 이르기까지 선결과제 대부분은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에 앞서 승가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승가구성원 전체의 '합의' 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한 추진위원 스님은 "승개추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육주체들의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승가 구성원의 '고통분담' 을 강조했다.

조용수 기자

"찬불가 보급 방안마련"
법장 스님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종단차원에서 찬불가 보급 방안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법장 스님은 11월 23일 운문 스님의 예방을 받고 "종단차원에서 찬불가 보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403곡의 찬불가를 새롭게 만든 것은 위대한 불사"라고 운문 스님을 격려했으며, 운문 스님은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불자들에게 찬불가를 보급하고 싶다"며 종단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도 "아직도 찬불가의 보급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전 사부대중에게 찬불가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문 스님은 10월 13일 403곡이 수록된 찬불가 3권을 간행한 바 있다.

유철주 기자

환경영향평가 '도마' 위에
4일 에코포럼서 토론

동국대가 불교생태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창립한 에코포럼(공동대표 고건 권태준 홍기삼)은 12월 4일 오후2시 학술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첫 번째 쟁점토론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에코포럼은 이날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 양병이 교수의 사회로 △송영일(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의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송현(밀양대 조경학) 교수의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의문제점과 대책'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국장 '환경운동가가 바라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발표한다.

조용수 기자

"지행합일 교육 여건 만들터"

진각종 회당학원 새 이사장 휴명 정사

"지행이 합일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불교와 진각종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학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제19대 회당학원 이사장으로 선출된 휴명 정사(진각종 대전교구청장 · 사진)는 11월 22일 진각종 통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식과 실천을 겸비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새 이사장 휴명 정사는 "종조인 회당 대종사의 유지로 시작된 교육불사가 올해로 55년을 맞았다"며 "덕이 존경받고 사회의 가치기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수급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성화 · 지방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으로써 신뢰를 얻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하학교의 운영계획에 대해 법인에서 보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제19대 이사장 휴명 정사의 취임식은 12월 중순께 위덕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기는 2006년 12월까지다.

휴명 정사는 1981년 득도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제 7, 8, 9, 10, 11대 종의회 의원, 89년 10대 중앙종의회 의장, 97년 진각복지재단 이사, 2002년 31대 사감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포교전략 좌담·공청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 별원승격 10주년기념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별원 승격 10주년을 맞아 기념 좌담회와 향후 포교 전략을 수립하는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 10년을 성찰하며 10년 내다보자' 를 주제로 12월 7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좌담회는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가 사회를 맡고 지홍(불광사 회주), 정념(월정사 주지), 지광(능인선원 주지), 수불(안국선원장), 일관(포교부장), 진명 스님(연구실장),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전무 등이 좌담자로 참가한다.

포교 10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공청회는 12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박희승 연구차장(포교원)이 '조계종 포교 10개년 계획안에 대하여' 발제한다. 강지연 기자

조불련 서기장에 정서화 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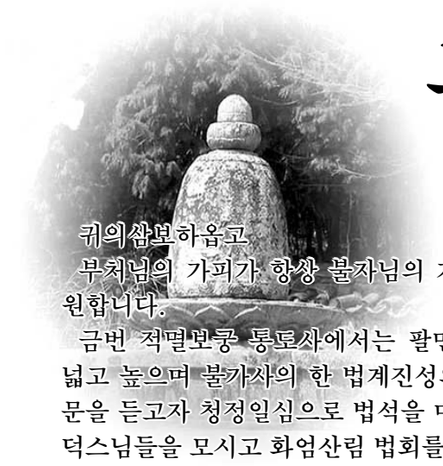
정서화 스님(사진)이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서기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복지재단 한 관계자는 "중국 불교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정서화 스님은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남한 불교계에 보낼 발언문을 작성하거나 남측 방문단이 왔을 때 안내를 맡는 등 조불련의 행정적인 일을 담당해왔다.

한편 황병준 부위원장의 입적으로 공석이 된 부위원장에는 심상진 서기장이 임명됐다. 강유신 기자

고침 본지 500호 24면 정천 스님 지상백고좌 글 가운데 '돈을 놓고 탁자 밑에서 죽는 것' 부분 중 '돈'을 '도(道)'로 고칩니다.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불자님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적멸보궁 통도사에서는 팔만대장경 중에서 가장 넓고 높으며 불가사의 한 법계진성의 희유법문인 화엄법문을 듣고자 청정일심으로 법석을 마련하여, 여러 고승대덕스님들을 모시고 화엄산림 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화엄경과의 인연은 지혜와 복덕 그 광명의 문을 여는 힘이 될 것이며 또한 선망부모와 일체영가를 천도, 이고득락케 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많은 불자님들이 연화장 세계의 불보살님께 귀의할 수 있는 장엄한 법석에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와 복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불기 2548년 12월 일

입재 — 2004년 12월 12일(일)(음 11월 1일) 10:00
회향 — 2004년 1월 9일(월)(음 11월29일) 10:00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영가 천도재를 지냅니다 ■

장 소 통도사 설법전

회 비 1개월 동참비 : 100,000원(비표 배부)
반산림 : 50,000원 영가동참비 : 1위당 10,000원

교통편 및 시간
- 부산지역 • 온천장 지하철역 앞(08:00~09:00) - 본사차량 및 관광버스
- 울산지역 • 공설운동장(07:30) → 학성공원(07:35) → 우정지하차도(07:40) → 구 고속터미널(07:50) → 공업R(08:00) → 무거R(08:10) → 통도사(관광버스)
- 대중교통 • 부산노포동종합터미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문의 및 접수처 통도사 화엄전 (055)381-1288

2004년도 화엄산림 법사 일정표

음력	양력	요일	법 사	법문하실 품
11/1	12/12	일	방 장 초우스님 전계사 혜남스님	입재법문 현담
2	12	월	지안스님	세주묘엄품
3	14	화	지안스님	여래현상품
4	15	수	재문스님	보현삼매품/세계성취품
5	16	목	강주 우진스님	화장세계품
6	17	금	강주 우진스님	비로자나품
7	18	토	각성스님	여래명호품/사성제품
8	19	일	정우스님	광명각품/보살문명품/정행품
9	20	월	약산스님	오전법문생략/현수품
10	21	화	약산스님	승수미산정품/수미정상게찬품/십주품
11	22	수	해월스님	범행품/초발심공덕품/명법품
12	23	목	현진스님	승야마천궁품/야마천궁게찬품/십행품
13	24	금	지운스님	십무진장품
14	25	토	반산스님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15	26	일	월운스님	십회향품 제5까지
16	27	월	철우스님	십회향품 제6~제10
17	28	화	원산스님	십지품
18	29	수	법산스님	십정품
19	30	목	향과스님	십통품/십인품
20	31	금	수진스님	아승지품/수량품
21	1/1	토	진철스님	제보살주처품/불부사의품
22	2	일	자광스님	여래십신상해품/여래수호광명공덕품
23	3	월	기후스님	보현행품
24	4	화	무관스님	여래출현품
25	5	수	종범스님	오전법문 생략/아세간품
26	6	목	종범스님	입법계품(7) 휴사우바니까지
27	7	금	종광스님	입법계품8 비목구산선인-31바산사연주야신
28	8	토	전계사 혜남스님	입법계품/32보덕정광주야신/40구바녀
29	9	일	전계사 혜남스님	입법계품(41마야부인-50유덕동녀-51미륵보살) 회향법문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 합장

"오늘은 번뇌 씻고 새로 태어난 날"

동국대 산하 초·중·고 학생 1500여명 합동 수계

현해 스님(동국대 이사장)이 입장하자 마치 유명 연예인이 나타난 것처럼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반야심경을 외며 수계식 예행연습을 할 때만 해도 다소간의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아예, 콘서트장(?)으로 돌변했다.

11월 24일 오전 동국대 중강당.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초 · 중 · 고등학생 합동 수계 대법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강당을 가득 메운 750여 학생들은 이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이 종소리로 번뇌를 씻고 수계를 받아 새로 태어나는 의미있는 날입니다." 김형중 교법사(동대부고)의 인사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진다. 이제 불제자로 다시 태어나야 할 시간이다. 수계를 받기 전 만난 김양헌 군(홍제중 3)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돌았다. 수계를 받겠다는 생각에 새벽 6시 밀양에서 올라온 김 군은 "초등학생 때 캠프에서 수계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낌과 지금 느낌은 또 다르다"며 "떨리고 설레고 불교에 지금에서야 정식으로 입문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었다.

인례사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의 선창에 따라 삼보를 청하고 계사를 청했다. 전계사 현해 스님은 "몸으로 잘못을 지을 수 있기에 부처님께서는 미리 계를 설해 지키게 했다. 여러분은 내 몸을 태우며 참회하는 연비를 하며 절실하게 참회하라"고 법문했다.

드디어 연비 시간. 참회진언을 외우며 연비를 기다리지만 학생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동국대학교 학인스님들과 교법사들이 향을 들고 연비를 시작했다. 참회진언을 외는 소리와 비명으로 중강당은 시끌벅적하다.

연비를 마치고 만난 손민정 양(은석초6)은 개신교 신자였다. 수계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연비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손 양은 "수계받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 다 반성하겠다"고 진지함을 보였다. 전연선 양(명성여고1)과 임지영 양(명성여고1)도 "수계를 받아 내가 깨끗해진 느낌"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수계의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은석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스님으로부터 연비를 받으며 신기해하고 있다. 옆에서 한 친구가 핸드폰으로 연비받는 친구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번 수계법회에는 지방에 있는 소속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올라와 수계에의 열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전북 김제에서 온 성주용 군(금산고1)은 "집에서 불교를 믿지만 불교학생회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불교를 너무 모른다. 불교에 대한 경험도 쌓고 수계도 받기 위해 참석했다"고 수계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날 동대부고 명성여고(1부)와 동대부중 명성여중 은석초등학교 홍제중 금산중 · 고(2부) 소속 학생 1,500여명이 참가한 수계식은 발원으로 회향됐다.

강지연 기자

지난해 입적 스님 추모사업 줄이어

서옹 월하 덕암 청화 덕명 정대 스님…법어집 출간 · 부도탑 건립 등

한국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사부대중을 이끌다 지난해 연이어 입적한 여섯분 스님들의 1주기를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추진된다. 추모사업은 법어집 발간과 부도탑 제막 등 생전 스님들의 가르침대로 조촐하면서도 유지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천진불로 칭송받으며 수행납자를 지도했던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 1주기인 12월 30일, 백양사는 추모법회와 함께 유품 등을 전시하는 성보박물관을 개관한다. 이날 <서옹 대종사 추모법어집>도 발간한다.

통도사는 영축총림 방장이었던 월하 스님을 추모하는 사업으로 12월 20일 1주기 법회와 함께 스님의 사리 50여과를 봉안한 부도탑을 제막한다. 4개의 테이프로 구성된 <월하 대종사 육성 법문집>도 펴낸다.

청정한 수행으로 대중교화에 진력했던 前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 1주기 추모법회는 12월 10일 서울 법륜사에서 열린다. <덕암 대종사 법어집>과 <꽃은 뜰 속에서 웃고 새들은 창 밖에서 노래하네> 등 스님의 법문을 모은 2권의 법어집이 출간돼 스님의 면모를 그립게 한다.

1일1식과 장좌불와로 수행자들의 귀감이 됐던 청화 스님의 1주기 법회는 11월 21일 열렸다. 성륜사 신도회와 문도회는 1주기를 맞아 <성자의 삶>과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를 출간했으며, 2006년에는 청화 스님 부도탑을 세울 계획이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덕명 스님의 추모법회는 12월 19일 부산 안적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정대 스님 문도회는 12월 6일 1주기를 맞아 스님의 흉상 제막을 준비하고 있다. 스님이 설립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학술단체와 학생들에게 1억 3900만원을 전달했다.

유철주 기자

"템플스테이 다시 체험하고 싶다" 60%

새벽산책 · 참선 · 다도 만족도 높아 샤워시설 · 화장실 청결문제 요구

템플스테이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또 개선돼야 할 점은? 여기에 대한 답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이 11월 24~25일 김포 효원 연수문화센터에서 개최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2차 실무교육'에서 나왔다. 이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2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72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별 만족도의 경우 불무도, 새벽산책 등 사찰 고유프로그램 만족도(81.8% : 매우 만족 52.3%, 만족 28.7%)가 가장 높았다. 다음이 참선 프로그램(75.7%) 다도 및 스님과의 대화(75.3%) 예불(74.4%) 순이었다. 따라서 사찰 고유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개발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참가자의 예불 만족도가 전체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대학이나 기업에서 참가한 사람들의 예불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집단의 목적에 의해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예불참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가유형별로 보면 개인자격(46.3%)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24.5%) 일반단체(13.8%) 불교단체(12.7%) 대학(2.7%) 순이었다.

청결성의 경우, 숙소나 수련복, 식당은 깨끗했지만 이에 비해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은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대부분의 사찰이 템플스테이를 위해 시설을 신축했기 때문에 숙소 및 참가자들 동선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샤워시설,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90.4%)는 매우 높은 반면, 진행자의 전문성 만족도(78.1%)가 다소 낮게 평가됐다. 또 대학생들이 템플스테이 비용을 다소 높게 평가해 대학생 참가비 책정에 대한 논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모든 사찰에서 60% 이상이 다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강지연 기자

포항시장 퇴진촉구 2차 성명

종교편향대책위, 12월15일 범시도민대회 개최키로

포항사암연합회 종교편향 대책위원회(이하 종편위)는 11월 25일 포항불교사암연합회 고문 법달 스님, 회장 경천 스님, 불국사 부주지 관우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운흥사에서 종편위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식을 갖고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정 시장이 16일 '포항기관장 홀리클럽'을 탈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른 것.

이날 종편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 시장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12월 15일 '사회와 종교 화합 실현을 위한 범시도민대회'를 개최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종편위는 당초 11월 30일 정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불교인과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종교화합을 실현하고 종교편향 사례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을 모색하는 차원의 대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집회 일정을 변경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법화종 소속 사찰과 신행단체, 지방 분권전국연대, 포항 KYC 등 종교 · 시민단체 100여 개가 참여했다.

배지선 기자

해인사 장경각 개방 단계적 축소 하기로

법보종찰 해인사가 팔만대장경의 보호를 위해 장경각 개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해인총림은 11월 25일 임회를 열고,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장경각 개방을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해인사는 먼저 2005년 3월~2006년 12월 개방시간을 오전 오후 3시간씩으로 축소하고, 2007년부터는 음력 3월 초파일~4월 초파일, 여름휴가 15일, 9월 불사 전후 한달, 설날 이후 15일 등 1년에 3개월만 장경각을 개방한다. 2010년부터는 해인사는 10년마다 1년씩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경각의 문을 닫는다.

배지선 기자

광덕산 난개발 우려 환경연대 입장표명

천안 광덕산 광덕사와 안양암 밑으로 대지 6천여 평 규모의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의 상가조성계획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11월 22일 '상업용 건축물 난개발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날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 총 805종의 식물이 서식하며 이중 39종이 특산물일 정도로 생태 보존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발 면적이 6천 평이지만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사찰 수행환경과 사유재산 침해의 측면까지 있다"면서 건축주측의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강유신 기자



"도롱뇽을 살려주세요" 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도롱뇽 소송에 대한 부산고법의 최종 판결일인 11월 29일을 앞두고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은 11월 2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기 위한 '도롱뇽의 함성-생명의 퍼레이드'를 벌였다.

강유신 기자

한국불교학연구기금 창립 · 장학금 수여

불교학자들의 원활한 연구를 돕기 위한 한국불교학연구기금(상임대표 법상)이 11월 23일 보광사에서 창립식을 갖고 불교소장학자 4명에게 제1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박사학위논문 부문에 선정된 '고려시대 승계 · 승직 연구'의 박윤진(고려대 사학과), '백제불교 사상사'의 조경철(한국정신문화연구원)씨 등은 각각 7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또한 불교원전 번역부문에 선정된 '<섭대승론>, <증상혜학분> 및 세친석과 무성석 역주'의 김성철(동국대 인도철학과) 씨는 1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은비 기자

"부실시공 책임 묻겠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학교법인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실사위원회(위원장 영담)는 11월 23일 병원건물 지하 2층의 누수문제와 냉방설비 부실 등 600여건에 달하는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사인 'LG건설'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실사위원장 영담 스님은 "시공상의 하자들뿐만 아니라 준공과정에서 학교 건설본부측과 시공사의 행정적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시공사인 LG건설은 지난 4월 동국대를 상대로 공사대금 230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한 상태다.

조용수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제14세 · 16세 종정

덕암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대법회

한국불교태고종 제14와 16세 종정을 역임하셨던 덕암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에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큰스님의 행원력은 태고종단과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자애로운 신덕(信德)과 혜지(慧智)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화를 받게 하는 보기 드문 대선지식이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큰 스승이셨습니다.
이에 태고종도와 불자 여러분은 오는 12월 10일 '덕암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에 참석하시어 덕암스님의 위법망구의 정신과 수행정진을 당부하신 훈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8(2004)년 12월 10일 (음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불이성 법륜사
문 의 : 02)732-3920, 732-2710

불이성 법륜사 주지 보경
덕암화상 문도회 회장 혜준 합장

누가 얻고 누가 잃었는가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법안문익 선사께서 결제철의 어느 날, 사시공양 시간이 되기 전에 큰방에 들어와서는 손가락으로 발(簾)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동시에 두 승려가 발을 걷어 말아 올렸습니다.

이에 법안 선사가 말하였습니다.

"일득일실(一得一失)이로다.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도다."

결제란 얻는 것이 있다거나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득(一得)이라거나 일실(一失)이라고 말한다면 제대로 결제를 하는 납자가 아닙니다. 지금 '일득일실(一得一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의 깨달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병을 알지도 못하면서 선지식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이가 알아도 모를 것이요, 더욱이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더더욱 모를 것은 뻔한 일입니다. 얻음과 잃음의 소견을 내는 자리에서는 이를 전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가려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남에게 자신 있게 일득일실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얻고 한 사람은 잃었다고 하니 누가 그 곡절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름지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승이 고구정녕하게 당부하는 말을 듣고서 발심하여 결제동안 참으로 용맹정진을 한다면 마침내 일득일실의 경지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누가 얻고 누가 잃었는가?
만약 이 속을 향하여
바른 안목을 얻는다면
바로 낙처를 알 것이니라.

각 총림 결제법어(요약) 전문은 buddhanews.com에

도(道)는 재주와 지혜로 얻지 못함이라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중략)
남아가 이르는 곳 마다 고향인데
몇 사람이나 객의 수심 가운데 지냈던고!
한 소리 큰 할에 삼천세계를 타파하니
눈 속에 도화가 조각조각 날아다니네

이에 노사께서 반문하시길

"날아다니는 조각은 어느 곳에 떨어졌는고?" 하시니 납자가 답하기를 "거북털과 토끼뿔이로다"하니 노사께서 크게 웃으시며 다시 대중에게 이르시되 "각기 한 마디씩 일러라"하시니 법희(法喜)비구니가 나와서 "눈이 녹으니 한 조각 땅입니다"하거늘 노사께서 이르시되 "다만 한 조각 땅을 얻었느니라"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일러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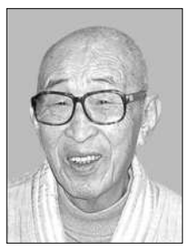
날아다니는 조각은 어느 곳에 떨어졌는가! 알았다면 납자의 그 허물은 어디에 있는가?

이빨이 없으면 사자를 물 수 없느니라. 발 밑 섬돌 아래엔 풀이 삼장(三丈)이나 깊었도다. 다만 도(道)는 재주와 지혜로는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중략)

밝은날에도 눈먼 자는 볼 수 없나니 …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공현요도(空玄要道)는
시고금무차지종(是古今無差之宗)이요,
훤혁영공(烜赫靈空)은
내불조출신지로(乃佛祖出身之路)니,
하처갱구현묘(何處更求玄妙)가
즉금정성정신(卽今正省情神)이며
불수의하별예구(不須意下別挩 求)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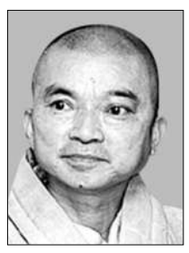
지재목전자차과(只在目前自蹉過)이니,
소위자씨궁중(所謂慈氏宮中)에서
원생두솔(願生兜率)하고, 함원전이(咸元殿裏)하야,
갱멱장안(更覓長安)이로다.

청청수이(淸淸水裏)에서 유어자미(游魚自迷)하고,
혁혁일중(赫赫日中)에 맹자불견(盲者不見)이로다.
휴휴(休休)라,
제득혈류무용처(啼得血流無用處)이니,
불여함구과잔동절(不如緘口過殘冬節)하리라.

오매불망 참구해야 실참실구니라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대량왕도 불식(對梁王道 不識)하니
호개서래 곡조(好箇西來 曲調)로다
거세인화 부득(擧世人和 不得)이니
청로고범 청파로(靑蘆故泛 淸波路)로구나
양무제를 만나서 모른다했거니
서쪽에서 온 좋은 곡조로구나
세상 사람과 화합하지 않았으니
맑은 파도 길에 푸른 갈대로 떴구나
(중략)
죽은 가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가풍과 입으로만 떠벌리는
가풍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삼천년 전에 이미 세존이 연꽃을 들여 보였고 가섭존자가 파안미소를 보였습니다.

이로부터 1700공안이 나왔고 제불조사의 계송이 나와 명실(名實)이 상부(相符)하였습니다. 오로지 용맹정진하고 또 용맹정진해서 오매불망만 참구해야 실참실구입니다.

여기에서 달마대사의 "모른다(不識)"는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 참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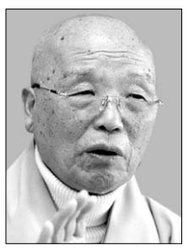
"모른다"를 알았다면 무엇을 알았는지 내보여야 합니다.

(중략)

올 겨울에는 목숨 걸고 노력합시다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절단유무중간(截斷有無中間)하여
자고탈체(自孤脫 體)이니
무의활탁탁(無依活卓卓)이요
제허확정절방우(霽虛廓淨絶方隅)로다
있고 없고 그 사이를 함께 끊어서
저 홀로 온전히 몸을 벗으니
기댈 일 없이 활발발 우뚝 솟아나
갠 허공 맑게 트이고
온갖 모서리가 무너지는도다
(중략)

장부들이여, 올 겨울에는 목숨을 걸고 노력합시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매일여(寤寐一如), 잠자는 중에도 살피면서 정진하고 정진합시다. 이렇게 한 집에 모여 같이 머리 깎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는 이 일대사의 거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중략)
너희가 선방에 앉아 있는 뜻을 묻는다
마음도 길도 아닌 그 무엇인가
바로 오묘한 마음을 잘 살펴
반연을 끊으면 달마를 보리라

100년만에 처음 일반에 공개 범어사 금어선원

구름은 두터웠고 바람은 어지러웠다. 노란 은행잎은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그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11월 26일 동안거 결제 법회가 열린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 금강계단 보제루.

"도대체 선(禪)이 무엇인가?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 했는데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은 결제 대중들을 향해 물음을 던졌다. 살얼음판을 걷듯, 화두일념으로 100일의 대정진에 들어선 수좌들을 향해 던져진 물음이다.

깨닫겠다 한생각 마저 쉬고 또 쉬고…

미동도 없는 대중들의 고요에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물 소리와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가 더욱 선명해진다.

"저 목탁소리 듣는 놈은 무엇입니까? 깨닫고 보면 목탁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심지어는 노름꾼 싸움소리도 법문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일체의 상을 털어버리면 일체가 법문임을 알게 됩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는 분심을 내어 지혜와 행을 구비하고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범어사 금어선원(金魚禪院) 결제 대중 27명, 산내 암자 대성암 결제 대중 45명, 재가자 선방 결제 대중 55명에게 조실 스님의 법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 지유 스님의 법문으로 결제 대중들은 3개월 동안 지어갈 공부의 길잡이를 얻었다.

결제 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첫날 정진에 들어갔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이것'을 향한 목숨 건 정진이 시작된 것이다. 금어선원 동쪽의 대나무 숲을 거닐다 바람에 부딪히는 댓잎 소리를 듣고 홀연 깨달음을 이룬 동산 스님의 수행 정신이 서린 이곳에서 수행납자들도 대숲에 이는 바람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마저 화두에 던져 넣고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이상씩 이어지는 정진 동안, 온갖 지식과 고정관념을 잠재워야 한다. 깨닫겠다는 한생각마저도 쉬고 또 쉬어야 하는 것이다.

금어선원에 입방한 수좌 27명은 다른 선원과는 달리 자율 정진이 없는 금어선원의 특징 때문에 예불, 공양, 취침, 기상을 똑 같이 해야 한다. 특히 20년 전부터 금어선원에 방선이 따로 없다. 대중들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이들만 조용히 일어나 포행을 할 뿐이다. 또한 매일 아침 공양 뒤 선원 대중 모두가 빗자루를 들고 일주문까지 비질을 하는 울력이 전통처럼 돼 있다.

오후가 되자 비가 그치고 날이 활짝 개었다. 길고 긴 의심의 구름이 걷힌 끝에 드러날 본래면목처럼 푸른 하늘빛이 시렸다. 금어선원에 입방한 수좌스님들을 외호하며 전 사부대중이 한철 정진에 들어간 범어사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참선엔 출재가 따로 없고 발심이 문제"

인터뷰 금어선원 유나 인각 스님



"한때 범어사는 9개의 선원이 열렸고, 100여 명의 대중이 함께 수행했을 정도로 수행 열기가 뜨겁던 곳입니다."

동안거 결제를 하루 앞둔 11월 25일,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인각 스님(사진)은 금어선원 소개로 인사를 대신했다.

"일본 조동종의 한 선원은 8백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는데 금어선원에 일반인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범어사는 한국 선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금어선원은 1899년 개원이후 경허, 용성, 탄허, 만해, 성월 스님 등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거쳐간 곳.

"문자로 된 것을 일체 보지 않고, 묵언을 기본으로 하며 안거 기간동안 산문 밖 출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규율을 따르며 대중들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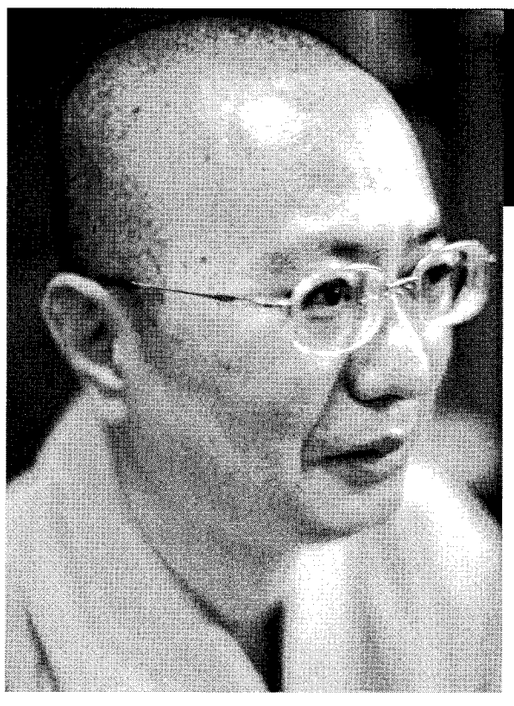
금어선원의 올 입방자는 27명. 입방 희망자가 많아 정진 잘하는 스님들을 선별했다. 세수 70세를 넘긴 법랍 50년을 훌쩍 넘긴 스님부터 5년 남짓의 스님도 있다. 그러나 신심과 발심 면에서는 한국 최고라고 자부할 정도.

스님은 "참선에는 출재가가 따로 없으며 단지 발심과 신심이 문제"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재가자의 정진을 당부했다. "대의지하 필유대오(大疑之下必有大悟), 즉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는 말이지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참선법을 통해 모든 이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천미희 기자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출간 2주 만에 교보 베스트 10위권 진입(종교 부문)!



이판사판 화엄경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삶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쓱쓱 들어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자화상을 난타하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독"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헤럴드 경제
첨단 과학 이론까지 접목시켜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쟁점이 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 한겨레
바로 읽는 불교 경전.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화엄사상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꽉 찬 욕계(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꼴찌'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 1957년 태어나 중동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골 용화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사佛事 「불교경전총론www.sejon.or.kr」 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읽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소원성취 보험회사'로 전락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이판사판 화엄경 -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게송 풀이
성법스님 지음/신국판/값 11,000원/정신세계원 출판국

이판사판理判事判 : 본래 화엄경에서 나온 말로 세계의 두 가지 차원을 일컫는다. 이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삶의 진실과 행복은 이판과 사판의 조화 속에 있다.

www.mindvision.org 정신세계원
tel.02.747.7033 /fax.02-747-7034



대원불교대학 건물 전경.

한국불교 원동력

느껴보이소~마!

12월 5일 부산 대원불교대학 문 열어
개원전 '불교신행경전 특강' 인기몰이
교육·청소년 포교 활성화 새 중심지로

70년대 초 불교계 최초로 설립된 대원불교대학(학장 허경구)이 12월 5일 부산에서도 문을 연다. 개원을 앞두고 11월 23일부터 8주간 '불교신행경전 특강'을 열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부산 대원정사·대원불교대학은 30년 전통의 '교육 불사' 노하우를 살린 다양한 특강과 불교문화센터 운영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대원불교대학 부설로 운영될 불교문화센터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둘 계획이어서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파라미타 부산협회 소속 중·고등학생들과 신심 깊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네트워크로 연결, 어학·과학교실 등의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만들 계획이다. 이는 불교적인 마인드로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젊은 불자들을 발굴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부산대교수불자회, 대학생 불자들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교 교리 중심의 법회를 탈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아리 활동으로 '재미있는 불교' '도움이 되는 불교'의 이미지를 심어, 생동감 있는 법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는 것.

이처럼 특색 있는 문화센터 운영 외에도 대원불교대학이 이목을 끄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불교서적은 물론 베스트셀러 5~6천권을 구비한 불교도서관과 최첨단 영상 시설을 완비, 불교영화 감상 및 토론, 불교 영상 자료 관람이 가능한 대학 강의실, 선방 일정에 맞게 자율 정진이 가능한 선다원 등의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원정사는 큰법당을 갖추고 불자들의 신행상담, 기도, 법회 등을 챙기며 교육과 수행의 양 바퀴를 동시에 굴리게 된다. 총 350평 규모의 6층 건물이 미래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 도량으로 장엄돼 부산 불자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허경구, 장휘옥, 김사업, 최봉수 등 유명 학자들의 강의와 수시로 마련되는 초빙특강으로 유명한 대원불교대학의 수업료는 무료. 교재비만 받고 있는 대원불교대학의 방침은 부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김범준 부산 대원불교대학 상임 법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가 탄생하는 교육의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051)583-7700, www.idaewon.or.kr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와! 부처님오신날 같아요"

대구경북 포교사단 호암사 거주 어린이 위문

"덩 기덕 쿵덕, 덩덩 덕 쿵덕."

상주시 이안면 지산1리에 있는 호암사(주지 현종) 마당에 대구에서 온 풍물팀의 풍물공연과 살풀이 공연이 신명나게 벌어졌다. 처음에 멋쩍어하던 호암사 아이들도 나서서 마을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다. 고3인 동현이는 어느 새 북을 잡았다. 아흔이 넘은 마을 어르신이 꽹과리를 받아 쥐었다.

11월 21일 대구경북 포교사단 염불포교팀과 대구 만평 풍물팀 30여명이 상주 호암사를 찾았다. 호암사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줄 슬리퍼, 운동화 스물 켤레와 마을 어르신들을 대접할 돼지고기, 막걸리 등을 잔뜩 싣고서.

작년에 어어 두 번째 방문이다. 도착하자마자 포교사들은 공양간으로 향했다. 준비해 온 재료들로 큰 솥에 50인분 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묵도 끓였다.

대구에서 온 포교사단을 맞아 호암사에 살고 있는 19명의 아이들도 신이 났다. 고3 동현이를 비롯한 큰 아이들은 마당에 자리도 깔고 큰 상을 펴며 일손을 덜었다. 준비된 반찬들로 차려진 공양상 앞에 마을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잔치가 시작됐다. 젊은이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시골에 남아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은 풍물패와 호암사 아이들의 재롱에 모처럼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7살 영국이를 비롯 19명의 아이들과 엄마 보살 이옥연 씨(53), 스님이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호암사의 살림은 언제나 적자다.


대구경북 포교사단 염불포교팀과 풍물팀이 호암사를 방문해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벌였다.

그러나 스님과 엄마 보살은 밝고 착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대견하기만 하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난 시골에서 유일한 아이들이 돼 버린 호암사 아이들은 포교사단과 어울려 마을 어르신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법문 듣고 물건 사고 공덕 쌓고…

통도사부산포교원 바자회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 상진) 3층 법당이 장터로 변신했다.

생활한복, 손으로 직접 빚은 도자기 그릇, 무공해 농산물이 법당을 찾는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입적한 월하 스님의 선서는 물론 수안 스님의 선화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통도사부산포교원 관음회(회장 곽수남) 주최로 처음 열린 바자회는 수익금 전액을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과 통도사자비원 봉사 활동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훈훈함을 더했다. 매월 관음재일마다 법회를 열고 자비참법기도 후 경남일원 사찰을 찾아 방생법회를 열어온 관음회는 인간방생의 실천을 위해 바자회를 마련했다.

"관음회 회원들은 한달에 한 번 통도사 자비원 어르신들 목욕봉사를 하고 있어요. 또 연말에는 좋아하는 과자라도 사들고 찾아뵈어야지 하는 마음만 앞서 준비도 없이 어설픈 바자회를 열게 됐네요."

관음회 곽수남(56·일념자) 회장은 첫 바자회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다며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무공해 농산물을 직접 고르고 쌀 100%의 떡가래를 뽑고, 떡국 거리를 준비하며 수익금 전액이 불우이웃들을 위해 쓰인다는 생각에 정성은 몇 곱절 더해졌다.

관음회 회원들의 이러한 고운 마음 씀씀이에 수안 스님도 선뜻 마음을 보탰다. 사흘 내내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수안 스님은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찾아오는 불자들을 만났다. 수안 스님은 부채에 그림을 그리며 불자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시며 바자회의 의미를 배가시켰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부산포교원 관음회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연 바자회는 물건도 사고 불우이웃도 돕는 행사였다.

부산영산재 첫 공연 성황
창립 11년만 … 진수 선보여


부산영산재보존회가 11년만에 부산영산재를 시연했다.

(사)부산영산재보존회(회장 혜웅)가 11월 23일 부산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9호 부산영산재 정기 공연을 펼쳤다.

93년 영산재보존회 창립 이후 11년 만에 처음 열린 부산영산재 시연이어서 관심을 모은 이날 정기 공연에는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구암 스님 입적 이후 지방무형문화재 제 9호인 부산영산재의 뿌리를 잇고 있는 예능 보유자, 전수 조교, 전수자들이 한 무대에 올라 부산영산재의 진수를 선보인 첫 무대였다.

이날 공연에는 범패 예능보유자 혜웅 스님, 나비작법무 보유자인 해강 스님, 바라작법무 보유자인 청공 스님을 비롯한 전수 조교, 전수생 및 문하생들이 대거 참여해 무용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가 어우러진 부산 영산재를 시연해 보였다.

제 9호 범패 기능보유자인 혜융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타종, 삼신이운, 천수 신묘장구대다라니, 제불통청을 시작으로 대령, 관욕, 시식, 배송으로 마무리됐다.

부산영산재보존회 사무국장 성림 스님(부산 관음사 주지)은 "전국 곳곳에서 영산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 영산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노력과 더불어 부산영산재의 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녹야원' 8집 출판기념회

11월 23일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2층 감로찻집에는 시와 판소리가 어우러지는 문학의 향연이 펼쳐졌다. 대구불교문인협회(회장 김연대)가 회지 <녹야원>을 여덟 번째로 출판하면서 기념법회를 개최한 것. 이날 법회에서는 50여명의 대구경북지역 불교문인들이 모여 시를 낭송하고, 판소리를 감상했다.

대구불교문인협회는 1997년 8월 한국불교문인협회 경북지회와 대구지회를 대구경북 불교문인협회로 통합한 이후 현재 8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지 녹야원은 1997년 12월 창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칠곡 구화사 삼존불 봉안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팔공산 자락에 있는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구화사(주지 혜성)가 1만평 부지에 100평 규모의 법당을 마련하고 종정 석가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약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삼존불 봉안의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화사 주지 혜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곳 구화사에서 무료고아원 양노원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부산 대불련 동문 '자비의 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회장 전광구)는 12월 4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2004 대불련부산동문회 자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으로 다가온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이날 행사는 1부 법요식에서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을 초청법사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과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의 격려사,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부 공양 및 문화공연에서는 불자 가수 김무한씨와 시명 스님의 공연과 자비의 모금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051)248-0011

천미희 기자

세계 청년승가회 정기총회

2004년 8월 네팔에서 발족한 세계청년승가회(World Buddhist Sangha Youth, 공동대표 시히 리엔 하이(대만)·무닌다완사(스리랑카)·히라시미주(일본) 스님)의 제1회 정기총회가 22개국 340여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7~9일 인도 비하라 주 보디가야에서 개최됐다.

국제 불교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미 LA 대각사 주지 진각 스님이 한국대표로 참석, 나눔의 행복 주제의 특강을 했다. 진각 스님은 강연에서 "불교의 발전을 위해 승복, 불교의식, 부처님 탄신일의 통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대만 첸수이볜 총통과 태국 탁신 수상 등도 축사를 보내왔다.

불교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20~40대 젊은 스님들의 모임인 세계청년승가회는 2004년 5월부터 조직 구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8월 2일 네팔에서 발기대회를 열고 창설됐다.

강유신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www.njutcm.co.kr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2월 1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부산·경남 접수처 : 한국한의원(☎ 051)501-0025)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법련사, 제1회 문화환경교실

"저기 재갈매기 보이죠?" "직접 보니 너무 신기해요"



천수만 B단지에서 주지 보경 스님과 함께 기러기 떼를 관측하는 어린이들.

"흰뺨 검둥오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 보이죠! 하얀 새는 재갈매기, 시커멓고 머리가 하얀 새가 물닭, 제일 앞에서 통통거리는 새는 논병아리, 하얗고 큰 날개를 펼치며 날아가는 새는 중대백로입니다."

눈 앞에서 화사한 자태를 드러낸 철새들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은 김정훈 연구원(한국조류연구소)의 설명을 한 가지라도 놓칠까 귀를 쫑긋 세운다.

천수만과 접한 논 쪽에는 기러기 떼들이 보초 기러기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먹이를 먹거나 자고 있다. 김 연구원의 지적에 따라 어린이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철새들과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는 말똥가리 찾기에 여념이 없다. 어린이들은 이어 서산 천수만 철새보호지구대의 전기형 교육부장의 설명으로 천수만에 서식하는 철새에 대한 공부도 했다.

김의준 군(세검정초5)은 "철새를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인데 여러 가지 새를 보고 책에서 봤던 그 새의 특징과 뭉쳐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법련사(주지 보경)가 주최한 제 1회 법련사 문화 환경교실은 11월 21일 천수만 겨울철새 기행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

이날 철새 탐조에 앞서 50여명의 어린이 탐조단은 김용은 박사(경희대 연구원)의 역

50여 어린이 천수만서 철새 탐조
"생명 중요성 생생하게 느껴요"

사해설을 들으며 해미읍성과 서산 부석사를 탐방했다.

김정훈 연구원은 "탐조여행을 여러 차례 안내해봤지만 사찰이 주최하는 행사는 처음"이라며 "어느 종교보다 생명을 중요시하는 불교에서 실제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경 스님(법련사 주지)은 "친자연적인 프로그램으로 불교에 관심있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 2회 법련사 문화 · 환경교실은 '세계 희귀 조류들의 낙원인 민통선지대의 두루미 관찰'을 주제로 12월 19일 열린다. (02)733-5367 글 · 사진=강지연 기자

심인합창단 창립7주년 음악회



진각종 총금강회 대전지부(지도스승 대승심인당 주교 혜언 정사)는 11월 24일 대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전교구 심인합창단 창립 7주년 기념 정기 음악회(사진)를 개최했다.

5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음악회는 현악4중주, 합창, 독창 등으로 진행됐다.

혜언 정사는 "앞으로도 지역포교에 일익을 담당하며 음성포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완주 대원사 10차 중창 회향

완주 대원사(주지 석문) 는 11월 20일 명부전, 향적당을 중창하고 제10차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대원사 창건 1344주년을 맞아 열린 회향법회에는 지역사암 스님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원사 중창을 축하했다.

이날 법요식에서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은 "자동차가 닿지 않는 산중사찰이기에 수천장의 기와를 신도들이 직접 옮겨 이룬 불사여서 더욱 뜻이 깊다"며 "불사하는 마음으로 정진에 임해 더많은 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나주 동원사 천운당 낙성식

나주 동원사(주지 덕현)는 전통차 문화관 '천운당'을 건립하고 11월 19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에서 차인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낙성식에서 덕현 스님은 "차와 선(禪)은 둘이 아니며 천운당은 차와 선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천운당 낙성을 기념, 한국무용가 나금자 씨의 살풀이춤 공연과 원광대 영암 다례원의 헌다식 및 차 시음회가 열렸다. 이준엽 기자

원경사 약사불 · 사천왕 점안

이천 원경사(주지 일봉)는 12월 5일 청동약사여래불과 사천왕 점안 및 사천왕문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높이 8m의 청동으로 제작된 약사여래불은 대웅전 앞마당에 자리 잡고 사천왕문은 전통목조 맞배양식으로 건립된다. 사천왕은 높이 4m 크기로 조성됐다.

원경사는 이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을 위해 오전 9시 서울 상봉버스터미널 팔각정에서 경내까지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031)641-6311 www.wonkyungsa.com

광주교도소 찬불가 · 독경 대회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원장 정암)은 11월 24일 광주교도소에서 '제5회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사진)'를 개최했다.

300여명의 수용자가 참석한 이날 경연대회에는 독경 10개팀, 찬불가 7개팀이 출연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독경 부분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법성게' 등 경전과 '다라니' '장엄염불' '지장정근' 등의 염불 독경이 선보였고 '아이들을 위한 발원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찬불가 부분에는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팀이 출연했다.

대회에 앞서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을 염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이다"며 "항상 불,보 살님의 명호를 염하며 참회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봉선사가 인터넷에 들어갔다"

'봉선사에 가면 나만의 또 따른 세상이 펼쳐진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꾸며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인터넷 홈페이지(www.bongsunsa.net)의 '또 다른 세상, 나만의 법당'이 그 곳.

봉선사는 11월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3D 그래픽을 이용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이버법당을 개설했다.

3D '나만의 법당' 개설
불사금, 모바일 결제 도입

'나만의 법당'은 법당의 기본적인 기능인 참배와 기도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폼메일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봉선사에 초대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서울에 살고 있는 부인과 남극기지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그들만의 법당'에서 언제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바일 결제방식을 도입해 불교계 최초로 휴대전화를 통한 보시 또는 불사 동참이 가능해진 점도 눈길을 끈다.

봉선사는 1년여의 연구개발을 거쳐 완성한 '나만의 법당'을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는 한편, 2단계 불사로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지장전 법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봉선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배움 · 참여 · 신행과 만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움의 마당'은 교종본찰의 전통을 잇는 코너로, 출 · 재가자들의 교학연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참여의 마당'은 봉선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도록 해 '공개살림'과 '화합'의 정신을 구현한 코너.

또한 '신행과 만남의 마당'은 공지 · 새소식, 신행단체, 신행상담, 동아리, 자유게시판 등으로 꾸며진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인터넷을 통한 포교와 사이버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단양 금수사

"수행 · 복지 · 교육 3박자 맞췄죠"



단양 금수사는 매년 한 두차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경로잔치에 앞서 열렸던 법회 모습.

단양읍에서 8Km 정도 떨어진 매포읍 우덕리에 위치한 금수사.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평온하고 따뜻하다.

아직은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아 다소 불편하지만 그래도 금수사를 찾는 사람들은 많다. 단양과 매포는 물론이고 서울 신도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훌륭한 수행 · 기도도량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수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중부권 최고의 수행 · 기도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 종합계획을 마련, 도량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웅전과 조사진영을 모시고 있는 적묵당을 완공한데 이어, 2007년까지 관음전과 지장전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대웅전 뒤편 삼성각 자리에 스님과 재가자들이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40평 규모의 선방도 지을 생각이다. 이들 불사가 끝나면 금수사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없는 사격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주지 혜광 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 금수사를 공원같은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노인복지시설과 납골시설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스님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위안잔치를 여는 등 평소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스님은 오갈 곳 없는 노인들이 부처님 곁에서 머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다.

납골시설 조성도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다. 현재 관음전 앞에 300여기의 영탑이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의 부지를

중부 최고도량 원력 중창불사 계획 마련
납골당 건립 · 서울에 포교당 개설 발원

조성 중이다. 납골문화가 바람직하다는 소신도 소신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금수사가 계획하고 있는 또 한가지 중요한 불사는 서울에 포교당을 개설하는 것이다. 내년 9~10월 경 개원을 목표로 현재 동서울터미널 부근에 부지를 마련하고 불사를 추진 중이다. 서울에 포교당이 마련되면 서울 신도들이 금수사까지 내려와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포교까지도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3~4년 후면 금수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 지금 이 지역 불자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단양=한명우 기자



정토 꿈꾸는 청정지역 불심도 무진장!

전북 남원 · 무주 진안 · 장수

 # 남원 구산선문의 최초 가람지 지리산 실상사(주지 종고)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실상사는 '올바른 승가상의 확립'과 '승풍진작'을 내걸고 결사에 들어간 '선우도량'의 근본도량이 되면서 뉴스의 중심부로 부상했다.

이후 출 · 재가가 함께하는 공동체운동으로 귀농학교, 직영농장, 대안학교(작은학교) 등을 운영하며 생태공동체를 실현해 가고 있다. 또한 '(사)한생명'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통해 정토세계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의 일환으로 사하촌 산내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지역민을 위한 건강사랑방, 스포츠댄스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센터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소외되기 쉬운 농촌의 여성과 어린이 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결성된 지리산생명평화결사는 종교와 이념을 떠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세상의 평화를 위해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이 전국을 순례중이다.

남원불교사암연합회장과 남원불교대학장을 맡아 남원불교를 이끌고 있는 실상사 주지 종고 스님은 "남원은 역사적으로 불교문화와 함께한 고장으로 시민과 불교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불교문화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한다.

지리산 실상사와 함께 남원시내에 자리한 선원사, 대복사도 남원 불교의 중심에 있다.

남원시내의 선원사(주지 보관)는 근래 들어 남원불교대학과 함께 남원불교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연꽃유치원은 전북 동부지역 유일의 불교유치원으로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연꽃유치원이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국내에 하나뿐인 '어린이 전용버스'다. 연꽃유치원은 500여 평 넓은 부지에 70여명의 어린이가 꿈을 키우고 있으나 지역인구가 줄고 있어 신입생 모집철이면 몸살을 앓는다.

선원사 담을 헐어 꾸민 불교서점 '깨달음'도 포교에 한몫을 한다. 깔끔하게 단장된 매장에는 불교서적은 물론 불교관련 팬시용품을 함께 전시해놓아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도 멈추게 한다.

주지 보관 스님은 "지난해 추진하다가 무산된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불교의 숙원사업인 불교회관은 종파를 초월한 불교문화공간으로 108평 규모에 불교대학은 물론 각종 신행단체가 상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회, 청년회를 주축으로 남원불교를 이끌었던 대복사(주지 혜견)는 최근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임한 신임주지 혜견 스님은 중단된 청년회를 우선적으로 재결성하고, 내년부터 학생회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다.

또한 폐쇄된 대복사 불교회관을 수리해 차와 예절을 교육하는 문화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복사는 11월 25일부터 3개월 과정의 '차문화 강좌'를 개설했다.

지역 사찰들의 활동과 함께 남원불교대학의 역할도 눈에 띈다. 1993년, 실상사 도법 스님을 주축으로 남원불교대학이 개설되면서 남원은 사찰불교에서 대중불교로 포교의 폭을 넓혔다.

남원불교대학의 운영 또한 눈여겨볼만하다. 종파를 초월해 스님들로 구성된 지도이사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재가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이처럼 승 · 속이 재정과 운영을 분리해 역할을 분담함에 따라 불교세가 열악한 남원에서 14기에 걸쳐 400여 명의 학인을 배출하게 됐다.

남원불교대학 졸업동문들을 중심으로 감로회(포교사단), 심우회(회장 양만진 · 50대이상 거사모임), 불인회(회장 이동희 · 40대 불교인모임) 등의 신행단체가 출범했고, 남원불교산악회(회장 김광석), 불교대학 학생회와 함께 남원불교신행단체 연합회(회장 이정섭)가 결성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남원불교대학 부학장 도륜 스님(연화사 주지)은 태고종을 중심으로 지역불교 화합과 각종 불교행사의 일선에서 뛰고 있으며, 인월 영선사 주지 월공 스님은 인터넷상에서 '남원불교(http://cafe.daum.net/nbulgyo)'를 운영하며 온라인 포교를 선도하고 있다.

 # 무주·진안·장수 인구 2만 7000여명의 무주는 10여개 사찰이 어렵게 포교에 임하고 있다. 그나마 구천동 백련사, 적상산 안국사가 청정지역 반딧불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관광사찰로 명맥을 이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만 남아, 교통이 불편한 산중사찰을 찾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회는 물론 신행단체의 움직임이 전무하다.

적상산 안국사(주지 원행)는 1995년 무주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수몰되고 호국사터로 이전해 오늘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해발 1000m가 넘는 위치에 자리해 있지만 버스가 경내까지 진입할 수 있어 외지 참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터 '나눔의 집' 원장을 겸하고 있는 주지 원행 스님은 안국사 진입로 초입에 노인 요양시설 '적상원 무우수마을'을 설립하고 개원을 앞두고 있다. 스님은 또한 무주불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무주불교대학을 개설했다.

1년 과정인 무주불교대학은 1기 50여명이 졸업하고, 75명의 학인이 재학 중이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전선자 씨가 무주불교대학 동문회장을 맡아 지역불자들을 엮어가고 있다.

백련사(주지 계현)가 자리한 구천동은 조선 시대 유학에 밀려 숨어든 스님들이 둔을 치고 정진하던 골짜기로 그대로가 불교성지이다. 워낙 깊은 오지여서 자체 신도는 거의 없고 수행자와 관광객이 대부분이다. 깊은 골짜기 끝에 자리한 백련사는 10여개의 전각이 대가람을 이루고 있어 옛 구천 명의 스님들이 다시 사는 듯 하다. 백련사는 관광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서포교를 기획하고 있다.

진안지역 불교도 상황이 무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마이산에 자리한 금당사, 탑사가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편이다.

금당사(주지 성호)는 최근 대대적인 불사중이다. 나옹 선사가 오도한 고금당 복원과 금당사 도량정비 등으로 성역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5일마다 열리는 진안장날에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지사업일환으로 금당사에 무료요양원을 세웠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나옹장학회를 만들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54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국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만불탑이 있는 탑사(주지 혜명)도 대사회사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 15년 전 발족한 '갑룡장학회'는 지난해까지 매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진안지역 불우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 장학회는 탑사 만불탑을 세운 이갑룡 할아버지를 추모해 장손자 혜명 스님이 설립했다.

혜명 스님은 "평소 조부님은 나보다 남을 위하고, 봉사하며 베풀고 살라했다"고 회고한다. 1993년 혜명 스님은 2년여에 걸쳐 전북지역 사암을 직접 답사하고 사비로 <전북불교연감>을 편찬해 전국 도서관과 일반에 보급했다.

1969년, 법륜 스님이 장수 팔성사에 왔을 때만 해도 초막법당 한 채였다. 1km에 걸친 진입로는 밭두렁이었고 신도들은 1년에 한두번 찾을 정도였다. 그랬던 사찰이 30여년만에 극락전을 비롯한 전각과 요사채에 '성적선원'까지 갖춘 대가람으로 일신했다. 깊은 산중의 사찰이 이렇게 변하기까지의 흐름자체가 오늘의 장수불교 역사라 할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해도 장수지역에 팔성사 이외에 유력 사찰이 없어 모든 일을 외롭게 해야만 했다.

이제 팔성사는 산사체험관 건립을 준비중이다. 여름에도 모기, 파리가 없는 고산지대이기에 주말참선, 108참회, 산중농사체험 등의 수련회를 통해 사찰과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다.

장계 성관사는 10년전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던 월성 스님이 주석하면서 도량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스님은 도량정비뿐 아니라 대각선원을 열어 사시사철 눈푸른 납자들을 제접하고 있다.

장수 번암 용성 스님 탄생지는 장수군과 도문 스님의 원력으로 성역화 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내년 봄 죽림정사의 전체불사가 회향된다.

남원 · 무주 · 진안 · 장수=이준엽 기자


남원지역 불교는 승 · 속이 재정과 운영 등 역할분담으로 지역불교발전을 꾀한다. 매년 연합 체육대회를 통해 불자들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다양한 생태 공동체운동을 펼치고 있는 실상사는 지난해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출범과 함께 생명과 평화의 성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남원 실상사 지역민과 함께 공동체 활동
무주 안국사 · 백련사 '배움과 실천' 이끌어
진안 금당사 · 탑사 복지 · 장학사업 등 주목
장수 창건사찰 늘어나며 불심도 '용트림'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월성 스님
장계 성관사 조실


계현 스님
무주 백련사 주지


도법 스님
생명평화탁발순례단장


원행 스님
무주 안국사 주지


종고 스님
남원 실상사 주지


도륜 스님
남원 연화사 주지


성호 스님
진안 금당사 주지


혜명 스님
진안 탑사 주지


보관 스님
남원 선원사 주지


법륜 스님
장수 팔성사 주지


혜견 스님
남원 대복사 주지


이정석
남원신행단체연합회장


전선자
무주불교대학 동문회장


이경재
실상사 작은학교 대표교사

▌인터뷰 / 용성조사 성역화불사 추진 도문 스님

"민족성지를 건립합니다"



"복과 지혜있는 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용성조사 탄생지에 죽림정사를 건립했습니다"

장수군 번암면 용성 스님 생가터에 죽림정사를 건립한 도문 스님(사진)은 "사찰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민족정기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민족성지로 전 국민이 참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여년전, 이서구(李書九) 전라감사가 초도순시중, 이곳 장수 죽림촌에서 나라를 구할 인재가 나오며, 이곳에 지혜와 복덕을 갖춘 도인이 머물러야 나라가 부흥한다고 예언했다. 100년 후 백용성 스님이 태어났고, 또다시 100년만에 죽림정사가 건립되어 도인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백용성 조사 탄생성지 성역화불사'는 장수군을 비롯해 지역민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추진됐다. 그리고 지난달 108평 규모의 용성교육관이 준공되면서 성지의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 기념관은 도문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용성 스님 유품 400여점과 용성 스님의 행장이 소개되어 벌써부터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도문 스님은 "내년 5월, 용성 스님 탄생 141주기를 기념해 죽림정사 불사 회향법회를 갖고 큰 스님의 독립운동정신을 살려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교육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주목! 실상사 작은학교

"학교 작아도 가르침은 커요"

2001년 문 열어 올해 첫 졸업생 배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교육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대안학교이고, 실상사 작은학교는 불교계 유일의 중학과정 대안학교이다. 2001년 처음 문을 열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외형적으로는 교사 10명에 학생이 학년당 15명 이내로 미니학교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곳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뤄진다. 8개의 작은 가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생활한다. 서로 돌아가며 식단을 마련하고 자신의 빨래는 직접 한다. 학교에서도 일반교과보다 흙과 나무 등 자연을 이용한 체험교육시간이 더 많다. 교육의 대부분이 불교적 가치관을 익히고 살아가도록 하는 '세상보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지리산 깊은 산중의 작은학교이건만 지원자가 많다. 내년 신입생모집에 벌써 전국에서 4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최근 실상사 작은학교는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학사마련이다. 컨테이너 3개동으로 이뤄진 학사를 생태학사로 바꾸려 한다.

작은학교 이경재 대표교사는 말한다.



컨테이너 3개동으로 이뤄진 실상사 작은학교 전경.

"법당을 건립하고 원불을 모시는 불사도 좋으나 인재불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과 중생을 이끌고 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을 키우는 불사에 힘을 모아주세요."

(063)636-3369 www.jakeun.org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명하다. 헌혈을 하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

능인선원



능인선원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불자들. 국회의원, 기업 임원, 언론인, 교수 등 오피리언 리더들이 이곳에서 공부했을 정도로 거사불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안국선원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안국선원 신도들. 안국선원은 간화선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행의 묘미를 깊이 느끼게 해준다.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기획시리즈를 마치며

철저한 교육·실천이 '황금열쇠'

현대불교가 창간 10주년 기획 시리즈로 두 달 간 취재 · 보도했던 특별기획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이 한마음선원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구룡사, 능인선원, 부산 삼광사, 안국선원, 한마음선원 등의 장점을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시리즈는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여섯 사찰들의 성공비결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사찰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취재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6개 사찰 닮은 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6개 사찰들은 공통점이 있다. 철저한 교육과 수행풍토,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신행패턴, 생활불교 지향, 주인의식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체계적인 교육이었다. 양질의 신도교육이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셈이다.

-문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이다. 이들 사찰의 신도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더 공부해야겠다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면서 자연스레 수행으로 연결되고 있다. 봉사활동이나 사찰 일에 적극적인 것도, 불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것도 따지고 보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결국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음선원이나 구룡사의 경우 어린이 · 학생 · 청년회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몇 십 년이 지나면 이들이 바로 든든한 재목들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구룡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아래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능인선원, 안국선원의 경우 정말로 교육이 엄격하다. 입교절차도 까다롭고 공부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능인선원의 경우는 '신도사관학교'라는 별칭이 붙었고, 안국선원은 집중수행 등의 초심자과정을 거쳐야만 신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신도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좋아한다. 어떤 신도들은 가족과 주위 사람들까지 끌어들인다. 이런 불자들은 당연히 많은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사찰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점도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한다.

#시대흐름을 잡아라

-사실 대부분의 사찰들은 타성에 젖어있다. 자기 색깔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불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꾸 변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흐름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 6개 사찰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점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안국선원이 성공한 이유는 수행열풍의 시대조류를 반영하고, 또 일반인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간화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마음선원 역시 자율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수행과 신행체계를 갖춤으로써 역동적인 사찰이 될 수 있었고, 능인선원의 경우도 불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과 신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구룡사가 최근 재가선방을 마련하고 제천에 시민선방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수행분야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수행에 관심이 높아지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삼광사가 다양한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불자들의 사찰만이 아닌 '부산시민의 공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것이다. 삼광사 한글학교가 이제 부산의 명물이 된 것처럼 그 사찰을 대표하는 특징을 창출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구 영남불교대학도 자원봉사로 유명하다. 불교대학과 봉사활동조직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처럼 확고한 위상을 갖춘 불교대학으로 자리잡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구 불자들은 공부도 원했지만, 사회활동을 통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욕구를 영남불교대학은 잘 읽고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찰들이나 불자들은 "돈 있고 신도가 많은 큰 사찰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사찰들이 처음부터 재정이 튼튼하고 규모가 컸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도심사찰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신도조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마음선원이나 구룡사의 경우는 조직적이라기 보다는 자율에 바탕을 두고 있고, 능인선원이나 안국선원 등은 잘 짜여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자 특성에 맞게 신도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신도 중심'이라는 것이다. 신도들이 능동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기복에서 작복(作福)으로

-한마음선원의 경우 생활 속의 불교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신도들은 생활 자체를 공부로 삼고 있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 보는 노력을 하면서 깨달음에 접근해가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신행도 기복이 아니라 철저히 '작복(作福)'에 초점이 맞춰진다.

-나머지 5개 사찰들도 한마음선원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영남불교대학이나 구룡사, 능인선원 등도 실천을 강조한다. 신도들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기복을 방임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절에 와서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을 지을 것인가를 절에 와서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요즘처럼 많은 정보를 갖고 시대흐름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바른 불교'가 통한다.

#높은 자긍심과 주인의식

-6개 사찰 취재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신도들의 자긍심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엘리트 의식'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도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찰, 그리고 불교를 신앙하고 있다는데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아마도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 덕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모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행과 신행에 더 열심인 이유도 이런 요소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은 한 단체가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된다.

-스님과 신도들 간의 신뢰도 무척 높았다. 보통 스님들이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신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스님들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잘되는 집안은 어른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처럼, 이들 사찰들도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이 신도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항상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화된 영역을 개발하라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일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요소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번에 소개된 6곳 사찰들 역시 한 두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적어도 어느 한 분야에서만큼은 내로라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절에 와서 무엇인가 배우고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얻는 것이 없다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 좋은 물건은 많은 사람들이 사게 돼 있고, 그러다보면 인기상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복적 요소를 배제하고 '정법'에 근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복적 요소가 사람들을 끌어들일지 모르지만 그런 신도들은 오래가지 않고 사찰 이미지도 나빠진다. 성공한 사찰들이 정법에 의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6개 사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그대로 흡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각자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즘 사회에서도 벤치마킹이 유행하지 않는가. 사찰 규모가 작다고 해서, 도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시작이 반이다. 정리=한명우 기자

기획취재팀 : 한명우(팀장)
천미희(부산주재), 박봉영, 김철우,
김은경, 배지선(대구주재) 기자

구룡사



구룡사는 특히 문화를 통한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운영하는 뮤지컬 극단 '신시'의 대표작 '맘마미아'의 공연모습.

부산 삼광사



부산 삼광사는 매년 동지때마다 팥죽을 끓여 지역민과 나누는 등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마음선원



한마음선원은 미래불자를 키우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다. 11월 6일 열렸던 한마음선원 주최 '간암환자돕기 음악회'에서 어린이들의 공연 모습.



제 38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개 요

1. **일 시** : 불기2548년 12월 18일(토)17:00 ~ 19일(일)15:00
2.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경북 경주소재)
3.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4.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 **슬 로 건** :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진하여 바르게 지도하자!
6. **예상인원** : 300명
7. **연수참가비**

구분	미리접수	당일접수	제주도, 울릉도 군종병	해외거주자
기본반	60,000원	70,000원	50,000원	무료
구연 동화를 활용한 교구 제작	70,000원	80,000원	60,000원	
재미있는 법회를 위한 과학놀이	70,000원	80,000원	60,000원	
어린이법회에 활용할 상담	80,000원	90,000원	70,000원	
레크리에이션	60,000원	70,000원	50,000원	

※ 입금하신 참가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재료비 포함

8. **지 급 품** : 연수자료집,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도서출판 솔바람)
9. **개인준비물** : 필기구, 간편한 옷
10. **접수방법** : 본 회 홈페이지 www.dongja.org 또는 전화 (051)864-4569, 457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일 정 표

공통과정

〈특강〉 교재 · 교구에 부처님 마음을 담자	지운스님	전 송광사 강주, 불교방송/TV 강의
화합 한마당	이 성 훈	선재이벤트
찬불가와 율동	정 유 탁	풍경소리
어린이를 위한 선기공	정여스님	본회회장, 여여선원장

기본과정

참선 이론 및 실수	원철스님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신도국장
기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최 미 선	우해나라어린이집원장
부처님 말씀을 담은 프로그램 만들기	이 수 경	동국대 불교 아동학과 교수

심화 과정

구연동화를 활용한 교구제작	박 서 영	동화구연강사
재미있는 법회를 위한 과학놀이	조 오 근	장영실 고등학교 교사
어린이법회에 활용할 상담	정 욱	부산대학교 심리생활 연구소 연구원
레크리에이션(법당놀이/마당놀이)	이 성 훈	선재이벤트 실장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dongja.org TEL.(051)864-4569, 4570 FAX.(051)864-4665

(재)선학원 중앙선리연구원 채용 공고

근현대 한국불교의 산실인
재단법인 선학원의
전통을 계승하고,
선학원의 21세기 도약을
이끌어 갈 인재(**연구원**)를
모집합니다.

▣ **자격**
불교학(한국불교사) 박사과정 수료 이상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위증명서 1부

▣ **전형방법**
1) 1차 : 서류 전형
- 제출기간 : 11월 17일(수) ~ 12월 4일(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개별접수, 우편에 한함

☞ **우편접수 및 서류제출처**
재단법인 선학원 총무과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02)734-9654~6

2) 2차 : 면접

▣ **기타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 6일까지 개별통보를 해 드립니다.
- 면접은 12월 15일 실시됩니다.

재단법인 **선 학 원**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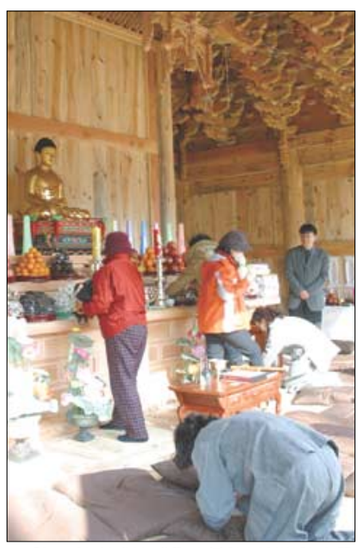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금강산 불교'가 되살아나고 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오른쪽줄 첫번째). 총무원장 법장 스님(왼쪽줄 첫번째)등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1월20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복원 낙성법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대웅전 현판제막식 모습.

금강산 법등 다시 피어올랐네

北 신계사 대웅보전 복원 낙성식 현장



11월 20일 신계사 대웅전 복원 낙성법회가 끝난 후 남한 불자들이 참배하고 있다.

11월 20일 오전, 북한 땅인 강원도 고성군 창대리 금강산 신계사에는 가는 비가 내렸다. 해방 전까지 21개 동의 전각과 8개 산내암자를 거느리는 대가람으로 금강산 불교를 대표했던 신계사.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 폐사지로 전락한 천년 고찰 신계사 대웅전이 역사 앞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축하하는 듯 했다.

남북한불자 400여명 참석 평화통일 기도도량으로

신계사 대웅전 복원 낙성식. 남북 불교교류 10년 복원 논의 5년 만에, 남북한 불자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민족통일의 초석을 쌓기 위해 전통문화재를 복원해 냈다. 이로써 53년 동안 꺼졌던 금강산 불교의 법등은 다시 타오르게 됐다. 대웅전 복원으로 신계사는 이제 금강산 불교의 성지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도량이 된 것이다. 금강산을 찾는 불자들도 이제 대웅보전에서 예불을 올리며 신심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이날 낙성법회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이 신계사 대웅전에 모셔지는 부처님의 눈을 그려 넣는 점안식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헌화, 봉행사, 종정법어, 축사와 축원, 통일기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신계사의 대웅전 낙성식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조계종에서는 원로회의 의원 활안, 천운 스님, 총무원장 법장,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스님, 9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종회의원 스님 23명을 비롯 137명의 교계 원로, 중진 스님이 이곳을 찾았다. 마치 조계종 종단 전체를 이곳으로 옮겨 놓은 듯 했다.

정·재·학계의 대표들도 자리를 가득 메웠다. 시인 고은, 한학자 김용옥, 이봉조 통일부 차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국회의원 김원웅, 배지선 의원 등 400여 명이 역사의 현장에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대결과 갈등'을 '화해와 단결'로, '분단과 단절'을 '교류와 소통'으로 바꿔나가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신계사 복원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했다. 법장 스님은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신계사를 평화통일의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금강산 일대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해서 희생된 영령을 기리는 '평화기원 위령제'를 봉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신계사 복원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문화재 복원의 중요한 선례이며 문화재청도 신계사의 복원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은 시인은 "신계사 법기암에서 수행했던 스승 효봉 스님의 모습을 대하는 듯 감개무량하다"고 했으며, 도올 김용옥씨는 "진정한 통일은 신계사 낙성식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를 통해 불교는 가장 전통적인 종교이자 21세기의 가장 전위적인 종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오른쪽 첫번째)이 신계사 대웅전 부처님을 점안하고 있다.

조계종은 신계사 복원불사를 여법하게 진행시키고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 및 모연 사업 등 신행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제정 스님을 불사도감으로 파견했다. 스님의 신계사 상주는 남측 종교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머무르며 종교 활동을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기도 하다. 북한도 관리원 7~10명을 파견해 절 운영을 도울 방침이다.

신계사 복원을 위한 뜨거운 감동은 이날 저녁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로도 이어졌다. 신계사 복원추진위원장 종상 스님 5천만 원, 도선사 혜자 스님 7천만 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마근, 영조, 도공 스님 등도 각각 성금을 약정, 무려 4억원과 기금이 즉석에서 모금됐다. **금강산 신계사=강유신 기자**

신계사 복원불사 일지

해방전
1910년대 훼손되기전 신계사 옛 모습.



2000년
평불협 법타 스님을 중심으로 조불련과 신계사 복원 협의 시작



2001년
신계사 등달기



2001년 11월
신계사지 지표조사 실시



2003년 11월
신계사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2004년 4월
신계사 복원 착공식



2004년 11월
대웅보전 낙성식 개최



2007년, 대가람 위용 갖춘다

신계사는 신라 법흥왕 6년(519년) 보운 화상이 창건,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와 함께 금강산 4대 명찰로 꼽힌다. 해방 전만 해도 석두·효봉 스님 등 선승이 주석하며 법등을 전해왔는데 한국전쟁 통에 모두가 전소돼, 3층 석탑과 주춧돌만 남아있다. 북한 당국은 이곳을 국보유적 제 95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신계사 대웅전 복원은 지난 2000년 평불협 법타 스님이 북한을 방문한 길에 조불련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논의됐으며 2002년 4월 신계사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 2002년 12월 조계종과 조불련 간의 합의각서 교환, 2003년 11월 신계사 남북공동 발굴조사, 2004년 4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 착공식 등을 거쳐 마침내 2004년 6월 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종상)가 결성됐으며 2004년 11월 20일 완공을 보게 됐다.

2007년까지 4단계에 걸쳐 3층석탑 극락전 금강동문 만세루 최승전 대향각 종각 나한전 수승전 등 12개 전각이 목조 전통건축양식으로 건립돼 찬란한 금강산 불교의 대표주자로서의 사격을 되찾을 전망이다. 대웅전은 19세기 말 중창된 모습 그대로인 외 9포 내 13포, 전면 3칸 측면 3칸 28평 규모로 지어졌다. 신계사 복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85억원 수준이다.

신계사지는 풍수학적으로 행자가 들어와 고승이 된다는 '사변위룡(巳變爲龍)'의 지세로 여겨진다. 사방으로 관음봉 문필봉 집선봉 세존봉 등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가 외호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2월 14일 출발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일 시	교 통	일 정
12월 14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국내선편으로 정주로 이동
12월 15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12월 16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12월 17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12월 18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에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제17대 국회 정각회 창립축하법회에는 정각회 회원 30여명 외에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7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정각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여섯번째가 이용희 회장. 사진=고영배 기자

화합·희망의 상생정치 발원

제17대 국회 정각회 창립축하법회 … 각 종단 대표·소속의원 등 '성황'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서

"제17대 국회 정각회 불제자들은 여야 구별 없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비 실천과 한국불교 중흥, 국민화합이라는 대업을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하고 불교를 외호하겠다는 불자 국회의원들의 발원문이 울려 퍼졌다. 바로 국회 정각회 창립축하법회 현장. 이날 행사는 지난 6년간의 공백을 딛고 제17대 불자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정각회의 재 창립을 선언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끌었다.

1981년 제11대 국회 때 출범한 정각회는 1998년 제16대 국회 때 회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등으로 사실상의 활동을 중단해 왔다.

하지만 제17대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개신교 등 타종교신자 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반면 불자 의원들의 활동은 부족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7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회장단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불교계 주요인사와 정각회 회원,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등 700여명의 내외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헌촉과 고불문 낭독, 정각회 회장단 인사, 법어, 명예전법사패 수여 및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제17대 정각회 이용희(열린우리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창립한 정각회는 여야와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의정활동을 통해 불교계의 현안과 불자들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는 불제자로서, 일심동체가 되어 부처님의 정법구현과 선양에 솔선수범하고, 불교외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각회 박세일(한나라당) 부회장 또한 "장군죽비가 졸고 있는 선객의 어깨를 내리치듯 그 동안 분열과 독선 등이 횡횡한 국회에 부처님 진리의 철퇴를 내려 바른 법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초가 자신을 태워 불을 밝히듯 국회의원은 자신을 태워 국민과 국익을 위한 불을 밝혀야 한다"며 "부처님처럼 국정에 임해, 모든 이들에게 안락과 평안을 안겨달라"고 당부했다.

정각회는 우선적으로 불자 의원들의 신행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현재 정각회에 가입되지 않은 불자 의원들의 참여와 무종교 의원들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종단 및 관련 단체로부터 불교관련 현안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 중인 회원들을 통해 의정활동에 불교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제17대 정각회에 가입한 국회의원은 이용희, 박세일, 강창일(열린우리당), 안홍준(열린우리당), 정문헌(한나라당), 이계진(한나라당) 의원 등 총 39명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정치 1번지 여의도 금강경 독송 '열풍'

국회직원불교신도회가 진원지

국회직원불자들이 국회에 금강경 독송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길성)가 매주 수요일 국회 지하법당에서 점심시간마다 금강경독송법회를 진행하고 한문과 한글로 된 금강경 소책자를 발간, 무료 배포하는 등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인 금강경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신도회 김경해(46) 부회장은 최근 사비를 들여 금강경 독송 테이프 3,000개를 제작하는 등 금강경 포교사를 자청하며, 금강경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소책자 무료배포
독송 테이프 보시
매주 한차례 법회

김 부회장은 "불교를 접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미처 깨우치지 못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출퇴근시간과 자투리 시간에 금강경을 독송하며 하나둘 알게 됐다"며 "금강경 독송 테이프로 보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회원들 역시 업무 짬짬이 금강경독송 녹음과 제작 및 배포작업을 도우며, 국회 내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금강경을 알리기 위해 열심이다.

앞으로 국회직원불교신도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금강경 소책자와 독송 테이프를 무주상보시할 계획이다. (02)788-2890

김은경 기자

회장 취임축하 및 송년법회

12월 10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세호)가 송년법회를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다.

지난 10월 제3대 공불련 회장으로 선출된 김세호(건설교통부 차관) 회장의 취임축하를 겸할 이날 자리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문과 김세호 회장의 인사말,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 소개 및 다과회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날 법회에서는 제3대 공불련의 사업방향과 주요사업안들이 일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불련 신임 집행부는 최근 前 집행부 및 임원단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중앙사무국 업무 인수인계 및 연합회 향후 발전 방향, 사업아이템 등을 논의했다. (02)739-1080

김은경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여주교도소 불심회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사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려 노력하는 불심회. 안녕하세요, 여주교도소 불심회입니다.

우리 불심회는 지난 1994년 수원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불자직원 20명을 중심으로 태동했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 수원구치소가 생기고 2001년 수원교도소가 여주로 이주하면서 수원구치소와 여주교도소 두 개의 불심회로 분할되었습니다. 현재는 60여명의 회원들이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심회는 보안, 용도, 작업, 의무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모여 활동하는 만큼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 회원들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포교부, 상조부, 조직부 등을 구성해 자율성을 높이고 각 부서별 활동을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조부는 직원들의 애경사 등을 챙기고, 포교부는 재소자들을 위한 영치금 마련과 불서 및 염주전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부는 정기적인 사찰탐방과 성지순례 등을 기획·진행하고, 봉사부는 양로원과 고아원 등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총무부는 회비 및 각종 교육예산 등을 편성하며 불심회를 알차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심회의 중심활동은 재소자 영치금 전달과 상담활동 등 재소자들의 교화·교정활동에 있습니다. 재소자들을 감시·지도하는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형과 삼촌 때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재소자들의 고민과 불편사항 등을 듣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을 상담하다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한 사람은 바로 이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회에서 지은 죄에 대한 참회뿐만이 아니라 '참나'를 바라보고 문제점을 발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부처님의 말씀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재소자라도 더 교화시키기 위해 매주 목요일 재소자



여주교도소 직원불자들이 성지순례 차 지난 10월 17일 양양 낙산사를 찾았다.

포교·상조·봉사부 결성, 활동 극대화
재소자 상담과 영치금 전달에 주력

법회는 물론, '붓다 아카데미'와 '기초교리 강좌' 등 다양한 정신·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비의 일정부분을 정립해 법회 후 따뜻한 떡을 나눠먹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소자들을 위해 영치금을 넣기도 하며 마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불심회는 상·하반기 두 차례, 원주 소쩍새 마을과 안성 연꽃마을 등을 찾아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목욕 돕기 등의 노력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에는 여주 경찰서 불자회와 함께 봉축행사와 제등행렬의 질서유지와 뒷마무리 등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심회는 직원불자들은 물론 재소자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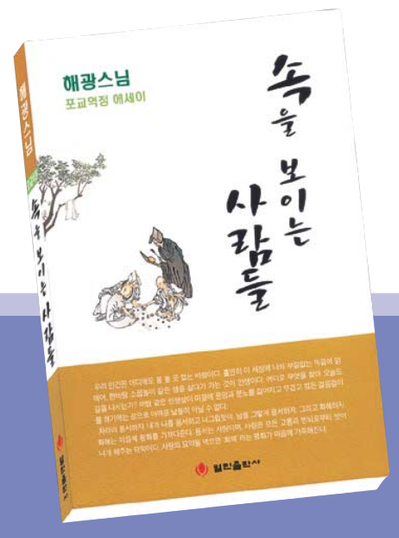
■어윤식 부회장

금강선원 해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에세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평화가 가득해진다.
우리인간은 어디에도 몸 둘 곳 없는 바람이다. 홀연히 이 세상에 나와 부질없는 마음에 얽매어, 한바탕 소꿉놀이 같은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로 무엇을 찾아 오늘도 길을 나서는가? 바람 같은 인생살이 마음에 원망과 분노를 짊어지고 무겁고 힘든 걸음걸이를 하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날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용서하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그럽듯이, 남을 그렇게 용서하자. 그리고 화해하자. 화해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용서는 사랑이며, 사랑은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묘약이다.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평화가 가득해진다.

해광(海光)스님 저서 불교비전의술서「붐가비의」/ 실용 역학서「운명비결」/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왕 초보 절에 가다」집필 중.

해광스님 /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열린출판사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33-4 영화빌딩 504호 / 02-2275-3892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Set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가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본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채 요가지도자 용

- 지원자격 : 1. 2004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or 200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요가 수련 경험이 없어도 심신이 건강한자 지원가능 2. 대구 지역 근무 가능한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적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접수기간 : 2004. 12. 10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인통보 면접

※ 이메일접수 : albong99@hanmail.net

휘트니스 요가원 대구시 중구 포정동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불교 각종 행사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
010-4816-645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점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선암사에서
2000~2002년 사이에
득도한 비구니
(김정림, 순천 生)
스님을 찾습니다
010-3004-3390
정관스님

신축 사찰 창건하실
주지스님
모십니다
강원 인제
010-9657-9595
(24시간 상담)

시화전시장을 추천받습니다
만인의 가슴에 시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서정시연구회에서 주옥같은 서정시를 선정, 제작한 고급 시화액자의 전시장을 공개 물색하오니, 최소한 20점이상을 전시할 만한 전통찻집이나 레스토랑의 경영주로서 뜻이 있으신 분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055)884-1193(겨정스님)
051)246-0467
016-564-3830

사찰운영하고 싶은 비구,
비구니,보살님 초빙합니다
첩학상담.
약간의 자금 소유자 환영
017-390-0909
02)2201-0796

황토 청국장
덕유산 관음도량에서 수행하며 정성껏 만든 청국장입니다.
토종 우리콩을 900m 약수로 가마솥에 장작불로 7시간끓여
황토방에서 솔잎과 발효
자연 건조한 청국장입니다
주문 063)323-2100
대한불교조계종 원통사 관응화 합장

치 질 치 루
- 치열이 있는분
- 통증이 심한분
- 재발이 잦은분
- 한방비법과 운동요법으로 완전 정복함

(스님들께는 특별보시함)
팔공산 천룡정사
017-533-1356,054)336-0052

공양주보살님 및
행자스님
모십니다
▷동해사
033)672-290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천시내
011-781-3513

가족처럼 함께 지낼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 ~ 60세
02)386-0926
011-286-03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구미 (40대이후 ~ 60세)
011-541-755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55)383-6479

공양주보살님
총무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화정
011-493-112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 포항시 근교
011-825-690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31)765-7094
031)766-0261

(급)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논산. 조계종
011-791-2889
041)734-8730~1

공양주보살님
(50대 이후)
종무원 요원
모십니다
▷대구
010-4667-0715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부전도 가능)
02)790-0805
017-515-7527

화주보살
구합니다
02)952-7277

요사채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 전문
1.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
2. 증축 확장 개보수 공사
3. 보일러 설비 및 위생배관 공사
4. 전기 공사
5. 샷시 창호 공사
6. 미장 방수 공사

불심으로 봉사하는 여일 종합 건축 공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12-22 대표 윤재만
TEL. 02)476-8139 H P. 011-9720-1443

보현불교예술원
- 불교용품 - 불상조성
- 전기촛불 - 양초제작

대표 박천호 합장
016-258-6124 / 02-996-8830


부처님등불

상가안내
- 위치 : 제천시 신백동 극동아파트 상가 지하
- 평수 : 50평 (현재 비어있음)
- 시내 포교당으로 적합
- 가액 : 6천 5백만원

011-9058-2264

창원중심지역 불교용품점
-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 평수 : 12평, 1층
- 물품대금 일체 3500만원

주간)051-208-7074
야간)011-872-4041
055)265-7998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5평
- 법당 30평 ●신축사찰
- 가액 : 1억원
- 답사 후 절충가능

033)534-0407
010-9478-1686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봉명동
- 평수 : 45평
- 법당 1, 주방, 상담실, 침실
- 가액 : 보증금 3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1-213-7499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남, 빌라 밀집 주택지역
- 법당, 거실 넓음
- 방1개, 주방, 화장실, 베란다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 후일 지급해도 됩니다

011-678-080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중앙동
- 평수 : 60평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완비(전체 황토방, 전통 쑥찜질 시설)
- 가액 : 6천만원

033)631-4831

송암 범음대학 학인 모집
도량성 · 송자성 · 종성 · 향수해례 · 오분향례
착복 · 천수바라 · 막바라 · 창어성 · 천도재
불공 · 대령 · 관욕 · 시식 등 불교의식 학인을 모집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85 보화당한의원옆 3층
063)643-6619 / H · P 011-9454-6619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 신입생 주,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 도심속7층대법당, 최첨단시설

▶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있음(엘리트 스님양성 -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직접지도합니다.
문의 : 011-9852-0075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60포 : 20만원) ● 2Box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과일의 왕 두리안
Sale!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후식으로 망고스틴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018-350-7150 02)929-4646,4643

사주학 1개월 무료특강

[초보자 환영] 선착순 30명 유방현 원장 직강

개강 : 12월 1일(수요반)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12월 5일(일요반) 오후 2시 - 5시

자미두수 1개월 무료특강

[초보자 환영] 선착순 16명 유방현 원장 직강

개강 : 11월 30일(화요일) 오후 2시 - 5시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0
- 시설비 : 2000만원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1억3천만원

- 위치: 강원
- 임법당 : 30평
- 부지 : 1300평외
- 임대사용 : 2000평
- 가액 : 3500만원
- 공부하는 스님 조용한 기도처 필요한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3억 / 5억 / 10억
- 경기도 : 7천 / 8억 11억 / 13억
- 서울. 수도권사찰. 사찰터 다량보유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서울시내
5억 ~ 10억
사찰구함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018-267-098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6억 (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부지 : 만평
- 법당 : 10평
- 요사 : 35평
- 가액 : 1억 8천

- 위치 : 경북 소도시
- 부지 :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가액 : 1억 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대변리 동부산 관광지,버스에서 5분거리
- 평수 : 36평, 2층 법당
- 1층 방 2개, 법당 12평 요사채 15평
- 가액 : 7,500만원(절충가능)
- 시설비 일체 없음. 시설일체

016-819-0318
051)727-6735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 상하옥
- 대지 : 200평
- 전 500평, 국요지 300평
- 신축요사 법당
- 경치좋은곳
- 가액 : 1억 3천만원

054)262-667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7천 5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사 찰 안 내
① 경북 영천시 북면
- 대 60평
- 법당 20평(단청)
- 요사 방3개
- 도심 속 포교당 사찰 양호
- 가액 : 1억6천5백만원

② 충북 옥천군 소재 대전 15분거리
- 대 300평
- 법당 40평
- 요사 1동
- 가액 : 2억

② 대구 팔공산 동화사길
- 대 110평 · 건 70평
- 2F 법당 20평 1F 방 4개
- 4차선도로접
- 가액 : 1억8천만원 전세 : 6천만원

※ 대전 동구 삼계동(대)900평 임법당 50평 ₩ 2억
※ 충남 청양 칠갑산자락 (대)220평 토굴 전세 ₩ 2800만원
※ 충남청양 칠갑산 자락(대) 200평 임법당 ₩ 1800만원

017-409-9599

사 찰 안 내
- 위치 : 일산
- 법당 : 110평
- 요사 : 방 5개
- 보증금 : 2천만원 월 1백 3십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위치 : 서울대입구 전철역
- 법당 : 30평
- 요사 : 방 1개
- 보증금 : 천만원 월1백만원
- 시설비 : 3천5백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대전 대사동(보문산공원내 도로변에서 20m. 경관좋음
- 땅: 70평(시유지) 건물은 등기
- 큰방 3개, 법당, 마루텃밭 허공 산신당, 기와집,시설일체
- 삼존불 모셔져있음
- 가액: 5500만원

011-9614-3009

포교당안내
-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사무소 부근
- 평수: 25평(2층),주방1, 방1, 법당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 월세 40만원
- 냉난방시설완비

011-669-3345
02)3494-496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상인동 4층 중 2층
- 방 3개 주방1, 화장실1 총 70평(법당 3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11-822-6104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 약 40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시설 일체
- 즉시법회가능
- 전세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400만원
- 덕산온천역.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
- 부지: 30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20평
- 가액: 3억
- 정통한옥 개조한 토굴

- 위치: 밀양 무안
- 부지: 26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1억 5천
- 마을 인접한 토굴

- 위치: 부산 근교
- 부지: 3,0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4억 8천
- 교통양호한 숲속암자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궁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 인구 60만 대구달서구소재
- 건물 : 3층(70평)법당30평 방 4개
- 특징 : 8차선대로변 지하철역 1분거리(편리한교통)
- 가액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70만원(시설비 : 답사후 상의)

011-9366-892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도로변
- 3~4층 (방8개) 총 135평 옥상 80평 (노상법가능)
- 특징 : 최고의 위치,시설(시민선방, 불교대학,대중포교당으로 최적지임)
- 가액 : 1억 5천만원(시설비(권리금)포함)

053)745-3334
017-501-7369

연수원,수련원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3층건물
- 평수 : 150평
- 법당1, 주방, 방6, 화장실, 창고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년 7백만원 시설비 무
- 특징 : 밭 300평 사용

053)961-0224

토굴겸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청량리역 맞은편
- 2층 방2,거실,욕실,주방
- 가액 : 300만원 월 30만원
- 즉시 입주 가능

010-7135-403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 대지 : 1220평
- 법당 : 32평
- 특징 : 남쪽방향,원주시근접
- 가액 : 5억

011-371-9011
033)734-348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구남시장
- 총평수 : 50평 (전세가능)

011-584-3898

사찰 안내
- 위치 : 통영시 근교
- 총면적 : 약 5500평
- 법당 : 20평, 칠성각 10평 산신각 1동, 요사채 목조15평, 스라브 30평
- 계곡 청정한 고찰 버스종점 5분거리
- 가액 : 2억 5천만원

055)637-592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시내
- 평수 : 600평
- 법당 : 25평(전통목재)
- 요사채, 방 5개
- 지하수 및 주차장 완비
- 가액: 2억

011-563-0108
055)222-9486

포교당(급)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인구밀집지역
- 2층건물 중 2층 (32평)
- 건물 (시설) : 법당 15평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016-640-8133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3억(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지리산 깊은 산중 사찰
- 기운이 장하고 전망이 웅혼하며 맥반석계곡에 접한 동남향 명당터. 무문관 수행이 가능한 4개의 방사와 법당 외에도 심야전기, 기름보일러, 황토방이 설치된 여러채의 건물에 총 15개의 방사와 1000여평이 넘는 부지. 만오천평의 임야, 아래마을까지 2.5키로, 일체의 소음없고 청정한 기도, 참선도량 ● 가액 : 5억원

010-6398-5730/011-9136-1314

암자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동 진주 I·C 30분거리)
- 면적: 임야 약 5000평중에 등기 900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물 좋은 20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5)674-783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법당목조 : 12평 요사 벽돌 : 25평
- 가액 : 8500만원

016-652-754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지하철에서 5분거리
- 평수 : 250평
- 법당 : 40평, 요사채 40평
- 가액 : 8억원 (절충가능)

011-584-1291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백천동
- 평수 : 12,08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가격 절충 가능)

※ 기도터로 적합하고 사찰 수련원으로 적합

011-777-0435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반야월
- 평수 : 150평
- 법당1, 주방, 방6, 화장실, 창고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년 7백만원 시설비 무
- 특징 : 밭 300평 사용

053)961-022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2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40평
- 삼존불 및 모든 각단 갖추어져 있음 집기일체포함 법회 즉시 가능함
- 보증금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3천만원(절충가능)

010-4846-5194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 대지 : 2300평
- 건물 : 황토 전원주택 35평(신축)
- 특징 : 사찰 및 전원주택지. 농장 등으로 최적지임 (토지정리)
- 가액 : 6억 9천만원 평당 30만원

011-9853-384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땅 : 1000평(등기상) 과외로 30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2동 종교부지, 시설완벽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3억(절충가능)

017-403-662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합천댐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소재 산사
- 부지 : 10,000평
- 대웅전 : 100평
- 산신각 5평, 요사 20평
- 산세수려, 선방최적
- 전세 : 3천만원

054)373-9163
016-569-9663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서당골 계곡접
- 대지 60평, 삼존불, 방4, 단청필
- 보증금 : 6천만원. 월25만원 가액 : 1억 5천만원

- 위치 : 경남 밀양시 종남산
- 대지 304평, 법당 24평
- 요사 27평, 창간 11개월, 단청필
- 보증금 6천만원. 월 40만원 가액 : 1억 8천만원

053)768-5788
011-9357-5677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지하철 요지
- 대지 : 65평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4억

※역사깊은도심포교당건물임

010-8678-1322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 600평(대지 402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7층석탑, 삼성각 10평 요사 66평
- 경치 전망 좋고 산세 수려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143-0098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중구 단구동
- 대지 : 51평 건물 3층, 요사채 30평
- 2층 법당 20평 3층 삼성각 10평 108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52)293-7025
019-292-7025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03평, 전 : 33평, 법당 : 20평
- 법당내 108소불,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지장, 탱화 등 영가단 설치 최고시설(즉시법회가능)
- 요사채 : 1동, 40평 - 방 3개, 주방, 화장실내 2개, 옥외화장실 3개, 창고1개, 대형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11-817-4027

절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 2200평. 평당 : 5만원
- 포장도로 접, 건축가능

절 임 대 안 내
- 위치 : 파주시 파평면
- 건평 60평. 전세 4000만원

011-292-307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덕포 초등학교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지장전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집기 일체 포함, 법회 즉시 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51)303-7477
011-9338-747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덕: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5천(답사후절충가능) (융자 6500만원포함)

011-9378-5637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건물 내 2층내) 법당1, 방2개, 후원1개 대중방, 욕실
- 주차 : 도로상 일렬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모든시설완비, 삼존불, 탱화, 영단, 복사기, 팩스 etc 집기류 일체)
- 포교와 법회 등, 바로 운영 가능한 최적의 장소임

017)269-2629
032)517-3001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 상가주택 대지 8m×6m 코너 절
- 평수 : 113평, 건평 120평, 1층 상가 4개,
- 2층 사찰 대웅전 25평, 스님 방겸 큰방 3개, 후불순금탱화, 조성입체 120평, 신중순금탱화 50평, 칠성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순금 4자 반, 삼신불 법단 3단, 홍송조각 연꽃 16자, 자신있게 갖춘 도량
- 가액 : 4억 8천중 잔금 2억 7천만원이며 등기완료
- 좋은조건 : 매월 상가, 임대료 1백 50만원 나옴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포교요충지

※가능성 없는 전화 사절

주인직거래 011-650-8481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연수원,수련원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3층건물
- 건물 바로앞에 천해의 절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바다와 19번 국도가 있고 5분거리에 보리암과 용문사, 사찰이 있음
- 대지 700평, 3층건물 230평
- 주차 40대이상
- 가액 : 6억7천만원 (은행융자 3억7천만원)

055)863-1295~6
011-860-0230

도심에 아파트(경기도동두천소재)를 지방의 농가주택과 교환매매 원함
- 뒤에 야산을 끼고 있는 시골집 구함
- 동남향의 연립주택도 가능함 중부내륙지방 환영
- 가액 : 3500만원 (융자 850만원포함)

031)865-5035
011-415-53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상가주택 역세권
- 평수 : 약20평, 큰방2, 주방1
- 삼존불, 108 지장 소불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합 1천 8백만원 포교원 확장이사로 싸게 매매함
- 철학관 하실분 환영. 약간의 보시금으로 평생 절에서 함께 사실분 불사 운영할분 포교원 확장이사 불사중

016-261-2068

선암사 석가모니 괘불탱화 등 보물 지정

되돌아 온 수월관음도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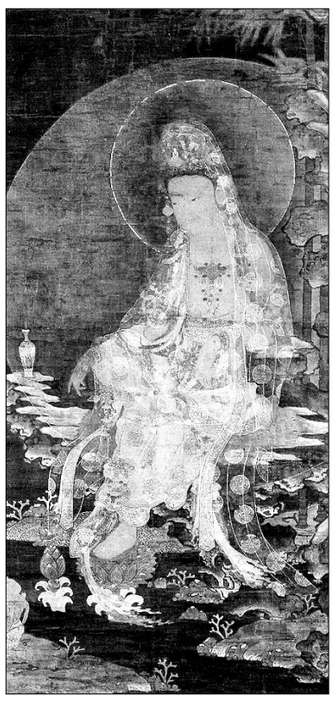
문화재청 발표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1월 25일 '선암사석가모니불괘불탱 및 부속유물 일괄'을 보물 제1419호에 지정하고 '수월관음도'와 '경주괘릉석상 및 석주 일괄'을 보물지정 예고했다.

선암사석가모니불괘불탱은 본존불만 등장시킨 독존도(獨尊圖) 형식의 괘불화로 중앙에 홍련좌(紅蓮座)를 딛고 서 있는 입불상이 화면에 가득 차도록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조성연대가 명확하여 화원인 '쾌윤(快允)' 작품의 초기 경향과 함께 조선시대 18세기 중엽 경 불화 화단의 흐름을 살피는데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알맞은 신체 비례에 유려하고 정밀한 필치로 세련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수월관음도는 해외 반출 문화재를 태평양박물관이 구입해 환수한 것이다. 변색과 덧그린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화면 구성이 충실하며 고려불화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데다 국내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희소성과 이미 보물로 지정된 두 점의 수월관음도에 손색이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 수월관음도는 지정예고기간에 태평양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031)285-7215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수월관음도(14세기, 태평양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의 주처(住處)인 보타락가산에 선재동자(善財童子)가 찾아가 보살도(菩薩道)와 보살행을 구하는 <화엄경>의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귀' 달린 백제금동광배 출토

부여 관북리서

국내에서 출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양식의 백제시대 금동광배가 발굴돼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11월 23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백제유적'에 대한 10차 발굴조사 결과 6개의 귀(고달이)가 달린 금동광배 등의 유적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광배는 사각형 돌출부가 양쪽으로 3개씩 모두 6개가 마련된 형태로, 북위(北魏) 보태(普泰) 2년(532년)이라는 제작연대가 있는 금동보살일광삼존입상과 유사한 형태로 백제와 북위의 교류관계를 추정케 해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광배의 길이는 11.8cm 지만 완제품은 12.8cm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너비 10.3cm, 두께 0.25cm.

광배는 부처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불상 뒷면에 형상화한 빛의 문양을 일컫는데, 귀가 달린 광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첫 출토된 6개의 귀가 달린 금동광배.

이 밖에 '관북리 백제유적'에서는 백제시대 왕궁이나 관아에서 물품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목곽창고 4기와 석곽창고 1기 등의 대규모 저장시설도 확인됐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기사 넘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은 쉽니다.

"한국 간화선은 돈오점수 수행체계"

보조사상硏 '간화선 수용과…' 학술대회… '돈점 논쟁' 재점화 관심



인경 스님



윤원철 교수



김영욱 박사



김방룡 박사

또다시 돈점 논쟁이 불붙을 것인가. '간화선 수용과 한국 간화선의 정체성'을 주제로 11월 27일 법련사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제16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임제종의 간화선의 수행체계는 돈오점수다"(인경 스님) "보우 · 나옹 · 백운 스님 간화선의 근원은 지눌 · 혜심 스님이다"(김방룡 박사) 등의 주장으로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 반박하며 돈점문제를 이슈화함에 따라 돈오돈수론 진영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간화선에 대한 반성과 재조명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국 간화선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주요 논문 및 그에 대한 논평 요약.

"이치는 단박 깨닫고 일은 점차 이뤄져"

● 인경 스님 '간화선과 돈점문제'

한국 간화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대혜종고 · 몽산덕이 스님의 간화선은 돈오돈수의 수행론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 두 스님은 간화선을 돈오돈수가 아닌 돈오점수의 수행체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혜 스님은 <서장>에서 "이치는 단박에 깨닫지만 일은 점차로 이뤄진다"고 했고, 이참정과 교환한 서신에서는 "깨달았다고 오만하지 말고 숙세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겨 번뇌가 발생하는 인연과 업을 바꾸는 공부를 계속 수행할 것"을 부촉하고 있다. 몽산 스님 또한 <몽산화상보설>에서 "이치는 단박에 돈오하지만 일은 점차 닦는다(漸修)"며 "오랜 번뇌의 습기를 제거해 과거의 행리처(行履處)를 바꿀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간화선에서의 돈오는 증오(證悟)다. 번뇌가 단박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경각이 아니며, 지해(知解)의 병통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해오(解悟)도 아닌 것이다.

간화선이 성립된 이후 송 · 원대 어록에는 돈수란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경전 교판시 사용된 술어로서, 종파불교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보우 · 나옹 · 백운은 지눌 스님 영향 받아

● 김방룡 박사 '여말 삼사(三師)의…'

태고법통설은 태고보우 스님이 중국의 임제종 스님이었던 석옥청공 스님의 법을 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석옥청공 스님이 태고보우 스님을 인가한 것은 사실이라 해도 석옥청공 스님과 태고보우 스님간의 사상적 연계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보우 스님이 석옥 스님을 찾은 것은 국내에서 무자 화두를 타파한 뒤의 일로, 깨달음의 경지를 확인하고 임제종 본분사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지 화두를 받아 참구하거나 수행법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둘의 선문답을 통해 입증된다. 나옹혜근 스님과 평산처림의 관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보우 · 나옹 스님에 대한 지눌 · 혜심 스님의 영향은 분명하다. 보우 스님이 알음알이의 병통을 극복하기 위해 무자 화두를 든 점이 지눌 스님과 닮아 있고, 백운 스님의 선교일치 사상 또한 보조 스님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보우 · 나옹 · 백운 스님은 보조 · 혜심 스님을 거쳐 완성된 고려 간화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철 스님 사상은 학술이론 아닌 설법

● 윤원철 교수 논평

성철 스님이 임제종 간화선의 종장으로 인정하는 대혜 스님의 수행론이 돈오돈수임을 논증함으로써 돈오돈수를 임제종의 정통 수행법이라 주장했던 바와 같이 발표자는 대혜 스님의 수행론이 돈오점수설임을 논증함으로써 임제종은 돈오점수의 수행체계임을 보여주는 전략을 취했다. 성철 스님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방법이라 할 만하다.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은 학술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대적인 학문 방법과는 거리가 있어 개념의 정의나 그것들을 연결한 명제에는 자의적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내면 성철 스님의 이론체계를 어렵지 않게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사상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학술이론이 아닌 한 선사의 설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三師의 화엄과 선사상 일치 수긍 안돼

● 김영욱 박사 논평

무자 화두는 대혜종고 스님 이래 대표적인 화두 공부 중 하나였으므로 지눌 · 혜심 스님의 영향으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화엄과 선사상의 일치가 삼사에 나타난다는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지눌 스님이 교선일치의 분위기를 갖고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혜심 스님의 화엄 도리 인용은 선의 정취를 드러낼 목적으로 사용되며 보우 · 나옹 스님 경우 또한 그렇다는 점에서 '일치'라 말할 수 없다.

돈오와 점수를 범주로 간화선사의 사유체계를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참구 방법과 화두의 본질적 속성상 돈오일 수밖에 없다. 간화선에서 디디고 올라갈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화두를 공부하는 이의 분별을 자극하여 망상을 걷어내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5차 정기발표회

한국불교연구원, 4일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삼국 · 신라시대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제 5차 정기발표회를 갖는다. 김병곤 신구대 강사의 '나당연맹의 성립과 신라 구법승의 역할', 문무왕 위덕대 강사의 '초기 신라승들의 구법루트'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02)762-5624

"파사석탑 · 삼랑성 · 참성단을 국보로"

국사찾기협의회 ·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청원

사적 제136호 마니산참성단, 사적 제130호 정족산삼랑성, 경남지방문화재자료 제227호 허왕후릉파사석탑을 국보로 승격지정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사찾기협의회(회장 고준환)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대표 이성민)는 11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을 2천950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국보승격지정이유서와 함께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고준환 국사찾기협의회장은 "역사의 뿌리를 찾아야 국가가 바로 선다"며 "이들 유물은 단군조선과 가야의 실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국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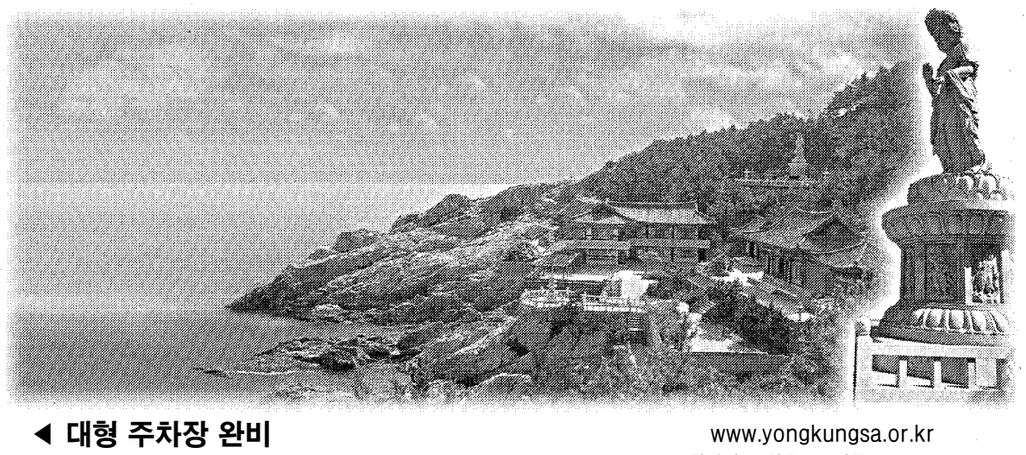


허왕후릉 파사석탑.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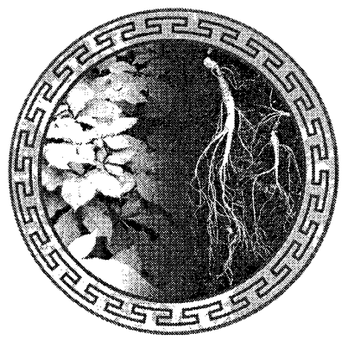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공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현풍F&B HYUN PUNG F.&B CO., LTD.

일주문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개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12월 1~3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관련 단체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연수를 실시한다.



광동중 · 고 체육관 개관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11월 26일 광동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 '운악관'을 개관했다.



동국대 대각전 제8차 봉불식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은 11월 23일 교내 대각전에서 일산불교병원의 성공적 회향을 바라는 제8차 대각전 봉불식을 봉행했다.



금강선원 불사기도 100일 회향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불사 1000일 기도중 100일 기도 회향을 기념하는 산림법회를 12월 11일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개최한다.(02)455-8484



대륜불교문화硏 이사장에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무공 스님(서울 무량사 주지)이 최근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호국영령 추모 천도법회

성남 성보사 주지 휴암 스님은 육군 제6796부대 용호사에서 '호국영령 추모 천도법회'를 12월5일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031)753-3360



정토사 특별관음기도 입재

평창동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은 12월 5일 오전 11시 염불만일회 정토사 중창을 위한 365일 특별관음기도 입재를 봉행한다. (02)396-3405



종단협 사무국장에 임명

조계종 사회국장 환적 스님이 11월 25일자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 조계종 총무원장)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동국대서 특강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12월 1일 오후 6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한국정치화 대학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02)2260-3681



문광부 종무행정과장 임명

문화관광부 종무실 산하 종교행정과로 개편된 종교행정과장에 前종무1과장 강배형 씨가 11월 18일자로 임명됐다.

"전국 심인당 신교도 조직 활성화 우선"

진각종 총금강회 제7대 회장 이상귀 씨



"진각종과 총금강회 발전을 위한 신교도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로 수행과 봉사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11월 20일 열린 진각종 총금강회(총신도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귀(대구 희락심인당 · 사진) 씨는 진각종과 함께 발전하는 총금강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금강회가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능동적인 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진각종단을 대표하는 신도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별 심인당의 신교도 조직 활성화를 통한 질적 발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전국의 신교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불자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 수행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금강회 조직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2년의 임기동안 종단과 신교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단과 유기적 관계 유지
생활수행과 봉사에 역점

또 이 회장은 "총금강회와 종단이 마음을 열고 종단발전에 대해 논의한다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서먹한 마음은 가라앉을 것"이라며 "신교도 단체로서 종단을 발전시키고 금강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총금강회에서 종단발전을 위해 논의되고 제안된 사안들을 적극 반영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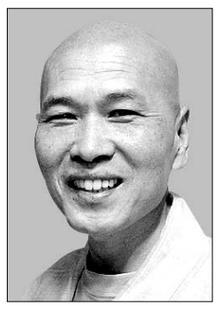
1941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상귀 회장은 대경케이블방송 이사, 진각종 총금강회 대구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엔지니어링 감리사를 맡고 있다.

한편 진각종 총금강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에 김경덕) 각자와 이정희(불지원) 씨를 선임했으며, 명칭을 진각종 전국신도회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을 결의, 총재인 진각종 통리원장의 재가를 받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새 불교운동 모델 제시할 터"

(사)실천불교 초대 이사장 지선 스님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한국사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그에 맞게 새로운 불교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1992년 종단개혁과 사회민주화를 목표로 출범했던 실천승가회가 11월 22일 사단법인 '실천불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지선 스님(사진)은 '실천불교'의 발족 이유를 "제도권에서 활동하면서 보다 책임있는 행동의 필요성을 느꼈다. 과거의 운동방법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선 스님은 앞으로 실천불교가 활동할 방향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대사회적 활동과 종단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가 바로 그것.

"대사회적 활동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종단에 대해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종책을 제시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정토사회를 일구는 것은 물론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스님은 이를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이웃 불교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실천불교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실천승가회가 스님들의 모임이었다면 실천불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며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세계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폭넓은 참여마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일맥문화상 | 명성 스님 · 황우석 교수 김종규 회장 · 김정자 교수



명성 스님



황우석 교수



김종규 회장

일맥문화재단(이사장 황수로)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사회봉사상), 서울대 황우석 석좌교수(과학기술상), 한국박물관협회 김종규 회장(문화예술상), 김정자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학술상) 등을 제7회 일맥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 11월 22일 경남 양산 동부산컨트리클럽 시상식을 개최했다.

명성 스님은 운문사강원과 승가대학원을 설립해 후진양성과 불교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지역 복지시설 봉사활동에 노력한 점이 이번 수상의 계기가 됐다.

명성 스님은 상금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기금으로, 나머지 1000만원은 법계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복제된 인간줄기세포 복제와 신경세포 분화를 성공시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속에 빛낸 인물로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황교수는 또 11월 25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4회 '자랑스런한국인 대상'에도 선정됐다.

일맥문화대상은 태창기업을 창업한 일맥 황래성 선생 뜻을 기려 1998년에 제정된 상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참여불교 재가연대 올해의 불자상

중신회 부회장 손안식 씨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올해의 재가불자상'에 조계종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사진)을 선정하고 11월 27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재가연대는 "손 부회장은 조계종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의 통합을 실현하는 데 헌신적인 역할을 했으며, 불교계 폭력문화와 바람직하지 않는 불사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재가불자의 주체적인 활동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손안식 부회장은 1982년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2004년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등을 맡아 신행활동을 해왔다.

조용수 기자

보리방송문화상 | 총무원장상에 윤청광 씨 TV부문 최우수상 K-TV '청화…'

제12회 보리방송문화상 총무원장상에 윤청광 씨(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 사진)가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신설된 총무원장상은 방송을 통해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

일반 TV 부문 최우수상에는 KBS1 TV 부처님 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청화, 56년간의 증거-그대 고향에 이르렀는가', 우수상에는 MBC TV 부처님 오신날 특집다큐멘터리 '대자유인-한국의 비구니'와 KBS1 TV '현장르포 제3지대-6인의 女행자, 부처를 만나다'가 선정됐다. 불교방송 부문 공로상은 이명학 아나운서, 포교제작상은 김상준 프로듀서(깨달음을 이어가는 사람들), 보도교양상은 조문배 프로듀서(나누며 사는 사람들 하나되는 세상), 지역방송상은 춘천불교방송 김충현 프로듀서(아라리로 일군 무릉도원, 정선)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TV 부문 공로상에는 김영보 카메라팀 차장이 선정됐다.(02)745-5811 **여수령 기자**



불교인권상 정수일 · 故 허원근 씨





제 10회 불교인권상에 정수일 前단국대 교수(사진 왼쪽)와 군 의문사 문제를 세상을 알리는데 기여한 故 허원근 이병이 선정됐다.

단국대 교수로 재직중 간첩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정 교수는 2000년 출옥한 이후 6권의 저서와 3권의 역주서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해 왔다. 故 허원근 이병은 1983년 8월 입대해 그해 11월 13일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지원 · 한상범)는 "분단과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정 교수가 학문 발전과 저술에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미해결인 군의문사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고 앞으로는 군의문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라는 뜻에서 故 허 씨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한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 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옥천지국	옥천 / 영동 / 보은	혜철스님	043)732-5560 / 018-453-8453

※ 9월 1일부로 옥천지국이 신규개설 되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최 종 석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정답' 만 채점하는 세상

한 학생이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 25개 중에서 20개는 확실히 알았기에 맞는 답을 골랐다. 그러나 나머지 5문제는 모르는 것이기에 솔직하게 모른다는 것을 표시했다. 즉 4개의 답(?) 중에서 아무 것도 고르지 않고 시험지를 제출한 것이다. 집에 돌아온 학생에게 그의 부모는 시험을 잘 보았냐고 물었다. 그 학생은 25문제 중에서 20문제는 아는 것이기에 답을 골라 표시했고 5문제는 모르는 것이기에 답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그 학생의 부모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야 이놈아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누구한테서 배웠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모르는 것은 표시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든? 넷 중에 맞는 답이 하나 있다는 것을 너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냐. 그렇다면 넷 중에서 대충 비슷한 것을 찾아서 표시를 해야지, 어째 그냥 놓아두고 왔냐.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너같이 융통성 없는 얘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태산이다. 앞으론 모르는 문제라도 제발 찍어라 알겠니?" 하면서 아이를 나무랐다.

그 학생은 부모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분명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바른생활 시간이나 윤리시간에 늘 선생님으로부터 귀가 뚫어지게 들은 것은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말이 아니었던가.

그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 자신이 한 일을 설명했다. 담임선생님은 그 학생의 설명이 다 끝나자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겠는데, 네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너도 잘 알잖니.

네가 비록 어떤 문제를 몰라서 정답을 표시할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넷 중에 하나는 정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네가 아무렇게나 골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은 25퍼센트라는 대단히 높은 확률이야.

그런데 그걸 표시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란다. 쳘수야, 미안하다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나만 더 말해 줄께. 너희들이 답을 답안지에 표시한 것을 채점할 때 말이다. 구멍을 뚫어 정답표를 만들어 맞는 답을 세어 점수를 먹이지 않니. 너도 보아서 알지? 그러면 선생인 나는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전혀 알 수가 없어.

나는 그저 까맣게 칠해진 것만 세어서 점수를 계산하는 거야. 마치 퀴즈놀이를 하고 있는 기분이야. 학생 하나하나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으며, 무엇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전무한 거야. 나도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위 이야기는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직을 강조하면서도 실은 요행과 부정직함을 가르치고 있는 모순에 대한 반증이다. 즉 수학능력시험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그 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벌을 주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사지선다형 문제 속에는 요행과 부정직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을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키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대입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일어난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사건은 오로지 '승자의 정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커닝과 같은 불법과 반칙을 조장하고 묵인해온 세태의 모습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목적만 달성되면 그것이 곧 정의로 간주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한없이 절망할 뿐이다. 과연 우리는 수험생들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정치에 불법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여야 불자 국회의원 39명이 11월 24일 정각회를 출범시켰다. 유례없는 불화의 시대에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981년 11대 국회에서 창립된 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던 국회 정각회가 1998년 여야의 불화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6년만의 새 출발이 새삼스럽다.

오늘의 극심한 사회적 분열의 중심에는 국회가 있다. 정치인들은 입으로 상생을 말하면서 한번도 상생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정각회의 출범이 이 같은 상황의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사회적 분열, 불화와 독선을 치유하는 데는 불법이 특효약이다.

불교 교단인 승가 그 자체가 '화합하는 무리'라는 뜻으로 부처님은 교단유지의 첫째 조건으로 이 화합을 강조하셨다. 어디 그것이 승단뿐일까. 사부대중은 물론 사회, 나아가 국가,

화합으로 正覺의 수레를…

세계가 모두 '화합하는 무리'가 돼야 이 땅에 참다운 불국토를 세울 수 있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더 나아가 "사상의 입파(立破)나 같음과 다름, 있음과 없음 등등이 모두 평등하여 중도의 원리 안에 하나로 아우르게 한다"는 원효스님의 화쟁(和諍)사상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깊이 숙지해야할 큰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좋은 정치란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일이다. 지금 한국인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하다. 정치인들이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가르침 인 팔정도를 알고 실천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리 없다.

정각회 회원들이 솔선하여 이를 실천하고 그 실천의 폭을 넓혀가 주기를 바란다. "당파적 이해를 떠나 의정활동을 펴고 교계현안과 불자들의 여망을 정치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불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바른 법을 구현하여 상생의 정치를 펴겠다"는 정각회 회원들의 다짐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인식에 바탕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아울러 불교계 많은 현안들의 해결을 도와 한국불교가 세계적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데도 정각회가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김징자(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상생과 웅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일부러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마땅히 자비심과 효순심을 일으켜 변치 않아서 방편으로 생명 있는 것들을 구호해야 한다. 〈범망경〉

얼마 전, 살아있는 반달곰의 가슴을 잘라 호수로 쓸개즙을 채취 ·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배에 고무호수를 대롱대롱 매단 채 2평 남짓 한 우리에 갇혀 울부짖는 곰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잔혹한 수법도 수법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이토록 함부로 대할 수 있다니…, 그 이기심과 잔인함에 분노하다가도 끝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사건이 비단 몇몇 사람이 자행하는 악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이기주의와 생명경시 풍조의 파생물이었기 때문이다.

곰에게 호수를 꽂아 쓸개즙을 채취하는 사람에게 욕을 퍼부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곰을 도살해 쓸개즙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나라. 세계 60국 중 유일하게 상어 지느러미를 떼어낼 목적으로 상어를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나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을 앗는 일을 서슴치 않고, 환경보호라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보다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상어 지느러미를 선택하는 우리에게 '상생(相生)'은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힘의 논리로 남을 해하고 남은 이들끼리 잘 사는 게 상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이제 막 움을 튼 작은 새싹이 됐든 그 속에서 생명이 태동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세상이 이뤄진다.

'인간의 평등은 모든 만물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유독 생각나는 요즘이다.

■김은경(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포교사단 대만 연수를 다녀와서

조계종 포교사단이 주관해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열린 '포교사단 대만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대만연수 목적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대만불교의 다양한 포교전략을 배워서 우리 실정에 맞는 포교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의도에서 진행됐으며, 불광산사를 비롯해 금광명사 복산사 자항사 정사정사의 자제공덕회를 방문했다.

불광산사는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써 불법을 전파하고, 자선으로 사회복지를 이루고, 수행으로 인심을 정화 한다는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었다. 어린이 포교에서 죽음에 이르는 노인까지 의지처가 되고 있는 불광산사는 불자들에게 현생에 만날 수 있는 불국토였다.

스님과 신도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밝고 환한 미소를 통하여 처음 방문하는 우리들도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경내에 이루어져 있는 커다란 불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과연 그들이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끊임없는 홍보물의 발간과 출판사업이었다. 종파 구별 없이 통불교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불교를 쉽고 친근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불교는 중생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자는 것이 아닌가? 이곳 불광산사는 이론불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불교였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능력에 맞게 사람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사찰의 자금운영은 지속적인 출판사업과 불교용품 제작판매, 신도회의 후원금으로 보충했다.

신도회 조직은 지역별로 구성하고 임원을 많이 선정하여 다단계형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점이 다른것인지 궁금했다.

재가자들이 스님을 존경하는 모습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다. 겉으로 보여지는 위엄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아니라 중생의 삶 속에 뛰어들어 동고동락하는 모습에서 신도들은 더욱 스님을 존경하고 가르침에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대만방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불교는 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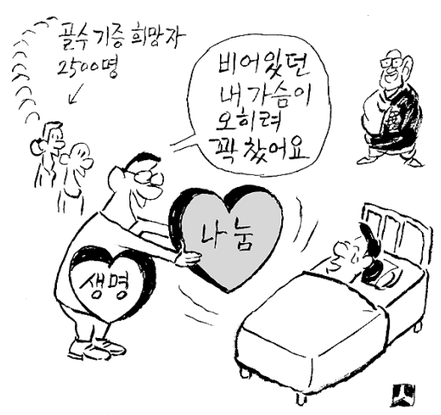
우리 불자들은 모두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스님들은 각자 능력에 맞는 전문수행인이 되어야겠으며, 청정한 계율을 잘 지키고, 언행이 일치하는 스님이 됐으면 한다. 개인 재산이 많은 스님들은 불교발전을 위하여 회향하길 바라며, 각 사찰의 재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한다. 또한 재가자들도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고, 분별심을 버리고 사찰의 스님을 믿고 의지하여 함께 불국토 건설에 동참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인재양성 · 투명한 재정공개 배울만

조계종단에서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부대중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의 한국불교는 밝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소리없이 실천하고 있는 보살행자들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남숙(조계종포교사 · 신수회장)

'현대' 민평 심 민 섭



제2회 침구교육사 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 교육목적 및 과정 ◆

평소 침구학에 관심이 많은 의료계종사자 및 재야 침구인들은 그동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간 제도운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교육원을 개설할 수 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평생교육침술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유능한 교육생을 배출함은 물론 침구교육사 양성제도를 확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침구교육사 과정

모집분야	모집인원	지 원 자 격	수업시간
6개월과정 (2학기)	50명	자격기본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침구분야 종사자 2. 해당분야 국내외 사회교육원 및 교육학원에서 2년이상 교육이수자 3. 기타 위사항에 준하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야 침구인	매주 1회 토요반 오전 9시~ 오후 6시
1년과정 (4학기)	50명	상기와 같이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일반인 및 건강분야에 자격이 있는자 2. 기타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일반성인 3. 대체의학분야 종사자	

2. 교육과정
• 한(중)의학기초이론, 해부생리학 • 침술내과학, 외과학, 위생법, 경혈학, 한방진단학, 침구처방학
• 대체의학관련과목 다수 • 사상의학(체질의학),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

3. 접수문의 • 02)393-5111(代) 서울 서대문 본교육원 교무처

4. 신청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진(3×4) 5매 • 이력서 • 각종자격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특 전 : 교육이수후 자격검정 합격자는 평생교육침술원을 개원할 수 있음
• 국내최초로 평생교육침술원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재야 침술에 전문인은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을 졸업후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한의학)과에 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졸업한후 외국대학(대체의학 및 한의학)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이수한후 개원설립시는 특별혜택 부여

■오시는 교통편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1번출구 나와 1미터 조흥빌딩 5층 ※버스 - 137번, 서대문 로터리 하차 충정로우체국 옆

문교부허가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침구교육원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조흥은행 5층
TEL. 02)393-5111(代) FAX . 02)312-5404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즉신성불·생활불교의 전당 '문 활짝'

총지종 종조 '원정기념관' 개관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서



'원정기념관'은 밀교중흥의 창종 대원을 담은 역사적 장소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총지사에 조성돼 12월2일 문을 여는 '원정기념관' 내부 모습.

올해로 창종 33주년을 맞은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이 12월 2일 오후 2시 종조 '원정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새로운 밀교 중흥종단으로 거듭난다.

종단역점사업으로 서울 역삼동 총지사내에 종조전을 건립해 온 총지종은 2년여간의 종조전 건립불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원정기념관' 불사를 위해 총지종은 밀교의 비법(秘法)과 경궤(經軌), 다라니와 수법(修法) 등을 발굴해 왔다. 총지종 종조인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의 창종의 뜻을 기림으로써 밀교종단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밀교의 새로운 중흥을 도모하겠다는 홍원이 담겼다.

●총지종 창종과 정통밀교 수립

'원정기념관'은 창종조인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업적을 유물을 통해 총지종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또한 총지종의 원력과 각오도 그 속에 담겨있다.

원정 대성사는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는 동시에 본산인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36개소에 사원을 건립,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를 이뤘다.



원정 대성사가 참고로 삼았던 밀교경전.



원정 대성사가 남긴 글 시초(時抄).



생존 당시 사종수법에 사용하던 사색건.

특히 1980년 입적할 때까지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총지종과 진각종이라는 현대 한국밀교의 양대 종단의 산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현대밀교사에 큰 획을 그었다.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와 현대 한국밀교사의 궤적이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원정 대성사는 종단 운영에 있어서도 탁월한 수완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작업이 총지종의 재단법인화이다. 총지종을 재단법인으로 등록해 정재를 보호하면서, 승직자들에 대한 노후대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종단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점은 대성사의 큰 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원정 대성사의 밀엄국토 건설과 정통밀교 수립에 대한 대원(大願)은 총지종이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양계만다라를 완성하여 봉안한 불사로 이어져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 윤원대도(輪圓大道),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정법밀교를 다시 꽃피운 원정 대성사의 업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현대 한국밀교와 원정 대성사

1600여년전의 불교전래와 함께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민중을 구제하고 숱한 국난을 극복하며 흥왕했던 한국의 밀교. 그러나 조선조의 억불정책 속에서 밀교는 쇠퇴하고 통불교(通佛敎) 속에서 겨우 그 명맥만을 이어왔다.

이에 원정 대성사는 한국밀교의 중흥을 위해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했다. 해방 이후 정신적 공황과 민생고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정법(正法)으로서 밀교를 펼친 것.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밀교사를 돌아볼 때, 원정 대성사는 뛰어난 통찰력과 혜안으로 당시 어려웠던 사회에 정신적 치유와 자성참회를 주창했던 진각종 창종주 회당 조사를 만난 것은 신생 한국밀교의 홍복이었다. 원정 대성사의 해박한 불교지식과 뛰어난 밀교수법(密敎修法)의 수행력과 가르침은 총지종과 진각종 뿐만 아니라 한국밀교의 새로운 태동과 밀교중흥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불교국 고려를 끝으로 사라져 버린 밀교정법이 원정 대성사의 오지신력(五智神力)으로 하나 하나 그 모습을 드러내 현대밀교는 기나긴 잠을 깨고 태동하기 시작했다. 잊혀졌던 밀교의 비법(秘法)과 경궤(經軌), 다라니와 수법(修法) 등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불교계에 '밀교'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순간이었다.

●총지종 소의경전과 수행법

1972년 12월 24일, 원정 대성사는 서울 상봉동에 서울선교부(宣敎部)를 개설(開設)해 개종불사(開宗佛事) 겸 창종식을 거행했다. 이 때 종명을 '불교총지종'으로 정하고 정통밀교종단의 성립을 선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정통밀교가 진언(眞言)과 정확한 인계(印契),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四種修法)을 비롯해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갖추고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불교총지종이 정통밀교 종단임을 표방하기 위해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모시고 <대일경> <금강정경> <대승장엄보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교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에 의거해 육바라밀에 의한 대승보살도의 실천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교리의 기틀을 갖춰나갔다. 여기에 교화의 방편으로서 준제법을 주축으로 증익(增益)·식재(息災)·경애(敬愛)·항복(降伏)법 등의 사종수법을 채택했으며, 아사리들을 위해 여러 가지의 밀교비법과 관법(觀法)을 경전에서 마련했다.

●총지종 발전상

총지종은 정통밀교의 기치를 세운지 7년만에 30여 사원을 개설하고 종무행정기관인 통리원과 함께 교리적인 면을 뒷받침할 연구기관 법장원을 설립했다.

이와 함께 '처처불공 시시불공(處處佛供 時時佛供)'을 강조한 원정 대성사는 모든 불사와 법회를 간소화함으로써 밀교수법의 대중화에 진력,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심오한 밀교의 비법을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인 것이다.

원정 대성사의 밀엄국토 건설과 정통밀교의 수립에 대한 대원은 총지종이 한국최초로 양부만다라를 완성하여 봉안한 것에서도 나타났듯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

원정대성사의 입적과 원로 스승들의 잇따른 유고로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나던 교세가 잠시 주춤한 적도 있었으나 이제 총지종은 새로운 도약의 자세로 꾸준히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 원정 대성사(1907~1980)는

현대 한국밀교의 개척자



현대 한국밀교의 개척자이며 정통밀교종단인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사진)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했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 총지종의 창종과 함께 정우(禎佑)로 개명했다.

어려서부터 비범해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잊지 않았다고 한다. 유년시절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개화의 물결과 함께 현대 고등교육을 마친 후 잠시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했다. 이후 불교에 큰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했다.

한국전쟁 직후 진각종의 개조인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회당 조사의 입적 후인 1963년부터 진각종 총인의 자격으로 진각종을 이끌며 <응화성전> <총지법장> 등을 편찬하면서 진각종의 교리적, 행정적 기반을 확립했다.

이후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던 중 진각종의 수행체계에 <준제관음법>을 시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원정 대성사는 한국의 현대밀교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놓친 점을 안타깝게 여겨, 이른바 '준제파동'의 와중에서 진각종을 떠나 밀교의 비법으로 정진하시던 중 1972년 4월 7일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상확립에 착수했다.

그 해 8월 21일 법신 대일여래의 가지력과 원정 대성사의 통찰력으로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을 비롯한 밀교의 기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원정 대성사는 오랜 은거의 수렴을 거두고 정법홍포를 발원하여 1972년 12월 24일 드디어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총지종 종조 '원정 기념관' 개관불사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뜻을 기리는 원정기념관 개관불사를
사부대중을 모시고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총기 33년 (불기 2548년) 12월 2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불교 총지종 총지사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02)552-1080~3
www.chongji.or.kr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합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소외계층 위한 20년 봉사 **이점심** 씨

1993년 봄까지 '아줌마'로 불렸다.
아니, 호칭은 '저기요~'였다.
그렇게 눈치만 보던 9 · 11살 아이들이
아침밥을 차리고 있을 때 '엄마'라고 불렀다.
1년 만이었다. 기뻤다.
'이제야 진짜 내 자식으로 돌아왔구나!'
아이들을 왈칵 끌어안았다.

입양한 두 딸
떳떳한 사회인으로 길러
독거노인 · 장애인들 '손발' 자임
불우이웃에 장학금
20년 넘는 선행 인정
'청백봉사상' 수상
연금 해약해 불사금 내
"보이는 그대로 했을 뿐"





"죽었다면 땅에 묻어주고, 부르면 언제든 갈테니 걱정말고 기도 열심히 해"라며 이점심 씨가 천주교 신자인 황춘덕 씨(뇌성마비장애1급)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마음' 내면 행복 따라와요

최근 정부로부터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이점심 씨(51 · 선덕행). 11월 20일, 전남 장흥군보건소 관산지소에서 만난 이 씨는 입양한 두 딸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보따리부터 풀어놓았다.

"두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건 지난 92년이었어요. 그해 아이들의 친부모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지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대신해 장례를 치러줬죠. 그런데 식이 끝난 뒤에 아이들을 두고 돌아서는 마음이 내내 무거웠어요. 아이들이 눈에 밟혀 사흘 밤을 뒤척였죠. 고민 끝에 목포에서 일하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고요."

이 씨는 무작정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막막했다. 시댁 어른의 눈총과 친아들 둘과의 다툼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의 애들을 왜 키우느냐고 나무랐고, 아들들은 투정만 부렸다. 마을 사람들은 '주워온 아이들'하며 수군댔다. 그럴수록 딸들은 의기소침해져 말이 없어졌다. 여기에 야뇨증이 있는 9살 소영이(가명)는 밤마다 오줌을 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불빨래와 씨름을 했다.

"파김치가 돼 들어와 집안일을 챙길 때 모두가 귀찮았어요. 무엇보다도 큰 딸아이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와 남동생은 사랑하니까 손찌검하고, 우리는 미워하니까 혼내지도 않는다'는 글귀를 보고 암담했죠. '내가 딸들을 남으로만 생각해왔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그런 것은 아니었다. 눈치 보는 딸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려고 했을 뿐이었다. 이 씨는 이후 딸들에게도 매를 들었다. 잘못할 때면 종아리를 가차 없이 때렸고, 미워할 정도로 집안일도 매몰차게 시켰다.

그렇게 억척스레 두 딸을 키운 지 12년이 되던 어느 날. 이 씨는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받았다. 좀처럼 말이 없던 큰 딸 미영이(가명)가 서울에서 보낸 편지였다.

"첫 월급을 탔다고 미영이가 내복을 챙겨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함께 적어 보냈더라고요. 한때 엄마를 이유 없이 미워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16년을 한결 같이 뒷바라지 해 큰 딸 미영 씨(25)를 한의원 조무사로, 작은 딸 소영 씨(22)를 경북대 치대생으로 키워냈다. 자기 자식도 부모도 내버리는 이 시대에 왜 이 씨는 이 길을 꿋꿋이 걸어왔을까? 사실 남의 부모, 자식을 챙긴다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일이었을 텐데. 이 씨의 모진 결심은 82년 공직에 입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씨는 장흥군 보건소 업무를 맡게 되면서 군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아들 · 딸'이 됐다. 시간 날 때 마다 찾아가 말벗이 되고, 혈압 · 당뇨 체크와 영양제를 놔주었다. 또 네 아이들과 휴일이면 집안일을 해주는 것은 물론 틈틈이 장보기, 은행일도 대신 봐주며 이들의 '손발'을 자임해왔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 상을 당한 장애인 며느리가 어린 자식들과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데,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또 혼자 사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힘겨운 살림살이에 고개를 돌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이 씨는 강산이 두 번 바뀔 시간 동안 늘 독거노인과 장애인들과 함께 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꼬깃꼬깃 쌈짓돈을 집어주던 관산읍 김 할아버지, 알사탕을 까주던 장흥군 뇌성마비 장애인 오 할머니가 모두 자신의 아버지 · 어머니라고 했다. 때문에 이 씨는 지금껏 해온 모든 것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다.

"그래도 빠듯한 월급, 바쁜 직장생활에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이 씨는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대신 이 씨는 이 말을 던졌다.

"제 화두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예요. 30년 전, 불교로 개종해 불법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갖게 됐죠. 언제나 스스로에게 '사람답게 잘 살고 있어?' 라고 물어요. 그러면 무지한 나를 일깨워주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게 해주죠. 그렇게 자문자답 하다보면 길이 보여요. 엄마, 며느리, 직장인, 아내, 불제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저는 다만 보이는 그대로 했을 뿐이예요."

20살 때 불교에 입문해 28살부터 시작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방문, 38살에 두 여자 아이의 입양, 그리고 10년 전부터 벌여온 불교계 복지단체 후원금 지원과 불우이웃 장학금 전달, 최근에는 자신의 공무원공제연금을 해약해 수행원찰 장흥 묘덕사에 3천만 원을 선뜻 보시했던 것도 이런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런 이 씨에게 요즘 고민이 하나있다. 관산보건지소 인근에 사는 뇌성마비 장애인 황춘덕(52) 씨를 집으로 데려올지 말지 결심을 못하고 있다. 말도 거동도 못하는 황 씨가 늘 마음에 걸리지만, 정작 이점심 씨 자신도 지금 허리디스크로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

"춘덕 씨한테 그랬어요. 함께 살든 못 살든 곁에 있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죠. '죽었다면 땅에 묻어주고, 부르면 언제든지 갈테니 걱정 말라'고요. 그랬더니 춘덕 씨가 웃더군요."

마음을 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씨. 그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흥=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정토사 건립 불사 一千佛殿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 여래불께 귀의하여 크나큰 가르침 깨달으며 불자님들과 함께 법연을 맺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성불하여지이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세계가 이루어 진다.
卍 무량수경 卍

귀의 삼보하옵고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과 마음마다 불보살님의 가피속에 보리반야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 드립니다.오늘도 고통의 그늘 속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불연을 만나고도 무상한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며 탐, 진, 치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서원하는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는 이 땅에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 한마음의 자재한 법을 배우고자 모여 들었으나, 도량이 협소해진지라 충분한 수행공간과 부처님 도량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 바람은 모든 대중의 마음속에 한결 같았습니다. 이에 정토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만민의 기도도량과 교화의 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고자 법당 중창 불사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법당이란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삶을 가다듬는 곳이자 기도 정진에 임하며 자기의 신앙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불사 동참을 권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공덕을 짓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신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본래 불사란 인연 있는 이는 더욱 깊은 신심을 갖도록 하고 무연 중생에게는 인연을 맺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복락을 누리게 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불자님 한분 한분이 원력을 세워서 금번 불사에 동참한다면 이러한 인연의 공덕으로 무명의 업장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깨달아 성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이 중창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아울러 동참하여 주신 분들의 인연과 공덕이 후대에까지 길이길이 회향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하면서 다시 한번 불자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시길 축원올립니다.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 주지 응천



● 정토사 중창불사 365일 특별 관음기도
· 입재 : 2004. 12. 5. 오전 10시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정토삼부경 강의
● 일천불 부처님 조성불사
1인 1불 30만원(분납 가능), 설판제자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 법당불사 내역 : 대들보 (대 중 소), 주춧돌, 기둥, 문짝, 시멘트
● 불사동참 입금계좌
온라인 : 농협 204044-52-048294 (예금주 박창식) ※ 불사금은 분납 가능합니다

정토사 정기법회 안내
• 매월 초하루 · 신중기도 : (음) 1일 ~ 3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산신재일 : (음) 8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보름인등법회 : (음) 15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지장재일 : (음) 18일 오전 10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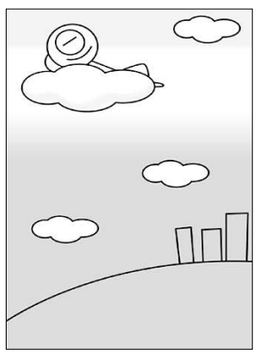
염불만일회 자성미타원 정 토 사 회주 박설산 주지 박응천 합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3-61번지
전화 : 02)396-3405, 379-5502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20>

원각경 수행법

<원각경>의 네 번째는 미륵보살장으로 윤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중생의 근기에는 몇 종류가 있으며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어떠한 방편이 있는지를 설합니다. 시초도 없는 예로부터 중생들이 생사를 거듭하는 이유는 애욕과 무명으로 인해 이장과 사장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부정성, 외도성이라는 오성의 다섯 가지 차별된 근기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오직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제도하고자 원력을



방편으로 삼아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이치를 밝힙니다.

여섯 번째는 청정혜보살장으로, 청정혜 보살은 앞의 미륵장에서 설한 오성의 차별됨이 수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지로 나타나는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설혹 번뇌를 끊어 청정한 도리를 성취했어도 그 경지에 머물면 범부의 차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청정하다는 경지마저도 물리쳐 자재는 얻었으나 아직도 깨달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여기면 보살차원이긴 하나 완전치 못한 보살이라고 설합니다. 여래의 경지는 현상계의 일체 차별된 모습이 그대로 원각의 나툼이나 오성뿐만이 아니라 일체세계를 비추어 보는 것이 허공의 꽃 같음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위덕자재보살장으로 근기의 종류와 수행의 경지에 근거해 원각을 깨달아 들어가는 수행방법은 몇 종류가 있는가 소개됩니다. 이것을 관행이라 하는데, 이곳에서 부처님은 깨달아 들어가는 방편은 무수하나 이들은 모두정관(靜觀), 환관(幻觀), 적관(寂觀)이라는 사마타와 삼마 발제와 선나 세 종류의 관행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경은 이들의 특징과 방법을 설하고는 있지만 막상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사마타를 거울의 그림자, 삼마발제를 나무의 싹이 자람, 선나를 그릇 안의 종소리에 비유해 설명하고 계시나 근기가 박약한 입장에서는 얼른 이해가 가질 않

일체가 허깨비임을 깨닫는 환관법

습니다. 이는 여덟 번째 변음 보살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홉 번째 정제업장보살장에서는 수행자가 없애야할 과제를, 이어 열 번째는 보각보살장에서는 스승을 어떻게 섬기고 따를 것인가를 밝힙니다. 또 열한 번째, 원각 보살장에서는 삼관 수행을 닦는데 있어 안거하는 법이 설해집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마지막 현선수 보살장에서는 서원을 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원각경>의 수행은 한마디로 일체를 환(幻), 즉 허깨비로 관찰하는 환관법입니다. 몸과 마음 나아가 일체 세계가 하나의 허깨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원각에 이르는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꿈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꿈을 깨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체의 경계를 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마저 환으로 관찰하라는 것이 원각경의 수행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유마선원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동안거 수행논강 입재법문

"돈오란 본래 완성된 원래 부처를 보는 것이다."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돈오입도요문론 강설>을 교재로한 수행논강 입재법문에서 자기 스스로가 부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돈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본래 불성 자리를 '보는 것(悟)'에는 마음을 '점차 닦는다(修)'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돈오'는 본래 부처인 나를 바로 보는 것

11월 23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수행정진,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를 주제로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 재가불자 동안거 수행논강 입재식. 법문에 나선 혜국 스님은 "'닦는다'는 것은 마치 눈먼 장님이 허공을 보기 위해 허공을 만들려고 하는 짓과 같다"며 "돈오는 허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님이 스스로 눈을 떠 허공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돈오가 곧 선(禪)"이라고 전제한 뒤, "재가불자들은 하루하루 닦아가며 자신을 부처로 만들지 말고 바로 자신이 부처임을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혜국

> "하루하루 닦아 부처될 생각말고 내가 부처임을 보자"

스님의 입재 법문을 요약한 것이다.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11월23일 서울 봉은사에서 주최한 불기 2548년 재가불자 동안거 수행논강 입제식에서 "단박에 내가 부처라는 것을 보라"고 강조했다.

● 돈오=선=정견

돈오라는 말은 세계종교사에서 불교, 그것도 선종에만 있다. '돈오=선'이라 할 수 있다. 깨침의 본질인 돈오는 닦음의 문제인 점수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돈오는 본래 완성된 내 모습을 보는 것이다. 닦는 것이 아니다. 원래 부처라는 것을 보면 그만이다.

불교에 사성제(고집멸도)의 교리가 있다. 이는 팔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다. 본론은 팔정도다. 그 가운데 핵심은 정견(正見)인데, 그것이 바로 돈오다. 모두가 부처다. 눈만 뜨면 모두를 부처님 도량처럼 볼 수 있다. 문제는 눈을 감고 보질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허공은 눈감고 있든 뜨고 있든 우리 안팎에 있다. 우리가 허공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고, 허공이 나를 버린 바도 없고, 내가 허공을 버린 바가 없이 그대로 여여하다.

다만 눈을 뜨지 않는 중생이 문제다. 탐심 욕심 어리석음 등 삼독심의 구름이 눈을 가려 장님을 만들어 보지 못할 뿐이다. 바로 봐야 한다. 눈만 뜨면 우리는 바로 부처다.

● '돈오'와 '점수', 어떻게 다른가?

'닦는다'는 말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다. 부처가 아닌 것을 자꾸 부처로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다. 돈오는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믿고, 부처가 아니라는 착각과 망상 번뇌를 벗어나게 한다. 즉, 없는 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닦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착각해서 못 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돈오다. 때문에 '보는 것'이기에, '닦는다'는 말은 붙을 수 없다. 그래서 돈오인 거다. 이는 분명한 법이다.

옛날 조사들이 이 같은 돈오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행자들을 주장자로 때리며 경책했다. 이는 닦는 데에서 비롯되는 착각을 깼다. '닦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다. 허공을 만들 수 없듯이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부처인데 눈만 뜨면 허공을 보듯이 번뇌 망상의 구름만 확 벗겨버리면 본래불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어떻게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나?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법문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된다. 착각을 일으키는 망상을 걷어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어째서 어째서' 하고 화두를 들어야 한다. 일심으로 의심해야 한다.

우선 몸 안에 번뇌 망상이 있다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번뇌 망상은 경계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 스스로 만든 생각에 망상이 있지, 만들지 않은 망상은 몸 안에 없다. 몸 안에 있는 생각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어떤 때인가. 우리는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 무슨 생각이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지고, 좋으면 웃는 것처럼 '한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

> "화두는 시공을 떠나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

음을 움직인다. 이는 일으킨 모든 생각들이 몸과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생각이란 업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화두다. 화두는 시공을 초월해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게 한다. 달리 말하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화두다. 이처럼 화두는 번뇌 망상 등의 착각을 깬다. 화두를 통해 번뇌 망상이 여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돈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본래 부처임을 보게 된다. 닦는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단박에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닦을 것이 없다. 결국 '돈오=평상심=무심=중도'라 말할 수 있다.

정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수행논강 일정 · 장소

3개월간 격주 화요일 서울 봉은사서

혜국 스님을 증명법사로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가한 이날 조계종 중앙신도회 동안거 수행논강은 시작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논강은 최근 대구 동화사 담선법회 등 불교계에서 일고 있는 재가불자 수행열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논강은 내년 2월 27일까지 3개월 간 성철 스님의 <돈오입도요문론 강설>을 교재로 설우 스님(법인정사 주지)이 진행하며, 2월 26~27일에는 종합수련회도 개최한다.

강의는 격주 화요일(12월 7 · 21일, 1월 4 · 8일, 2월 1 · 15 · 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다.

논강 좌장으로는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경남 코엑스 상무이사, 이계진 국회의원,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 박윤흔 한국불교대학원 이사장 등이 맡고있다. (02)733-7277. www.joongsin.or.kr

■ 현장에서 묻고 답하기

'번뇌망상 왜 일어났나' 의심하세요

▲단계를 밟아가며 번뇌 망상을 거둬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번뇌가 곧 화두이지요. 마음속에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마다 '어째서 번뇌 망상이 일어났는지' 의심하십시오. 또 다시 번뇌가 올라오면 왜 일어났는지 의심하면 자연스럽게 망상이 화두로 바뀌게 됩니다.

▲좌선을 하다보면 팔과 다리가 저려서 화두를 드는 것이 힘들어요.

-오히려 팔과 다리만 저린 것은 상근기입니다. 온몸이 다 저리지 않는 것이 다행이지요. 선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지요.

다만 누우면 자고 싶고, 걸으면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십상이니 앉아서 참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지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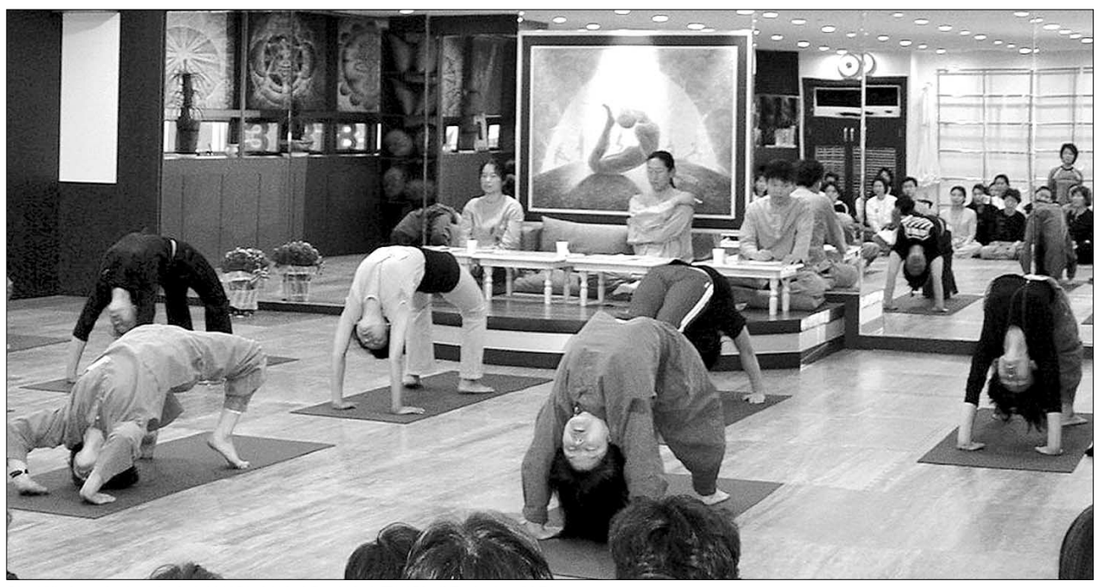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명상문화 제자리 찾기 "아직은…"

웰빙바람을 타고 각광받던 '명상문화'가 표류하고 있다.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는 여전히 '명상'에 힘을 싣는 추세지만, 명상문화의 내부를 뜯어보면 지도자와 수련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명상 수련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요가'의 경우 전국 곳곳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뿌리내리고 있지만, 부실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요가의 핵심인 호흡 및 명상에 관한 최소한의 교육 없이 체조만 지도하는 요가원이 대다수이고, 요가원 운영이 '유망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자격증없이 요가수련원을 개원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 단체의 요가 지도자 자격 심사현장.(사진은 기사의 특정한 내용과 관련 없음)

교육 프로그램 부실 · 지도자 자질문제 심각
상품 남발, 관리 · 감독 기관없어 규제 어려워

● 상당수 요가원 체조지도에만 그쳐

명상 센터도 마찬가지다. 국내 명상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모 센터의 경우만 해도 수준 이하의 강좌를 연이어 개설하여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마련한 8주 과정의 '웰빙 생활수련법' 강좌의 경우 '웰빙 하품하기' '웰빙 동물되기' '웰빙 잠자기' '웰빙 위로' 등의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15만원의 참가비를 요구해 '강의를 위한 강의'에 함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명상지도자의 자질문제와 관련이 깊다. 상당수 요가수련원의 경우 200만원을 내고 3개월간의 수련 시간만 때우면 요가지도자 자격증을 무리없이 발급해준다. 초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요가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존재했으나, 93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종목에서 '요가'가 누락되면서 국가 차원의 자격증 규제제도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협회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 일반 요가원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 등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다.

● "국가나 대학서 지도자 코스 고안해야"

명상지도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명상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다 같은 범주의 명상 안에서도 '정통'을 부르짖는 주장이 난립해 특별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명상지도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보니 인도에서 간단한 수련과정만을 이수하고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건 채 명상센터를 개원하는 것이 국내 명상계 현실이다. 특히 이들 명상지도자들의 프로그램을 판단 ·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의 제도권으로 여과없이 유입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실을 규제할 방책은 없는 것일까. 인터넷 사이트 명상나라 손민규 대표는 "국가나 대학 차원에서 명상지도자 정규코스를 고안해 객관화된 커리큘럼을 이수한 자에 한해 명상지도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명상학 · 요가치료학 전공 학생들에 한해 명상지도자 자격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

● 정부 "명상계 내부 자율질서 유도할 터"

그러나 국가 차원의 규제는 쉽지 않을 듯하다. 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 유병한 과장은 "공인 요가지도자 자격증 마련 등을 비롯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은 시대 흐름에서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회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의 망을 씌우지 않고 명상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명상문화를 관리 · 감독할 만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다.

서울시청 체육청소년과 이용규 과장은 "법령이나 통제부서 등의 제도가 사회현상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개설

12월6~15일 신입생 모집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성제환, www.wdu.ac.kr)가 국내 사이버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요가명상학과를 개설하고 제1회 신입생을 모집한다.

4년제 대학 학부과정으로는 처음으로 설립된 원광디지털대 요가명상학과 요가학개론,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따와 같은 요가 사상을 비롯해 요가 심리학, 요가 생리학, 일반 해부학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강의는 국내외 요가전문가들이 직접 지도하는 실습과 이론강의로 이뤄진다. 요가로 명성이 높은 인도델리대학의 짠드라 부산 싱(Chandra Bhushan Sing) 교수, 베나레스힌두대학의 까말라까르(Kamalakar Mishra) 교수, 세계 최초의 요가대학인 비하르 요가대학의 하리 샹까르 싱(Hari sharkar Sing) 교수 등을 비롯해 7명이 맡게 된다.

또 온라인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강의 후에 실습을 곁들일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요가원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광대학 부설 교육센터는 부천, 광명, 익산, 전주, 광주, 부산 등 6곳이 있으며 이밖에도 전국 20여 곳의 요가원이 실습장소를 지원하고 있다.

강의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진행되며 원서접수는 12월6일부터 가능하다. 특별전형기간인 12월6~15일에 접수하는 학생에게는 입학료 10만원이 면제된다.

원광디지털대학 요가명상학과 서종순 교수는 "생활 속에서 자기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02)897-2854 이은비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禪과 21세기

선의 세계 ⑥①

돈수(頓修)와 점수(漸修)-2

돈수(頓修)라 하면 말 그대로 하면 단박에 닦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단박에 닦는 방법이 특별히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본각(本覺), 즉 모든 중생이 본래 깨쳐 있고 본래 부처님이라는 이치를 강조하는 말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님이므로, 수행을 해서 깨침으로써 비로소 성불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이다. 깨달음, 성불은 닦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본각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오래전에 언급한 적이 있듯이, '본래'라는 말의 이중적인 뜻 중에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생이 곧 부처이다, 네가 그걸 알건 모르건 아무튼 너는 부처다, 더 이상 아무 얘기할 것 없다. 이처럼 '본래 그렇다'는 점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돈오돈수론이다.

한편으로, 본래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또는 본래 그런 줄을 모르고 있다는 쪽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비로소 실제 수행론이 나온다. 그런 실제 수행에 관한 이야기는 어차피 점수론(漸修論)일 수밖에 없다. 점진적으로 닦아 나가 언젠가 단박에 깨친다는 식으로 본다면 점수돈오(漸修頓悟)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점수돈오가 아니라 돈오점수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도 돈오돈수론과 마찬가지로 본각의 이치를 전제로 걸어놓았다는 뜻이다. 본각의 이치에 입각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돈오점수론이다.

그러니까 돈오돈수론이건 돈오점수론이건 선종에서 말하는 한은 다 본각을 전제로 한다. 돈오돈수론은 본각만 말하자는 것이고 돈오점수론은 본각을 전제로 하되 점수를 말하고자 한다. 양자의 대비는 전통적으로는 흔히 근기(根機)의 차이로 설명되었다. <육조단경>에 "무엇을 가지고 점(漸)이니 돈(頓)이니 하는가? 진리는 오직 한가지이나 그걸 보는 것이 더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 보는 게 더디면 점이라 하고 보는 게 빠르면 돈이라 한다. 진리에는 점차니 단박이니 하는 게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에 점이니 돈이니 하는 것이다."라 한 것이나, <육조단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진리에는 돈(頓)이니 점(漸)이니 하는 게 없다. 그러나 사람은 영리할 수도 있고 우둔할 수도 있어, 어리석으면 점차 알아가지만 깨친 이는 단박에 닦는다"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박에 닦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깨친 이는 단박에 닦는다."고 했듯이, 돈수(頓修)할 정도로 영리한 사람은 깨친 이뿐이다. 누차 언급했듯이 돈수라 하면 본각이라는 진상을 깨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범부 중에 영리한 이와 우둔한 이가 따로 있어 수행하는 방식이 단박과 점차로 다르다는 말로 보기는 어렵다. 본각 그 자체만으로 보면 돈수지만 범부의 현실에서는 점수를 논할 수밖에 없다.

모든 중생은 본래 깨쳐있는 부처
본각 전제로 어떻게 수행할까 논의

지눌 스님이 말했듯이, "제 마음이 바로 참 부처이며 제 성품이 바로 참 법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구하려 하면서도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고, 부처를 구하려 하면서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며,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다 하고 본성 밖에 법이 있다 생각하고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하는" 이들, 즉 "어리석음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본각, 돈오, 돈수를 들이민다. 한편으로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하거늘 뭣 하러 수고롭게 억지로 수행하냐?'고 하면서 무애자재행(無碍自在行)을 빙자하며 노닥거리는 이들은 점수의 처방을 가지고 질타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불자를 위한 보험①

49재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만약 돌아가신다고 가정해 보면,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입예시 1
● 계 약 자 : 현수 스님(45세, 비구)
● 피보험자 : 현수 스님(45세, 비구)
● 주보험료 : 1,000 만원(월보험료 : 44,500원. 10년납)
● 가입이유 : 다비 비용

가입예시 2
● 계 약 자 : 김미자 (59세, 보살)
● 피보험자 : 김미자 (59세, 보살)
● 주보험료 : 1,000 만원(월보험료 : 53,500원. 10년납)
● 사망시 수익자 : 관음사
● 가입이유 : 주지스님에게 시다림과 49재 부탁

가입예시 3
● 계 약 자 : 지장암
● 피보험자 : 혜광 스님(64세, 비구니)
● 주보험료 : 1,000만원(월보험료 : 112,300원. 5년납)
● 사망시 수익자 : 지장암
● 가입이유 : 은사스님 다비와 49재 준비
※ 현재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다비

문의 : 1544-0108 야단법석 흥국생명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음향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1. 날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고장난다.
2. 렉(RACK)에 보관 하며 한달에 1회 이상 청소한다. 음향 기기도 애정을 갖는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
3. 일정온도가 유지 되는곳에 설치한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관리자를 두며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한다. 날씨와 집객에 따라 셋팅하여야 한다.
5. 3년 정도 사용하면 소모품을 교체한다. (마이크, 스피커선, 마이크선, 연결짹 등)
6. 스피커 및 앰프 추가시 전문가와 상담한다. 저항 및 출력을 계산하지 않고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7. 사용 후 볼륨을 다 줄인 후 전원을 차단한다. 그냥 전원을 차단하면 스피커에 무리를 준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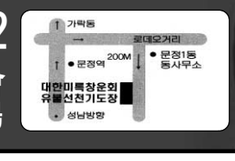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22) 사상(四相), 혹은 인간의 '우상'들에 대하여

어쩌나, 다들 눈에 두터운 콩깍지가 씌었으니

속담에 "제 눈에 안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별로 매력도 없는 사람을 멀쩡한(?) 사람이 죽자고 쫓아다니지요. 이런 사람을 두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불교적 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나름의 안목을 통해' 특정한 대상에게서 '아름다움'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선이라기보다,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이미지에 홀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도 같은 통찰이 있지요.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무주위체(無住爲體)

주관적 안목이 그 사람의 토대(住)입니다. <금강경>은 이 토대를 경계하라고 되풀이 되풀이 타이르고 있습니다.

혜능도 <금강경 구결>의 서문 첫머리에서 "무주위체(無住爲體)"라고 했습니다. 번역하자면, 즉 "네 토대를 허무는 것이 불도의 관건"이란 선언입니다.

자아의 토대(住)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필드에 열여덟 요소가 있습니다. 감각과 인식의 '기관', '대상', '내용'이 그것인데, 불교는 이들을 각각 육근(六根), 육진(六塵), 육식(六識), 그리고 이들을 뭉뚱그려 18계(界)라 부릅니다. 사물이나 사건의 자극에 의해 감각 기관은 이를 수용하고 또 거기 감정적 의지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패턴화 되면서 견해(見解)라 부르는 편견(?)이 형성됩니다. 성격 혹은 인격은 이 과정을 통한 강화의 결과인데, 이 자아는 다시 외계에 대한 자극을 선택하고, 거기 반응하는 양상을 결정합니다. 각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는 상(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상이 만든 마음속의 흔적과 찌꺼기를 업(業)이라고 합니다.

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성계와 무학의 사례를 들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돼지 눈, 부처님 눈이 상의 주관적 '동인'이라면, 그 눈에 보이는 돼지와 부처님은 그 상관물로서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임제(臨濟)는 이 둘을 인(人)과 경(境)의 연관 도식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한 적이 있고, <대승기신론> 또한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의 상호 의존과 동시 성립을 말하고 있다는 것만 우선 귀띔해 둡니다.

물고기 집, 지옥의 고름, 천상의 감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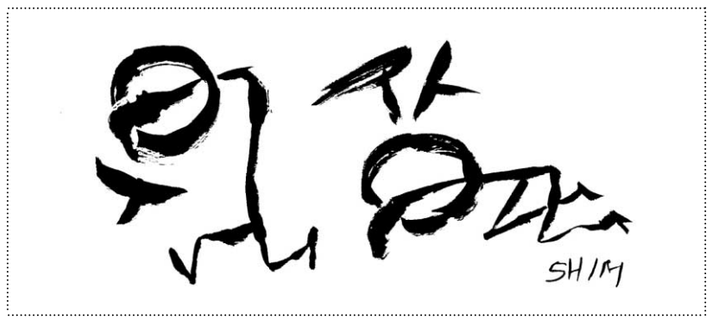
우리가 보는 세계는 자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관심과 시선이 다르다면 세계는 전혀 다르게 보이겠지요. <법화경>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다. 이 물은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모든 지각 있는 생명체에게 꼭 같이 보일 것인가. 아니다. 물고기에게는 '집'으로 보일 것이고, 지옥에서는 '고름'으로 보일 것이며, 천상에서는 '감로수'로 보일 것이다." 물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으로 보이겠지만, 화학자에게는 'H_2O'로 보일 것이고, 경제학자에게는 공짜라는 뜻에서 '비경제재'의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상의 콩깍지는 사랑에 빠진 연인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져 있는 공통의 늪입니다. 우리는 늘 돈이 되는지만 살피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며, 저 유리한 대로 세상을 해석하며, 그 밖에 관심이 없는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 속의 '우상'에 따라 사물을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본격 다루고 있는 사람이 철학자 베이컨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있는 우상을 네 가지로 들었습니다.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

가장 알기 쉬운 것이 1) 동굴의 우상(the idol of cave)입니다. 인간은 자기 가 만든 주관적 환상의 세계 속에 갇혀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호나 관점이 보편적이고 건강하며 합리적이고 전체적이라는 무의식적 착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동굴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중증인 경우가 많지요. 기이한 것은 다른 사람 속에서



이 특징을 발견하기는 쉬운데 자신에게서 그것을 깨닫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2) 종족의 우상(the idol of tribe)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공통된 생물학적 특성으로 하여 갖게 된 우상을 가리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세계가 인간이 보는 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도 여기서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는 실재를 드러내기보다 감추며, 비추기보다 왜곡시킵니다. 불교는 이 측면을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불신과 위험을 선명히 드러냅니다. 어떤 불교학자는 불교의 이 같은 인식을 언어혐오증(lingua-phobia)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비참을 증폭시키는 원흉인데, 그 첨병이 바로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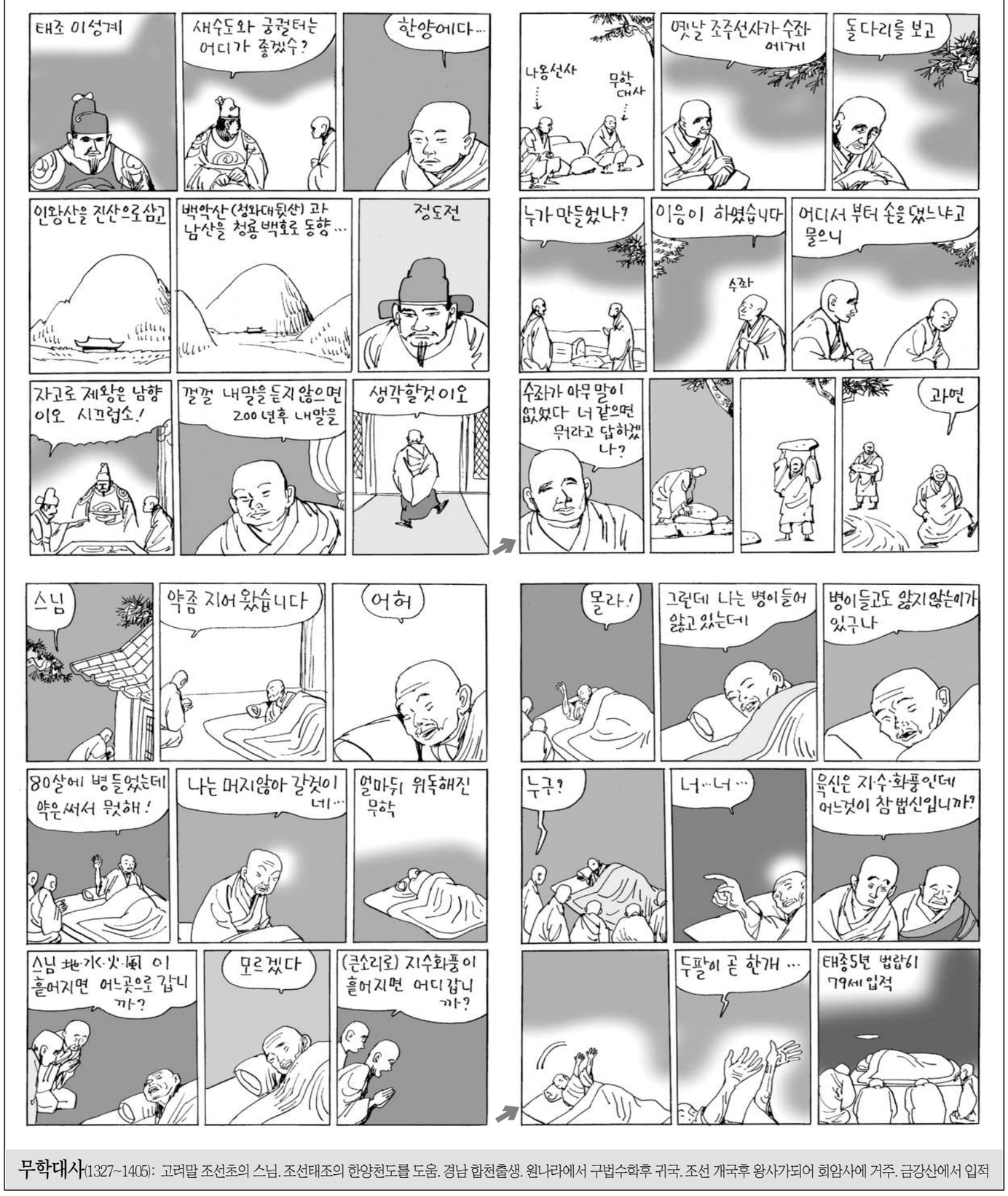
무아는 집단적 개인적 우상들 타파하는 노력

마지막으로 4) 극장의 우상(the idol of theater)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자의 권위를 승인하는 맹목성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극장 무대에 왕이나 제사장이 홀을 들고 오가는 장면에서 연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재래의 문화적 습관이나 전통에 의해 대상에 대한 일정한 태도와 가치관념을 주입받습니다. 이 훈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와 교사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곧 제재가 따르고 충실히 지키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며 그는 한 사회의 이념을 자신 속에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그의 '세계'의 집단적 토대가 됩니다. 그 집단 속의 개인은 이 기반에서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개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주어집니다. 이 우상은 집단과 종족의 오랜 지혜의 소산이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고집해서는 안 되지요. 그랬다간 다른 문화와 문명과의 충돌과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베이컨은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가치관, 문화, 이념, 종교를 배타적으로 고집하는 것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는 이 모든 종류의 '우상'을 깨뜨리고 걷어내도록 권합니다. 이들이 똬리 틀고 있는 한, 우리는 차가운 <사실>과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영원의 고요와 평안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관적 환상과 우상에 고착되어 있다면, 타자를 용인할 수 없고, 그것은 치유할 수 없는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㊺ 무학대사의 '지수화풍'

조태호



무학대사(1327~1405): 고려말 조선초의 스님. 조선태조의 한양천도를 도움. 경남 합천출생. 원나라에서 구법수학후 귀국. 조선 개국후 왕사가되어 회암사에 거주. 금강산에서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깨달음은 삼매 속에서 가능한가요?

문 깨달음은 삼매 속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삼매에서 나와야만 가능한 건가요? 네티즌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ID 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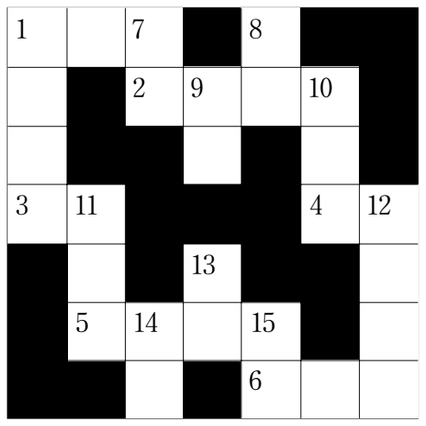
답1 : 삼매 속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삼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합니다. 삼매라 하는 것은 무엇 하나에 골똘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독서삼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매라는 것은 무엇 한 가지에 골몰하여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무엇 한 가지에 골몰해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새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수행자들이 삼매에 있다가 느닷없이 그 경계가 깨질 때 문득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지요.

깨달으신 분들의 일화를 보면 일상 중에서 문득 깨닫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어떤 분은 좌선 중에 자신의 방귀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방귀를 뀌어 보셨겠지만 방귀를 뀌려면 아랫배에다가 의도적으로 힘을 주거나 아랫배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삼매에 들어 있다면 방귀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어지간히도 깨닫고 싶었던 분의 일화로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나삼매)

답2 : 깨달음은 삼매 안에서 가능합니다. 불교의 삼매란 지(止)와 관(觀)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선가에서는 성성적적(惺惺寂寂)이라 표현하며 쌍차쌍조(雙此雙照)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고요하고 비추는 그 삼매 속에서 바로 깨닫는 것이지 깨닫기 위해 다시 삼매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삼매에 대한 오해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다가 어떤 경계를 만나 갑자기 활연대오 했다고 해서 삼매에서 나온 게 아니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뒤에나 삼매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성성적적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 각안(覺眼)에 다시 삼매에 들고 나는 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묵동정이 그대로 밝게 관해서 집중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삼매 없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도 삼매를 떠나지 않고 부처님이 활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강원 화천군과 양구군에 걸쳐 있는 호수 2. 얼마쯤 믿으면서 한편으로 의심함 3. 탑과 비석 4. 하루하루마다 5.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말로 좋은 일에 좋은 일이 겹침을 뜻함 6. 콩팥 피질부의 모세 혈관이 실로 만든 공 모양을 이룬 작은 조직체, 연예인 병역비리에 이용된 질병이 '○○○신염'.

세로 1.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가야시대의 석탑, 수로왕비 허황옥이 서역 아유타국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싣고 온 것으로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음 7. 호숫가라는 의미로, 춘천을 일컫는 말. '○○의 도시' 8. 함께 도를 닦는 벗 9. 환웅(桓雄)이 천부인 3개와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이곳을 ○○라 불렀음 10. 의로 맺은 남매 11. 비상시에 대비해 모아둔 돈 12. 한마음 한몸 13. 서류 따위를 따로 붙임 14. 일터나 모임 따위에서의 윗자리 15. 뱀을 소재로 하여 원시적인 생명력에 대한 향수를 노래한 서정주의 시.



"**칠칠맞은** 오 과장. **노가리 까다** 박 부장한테 **낭패**를 봤다며. 전날에는 **고주망태**가 돼 실려 가더니만. 오늘 지각해놓고 **시치미까지 뗐데**."
"**간이 부었지. 사바사바**해도 모자랄 판에. 게다가 박 부장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것도 모르고 **하룻강아지**처럼 대들었다 **거덜났다**지. 아마"



그림 제공=예담

일상에서 건진 우리말 맛깔나네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1.2
조항범 지음
각 권 9천원
예담 펴냄

우리말이지만 과연 이 대화에서 사용된 말들의 뜻과 유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갈매기살, 마누라, 사바사바, 도루묵, 건달, 거시기, 을씨년스럽다' 등과 같은 말들은 어디서 유래됐을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거덜났다'는 말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거지들이 덮고 자는 거적에서 유래됐다고! 미안하지만, 아니다. 거덜은 조선시대 관아에서 가마나 말을 돌보는 종을 가리킨다. 말똥 따위를 치우는 낮은 신분이지만 윗사람이 행차할 때 '물렀거라' 소리치며 행렬 앞에서 우쭐거리는 노비를 일컫는다.

여기서 '거들거들' '거드름'이란 말이 나왔고, 이것이 몹시 흔들거린다는 의미로 바뀌면서 재산이나 살림이 허물어진 것을 지칭하게 됐다.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1·2>는 이처럼 일상어에서부터 비속어에 이르기까지 우리말 100가지의 유래와 어원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또 잘못된 우리말 쓰임을 바로잡고 엉뚱한 가설이 정설로 둔갑해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것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올 6월 한 달간 10대에서 50대 1만3천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싱싱한' 말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눈길을 잡는다.

1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뜻도 잘 모른 채 무심코 쓰거나, 뜻은 알지만 자세한 어원을 모르는 말들을 위주로 베스트 50가지를 뽑았다.

'마누라' '을씨년스럽다' '건달' '하룻강아지' '어처구니없다' 등이 대표적이다. 2권에서는 '사바사바' '거시기' '십팔번' 등 어원을 들으면 '무릎을 탁 칠만한' 비속어 50가지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우선, 책에서는 말이 당대의 시대정신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말한다. 가령 쓸쓸하고 스산한 풍경을 표현할 때 쓰는 '을씨년스럽다'는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을사년의 비통함과 허탈함에서 유래됐다고 그 어원을 설명한다.

또 조선시대 억압받던 불교의 모습을 반영한 말들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질서 없이 어지러운 현장을 비유하는 '아사리판', 끝장을 뜻하는 '이판사판', 게으르고 무능함을 일컫는 '건달' 등의 말이 그런 예들이다. 이외 '왕따' '제비족' '짱' 등 사회상을 담은 말들도 소개한다.

책은 무엇보다도 어원에 대한 국어학적 설명과 그 적확한 출처를 풍부한 사료 등을 통해 조목조목 밝혀주고 있다. 어원이 한글인지 한자어인지, 발음상의 유사점으로 엉뚱하게 어원을 곡해·와전시킨 가설은 없는지, 본래 어원과 지금의 뜻이 축소되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고유음식 '김치'가 한글이 아닌 한자어인 '침채(沈菜)'에서, '내숭'이란 말이 '내흉(內凶)'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반대로 한자 어주구리(魚走九里)로 알려진 '어쭈구리', '헹가래' 등은 그 어원이 한글이라고 제시한다. 또 태도가 분명치 않을 때 표현하는 '감질나다'의 경우, 질병과 관련된 말임에도 맛을 나타내는 '감질맛나다'와 혼용됐고, 한 살 된 강아지를 의미하는 '하룹강아지'가 '하룻강아지'로 와전된 점도 사례로 들고 있다. 이밖에 남자 동기를 부르던 말이었던 '오빠', 지체 높은 여성과 남성을 부르던 '마누라' 등이 오늘날에 그 의미가 좁아져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을 덧붙이고 있다. 인종이 다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뜻하는 '튀기', 이야기가 곁길로 샌다는 '삼천포로 빠지다' 등은 편협한 인종차별, 불쾌한 지역감정을 조장하기 말들이기에 조속히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거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은이 조항범 교수(충북대 국문과)는 출간 배경에 대해 "방대한 참고문헌과 검증된 자료에 근거해 우리말 어원에 얽힌 설화와 유래설이 어떤지를 다채롭게 묶어봤다"며 "뜻도 모르고 쓰던 현대인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말의 밑뿌리를 알게 되면서, 일상의 대화가 즐거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땅 10평보다는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사라
이선욱 지음 | 조선일보 | 1만4천원

2004년 오늘은 앞으로 전개될 주식시장의 파동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 할 것인가? 돌아보고 예측하고 결론짓길 십수 년. 주식시장에서 눈을 뜨는 과정은 미혹(迷惑)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피안(彼岸)으로 건너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선의 세계에 비유된다.

주식투자에 발을 들인 것을 불운의 시작으로 원망하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 씨알이나 먹힐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들었다. 막강 부동산에 견주어 주식에 투자하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눈에 들기는 했지만 되도 않는 잔재주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혹세무민하는 여러 주식관련 서적 중에 하나이거니 하는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누구나 가질법한 선입견은 책 초반부를 지나면 무너지고 만다. 필자가 말했듯이 어렸을 적 삼촌에게 들었던 무용담처럼 흥미진진한 사례들이 부담 없이 전개된다. 복잡한 이론보다 성공 투자자들의 경험을 기초로 진정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데 필자는 많은 지면을 할애한 듯 보인다.

책 전편을 통해 필자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입각한 가치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이어가라는 것이다. 부동산에 묻어두듯이, 적금처럼 소액을 꾸준히 납입하듯이, 예금에 묶어두고 기다리듯이 주식투자의 습관을 바꿔야만 수년 뒤 성공한다는 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대박환상 버리고 대박 잡기(?)

<땅 10평보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사라>에서는 적어도 3년 이내에 2000포인트에 근접하는 활황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한다. 정말로 그럴 것이지 우리는 관찰해야한다. 불교 경전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금강경>이다. 그 중에서 일합이상분(一合理相分)은 내 현실의 직업에서 나를 항상 긴장시키는 부분이다. 진여본체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와 물질로 이루어진 현상세계가 알고 보면 하나라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무심하고 여여하게 관찰하고 거기서 거품을 벗어내야 한다. 우리 주변에 돈에 관해 포괄적인 관찰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모두 전문성을 강조하느라 자기 이야기만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아니다. 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관찰할 수 있다. 맑은 마음만으로 추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필자는 폭발적 활황의 시대에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발길 닿는 모든 땅이 서너 배가 올랐어도 소외된 사람들의 탄식이 난무하는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주식투자의 성패가 후천적 학습보다 유전적 인성에 더 많이 좌우된다고 판단한 필자는 주식에 투자하면 절대 안돼는 10가지의 유형을 아주 세밀하게 정렬해 놓기도 했다. 그럼으로써 성공가능성이 적은 투자자들은 애당초 간접투자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대박의 환상을 버리고 좀 저하게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할 때 진정한 대박이 주어진다는 것이 <땅 10평보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사라>의 핵심이다. 이제부터는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란 점에 공감한다.

■**우승택** (삼성증권 종로타워 지점장)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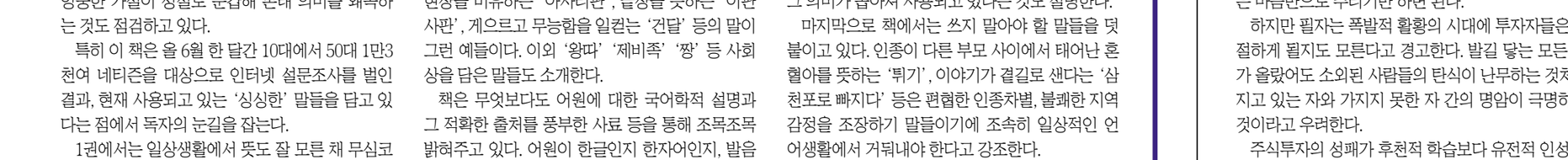
禪 너는 누구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 초청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禪 너는 누구냐』

선 수행 현장에서 실참실수하고 있는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이 일러주는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선의 본질과 의미** ■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주지)—**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보은 법주사 총지선원장)—**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구례 화엄사 선등선원장)—**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웅 스님**(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경허·만공 선사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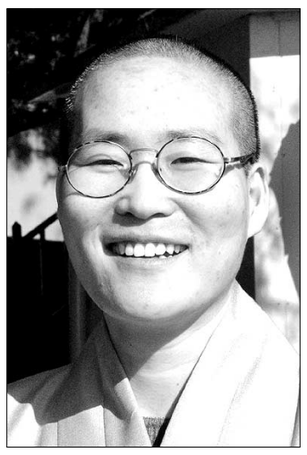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여시아문



美 유학길에 부처를 만나다

인터뷰 13년 해외유학 이야기 엮은 소운 스님

"평상심 벗어나서 부처 찾을 수 없어 언어장벽 · 수면부족 염불로 이겨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의 발견은 가난함과 부족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글이 세상에 나올 때쯤이면, 소운 스님(사진)은 경북 문경의 한 산사에서 화두 참구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일본 도쿄(東京)대 석사학위, 한국의 비구니 스님으로는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자전적 에세이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한 권을 속세에 남겨둔 채.

11월 20일 서울 성북동 약사암에서 안거 준비에 한창인 소운 스님을 만났다. 최근 발간된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때문에 몇몇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평소 약사암을 나서는 일이 별로 없기에 석 달간의 부재가 조금은 낯설 법도 하다.

"공부에만 매진해 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책을 썼어요. 타인의 시선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고 그걸 글로 옮기다보니 내 안에 쌓여있던 쓸데없는 짐을 버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번 책에는 13년간 배움의 길을 걸어 온 스님의 '경험담'과 '수행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입학 성공기'나 '공부 잘 하는 법'을 다룬 여타 실용서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스스로를 '학승(學僧)'이라 부르는 스님이 배움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 유학 생활 동안 만났던 사람들,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염불수행 이야기가 눈앞에 그려지듯 펼쳐진다.

소운 스님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 고등학생이던 1979년 수덕사로 출가했다. '불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84년 동국대 선학과에 입학한 것이 배움의 시작이었다. 동국대를 졸업한 후 바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5년 간의 일본 유학 끝에 범어를 통해 불교 원전을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 다시 하버드대 범어인도어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하버드'라는 매혹적인 이름은 언어의 벽과 수면부족, 영양부족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부딪쳐왔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고, 밥 먹는 시간조차 쪼개서 공부를 했다. 공부 외에 했던 것은 단 하나, 염불뿐이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정신을 집중하는 염불이 유학생활을 지탱해준 힘이었다.

그러나 "유학생활이 어렵지 않았는냐"는 질문에 스님은 도리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왜 힘드냐"는 것이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혹은 출세를 하기 위해 공부를 했으면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가장 원해서 선택한 것이 공부였기 때문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그 때가 참 안쓰럽고 구차한 시기지만요.(웃음)"

그렇다면 스님이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는 누구일까?

"처음에는 형이상학적이고 경배의 대상인, 나와 동떨어진 세계에 존재하는 '부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학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서 평상심을 벗어나서는 부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언제나 즐거운 얼굴로 커피를 따라주는 커피하우스의 흑인 아저씨, 매일 마주치는 기숙사 청소부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보게 됐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부처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준 유학을 마치고 2년 전 한국으로 돌아 온 스님은 약사암에 기거하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공부를 이어나갔다.

"유학을 마쳤다고 수행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배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배움이 '나'를 덮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끝없이 고민해야겠지요. 안거에 드는 것도 바로 그런 고민의 연장입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소화'하는 작업이라고나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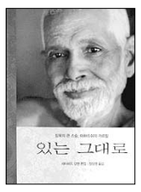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스님 지음
도솔 | 9천원

새로나온 책

■ **<있는 그대로>**(데이비드 갓맨 엮음, 정창영 옮김, 한문화, 1만2천8백원)=침묵의 진리를 설한 라마나 마하리쉬(1879~1950)의 '자아탐구법'을 엮은 세 번째 개정판이다. 마하리쉬는 우파니샤드(인도 경전)의 가르침을 실현한 현대의 큰 스승이다. 평범한 의문을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제자들의 물음과 깨달음을 이룬 스승의 현답이 이 책의 백미. 이거룡(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이 책을 "마하리쉬의 가슴까지 담아낸 영적구도의 좋은 길잡이"라고 평한다.



■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여자>**(미영순 지음, 북포스, 9천원)=전국저시력연합회 대표이자 '2004 이웃돕기유공자포상' 국민포장을 수상한바 있는 미영순 씨가 실명이라는 장애를 딛고 일어선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러시아 하얼빈의 거부였던 외가의 흥망, 부모님의 낭만적인 사랑, 업보 같은 장애를 이기고 오늘에 이르는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 **<비구니>**(김정은 지음, 화남, 9천원)=비구니 출신 소설가 김정은 씨가 10여 년 간의 출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 사생아로 태어난 주인공 진희(자운 스님)는 출가 후 우연히 만난 준민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와의 관계를 통해 구도자의 길과 한 여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비우고 비워야 만날 수 있는 '경주'



강석경의 경주산책
강석경 지음
열림원 | 9천원

소설가 강석경 씨(53)가 올해로 꼭 10년째 살고 있는 경주에서의 단상들을 기록한 수필집이다. 1991년 인도에서 2년을 살기도 한 지은이는 경주로 돌아온 것을 "나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온 회귀"라고 말한다. 그에게 고향이란 "육신이 태어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겐 '관광지'의 이미지로 남아 있지만, 지은이에게는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나고, 얼굴만 돌려도 설화의 장소와 맞닥뜨리는 곳이자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경주다. 그곳 경주에서 지은이는 '비움'이란 화두를 잡고 느리지만 풍요로운 사색의 길에 나섰다. 황룡사지 앞에서는 "내 영혼이 얼마나 준엄하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묻게" 되고, 낡은 남산동 한옥촌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대도시 아파트의 직선 문화에 비해 경주의 기와집 골목은 인간적이고 정겹다. 집집마다 뜰엔 맷돌이며 골동 냄새가 나는 물확 같은 것이 놓여 있고, 석류니 무화과니 과수들이 운치있게 자라 있다."

하지만 포클레인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황오동 골목을 보면서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원형을 잃어가는 경주의 모습에 마치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한다.

"경주는 짓고 세울 것이 아니라 수도승처럼 비우고 비워야 할 도시가 아닐까. 1500년 전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원형을 발견하고 달팽이집 같은 일상에서 비켜나 근원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맞도록, 그것이 민족의 고향으로서 경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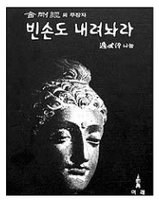
수십년째 경주에 살아 온 화가 김호연(동국대미술학부 서양화과) 교수의 풍경 그림도 책에 보태져 사색의 향기를 더한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2	용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3	오체투지	한 경 혜	반디미디어
4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 스님	이른아침
5	오계이야기	일타 스님	효 림
6	참나	혜거 스님	선문출판사
7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8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 림 원
9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 터
10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인연

도서 안내 : (02)737-0695



빈손도 내려놔라
법산 스님 지음
여래 | 10만원

10여년 수집한 '금강경' 자료 엮어

대구 여래선원장 법산 스님이 10여 년 간 인도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을 순례하며 수집한 <금강경>에 대한 자료를 책으로 엮었다.

'둔세승(遁世僧, 세간을 등진 승려)'이라는 필명으로 책을 출간한 스님은 책에서 직접 찍은 1천여 장에 달하는 사진과 자료를 아낌없이 펼쳐 보이고 있다.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알고 있다'는 평면적인 앎의 무지에 빠져 있는데, 이들을 위해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간추려 놓았다"고 말한다. 스님은 현재 전국 선원과 주요 사찰에 이 책을 법보시하고 있다. (02)515-8289



성공하는 스피치, 돈 버는 스피치
이현정 지음
갑을패 | 8천8백원

그림 그리듯 말하세요

불교방송 이현정 아나운서는 <성공하는 스피치, 돈 버는 스피치>에서 "말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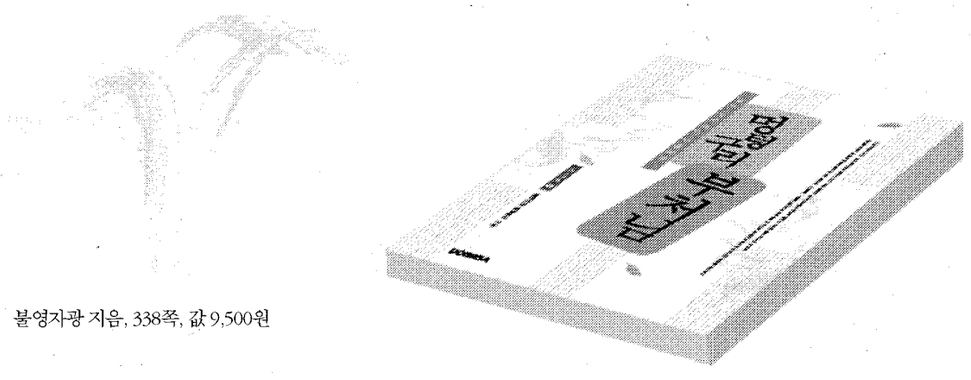
그동안 '말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을 써 온 지은이가 말하는 '굿 스피치'의 핵심은 그림을 그리듯 말하는 것. 즉 상대방이 화자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마치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그 전제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적인 감각까지 표현할 수 있는 묘사력. 그래서 지은이는 소설을 열심히 읽으라고 권한다. 긍정적인 사고와 말도 필수다.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6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쉽고 재미있는 마음공부"

멍텅구리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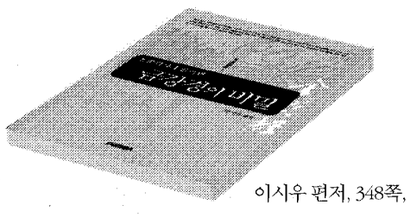


불영자광 지음, 338쪽, 값 9,500원

스승이 군대 가라 한다고 이미 제대하고도 또 입대한 멍텅구리 자광스님!
그 멍텅구리 스님은 말한다.
"나만 멍텅구리인가? 아름다운 비빈들과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쥔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평생 남의 밥을 빌어먹은 부처님도 멍텅구리다. 또 엄청난 재물을 보시하고 탑과 절을 지어주겠다는 양무제를 물리치고 도적 떼가 들끓는 숭산 골짜기로 들어가 9년 간 면벽한 달마조사도 멍텅구리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묻는다. "내가 멍텅구리인가, 그대들이 멍텅구리인가?"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 비밀

금강경을 금강경으로 보지말고, 전혀 새로운 눈으로 금강경을 보라!



이시우 편저, 348쪽, 값 13,000원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를 지낸 한국 관측천문학의 개척자이며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의 정회원인 이시우 박사가 세존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하신 이후, 처음으로 풀어낸 **금강경 안에 비장(秘藏)된 연기의 비밀**을 밝힌다. 이 비밀은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현대인이 등장할 때까지 깊숙이 감추어져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금강경은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人天之道]를 설한 불교를 대표하는 경이다.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로 인간의 도만 설명해 왔는데 이 책에서는 하늘의 도[天文學]와 인간의 도를 최첨단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함께 설명하고 있다.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내리고 게릴라성 폭우가 순식간에 마을을 삼키는 기상이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인류의 큰 재앙으로 인간과 자연이 한 뿌리라는 불교의 연기사상을 한시 바삐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마 인류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티베트금강경

까말라쉴라의 金剛經 廣釋

저 거대한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고도 마음놓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나 물리적인 힘보다 앞선 것은 정신력이고 정신력의 근원은 바로 이 금강경에서 비롯된다. 금강경은 붓다 세존의 정안(正眼)이며 불법의 핵심이다. 북전(北傳) 대장경 가운데서 금강경만큼 널리 읽히는 경도 없다.
우리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인도 나란다 대학의 뛰어난 학승이자 티베트 불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까말라쉴라 존자의 논리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본다.
(그동안 「티베트대장경」 속에 은밀히 간직돼 있던 이 책을 티베트불교학자 양승규 박사가 오랜 노력 끝에 처음으로 완역하였고, 책이름은 티베트대장경 안에 있는 금강경이라는 뜻을 줄여 '티베트금강경'이라고 했습니다.)

· 양승규 역 225쪽 값 9,000원

"독서는 계달음의 길" 의 도서출판
DOPIANSA 도피안사
전화 | 031-676-8700 · 전송 | 031-676-8704 · Homepage | http://dopiansa.or.kr

• 광덕스님의 반야바라밀다경사 근본도량, 도서출판 도피안사에서 펴낸 이 책들을 30권 이상 구입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미술관에는 '종교의 벽'이 없다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전'
불일미술관 (12월 8~15일)



오원배 씨의 '적적(寂寂)'(위).
청동으로 만든 김영원 씨의 '정숙(靜寂)'(아래).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은 기독교계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불교계 작가와 가톨릭계 작가를 초청한 '가톨릭과 불교 미술인의 만남 展'을 갖는다. 전시 기간은 12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사간동 법련사미술관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가톨릭계가 서울 중림동 가톨릭 회랑에서 한달간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전'을 개최한데 대한 불교계의 일종의 '답례전' 형식이다.

이번 전시회엔 이름만 들어도 그 명성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 지는 대표적 작가 23명이 초청됐다. 불교계에선 강경구, 송수련, 송영방, 전영화, 오경환, 오원배, 이만익, 전성우, 김영원, 류종민, 조승환씨 등 11명이 출품했다.

대부분 지난해에 참가해 낯이 익지만 강경구 교수(경원대 회화과)는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강 교수는 오원배 교수(동국대 미술학부), 이만익 화백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술상인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한 관록있는 미술가다.

가톨릭쪽에서는 이종상, 김형구, 문학진, 변진의, 송경, 이광미, 이동표, 조영동, 조재구, 최의순, 최종태, 성옥희 등 12명이 나온다. 60세 이상의 원로 작가들이 대부분이다. 이중 제 1회 베이징 비엔날레 초대작가인 이종상 씨(상명대 석좌교수)와 국전 초대 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중인 김형구 씨는 국내 정상급 화가로 명성이 높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소재의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작품마다 작가들의 종교적 혼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종교적 색채가 강한 것은 다섯 작품 정도.

불교계에서는 장지에 수묵 담채로 연화세계를 담백하게 그린 송영방씨의 '연화세계'와 종이위에 혼합재료를 사용해 꽃을 부처님을 표현한 오원배 교수의 '적적(寂寂)', 청동으로 부처님께 절하는 모습을 조각한 김영원 씨의 '정적(靜寂)' 등이 있다. 또한 가톨릭계에서는 동판에 유약을 발라 원형상을 표현한 이종상 교수의 '원형상', 칠흑같은 밤에 뜬 달빛을 오일을 사용해 그린 김형구씨의 '성야(聖夜)' 등이 벽에 걸린다.

이외에도 캔바스에 오일로 일곱 가족을 희화적으로 그린 이동표씨의 '우리시대의 가족상'은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온다. 또한 강경구씨의 '여여문(如如門)'에서는 선(禪)적인 향기가 물씬 풍긴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이질적인 문화 혹은 다른 종교와의 만남에서도 훌륭한 문화가 창출될 수 있다"며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이라든가, 인도의 간다라, 중국의 당나라 문화 등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그것도 이질적인 문화를 포용해 관용의 미학으로 토해낸 걸작이 바로 석굴암"이라고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미술을 통해 이웃 종교와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데 대해 이번 전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두 종교 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도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부처님오신날' 가톨릭계 축하해준 '답례展'

대표 작가 23명 출품 '서로 화합 다지는 계기'





이종상 씨의 '원형상'(왼쪽)과 최종태 씨의 '서있는 사람'(오른쪽).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특별전'
수덕사 근역성보관 (12월 12일 까지)

부처님 뱃속에 최고의 문화가 …



복장유물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은 보는 이를 탄복케 한다.

전시 13일 째를 맞은 11월 23일 예산 수덕사 근역성보관(관장 정암)의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佛腹藏) 특별전' 현장. 벌써 7천여 명이 다녀갔다는 특별전에는 이날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복장이란 불 · 보살상 등 존상 내부에 봉안됨으로써 존상에 신앙의 대상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물건들이다. 고려시대에는 조형물, 복식, 직물, 사경, 전적, 다라니 등을 조선시대에는 후령통(오곡 · 오향 · 오약 · 발원문 등을 넣는 통) 안의 오보병을 위주로 간략하게 넣었다. 이번 전시는 일반인의 범접이 쉽지 않았던 복장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복장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게 한 첫 특별전인데다, 불복장에 담긴 문화적 측면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별전은 문수사 금동아미타불,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보물 제1381호), 기림사 비로자나삼존불상(보물 제958호),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보물 제980호) 등 고려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불상 안에 있던 기림사비로자나불복장전적(보물 제959호), 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복장전적(보물 제1095호), <감지은니보살선계경권8>(보물 제740호)을 비롯한 전적류와 직물 · 복식, 후령통 등의 주요 복장 유물들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특히 눈에 띄는 유물은 직물 · 복식류. 통상 가장 귀한 물건을 복장으로 봉안하기 때문에 복장 유물은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이번 전시 직물 · 복식류는 그 같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수작들.

작은 직물 조각부터 황색보자기에 이르기까지 전시된 다양한 직물 가운데 단연 압권은 고려시대 금박 중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담청색천화봉황문지인자황수파어용문라(淡靑色穿花鳳凰紋地印紫黃水波魚龍紋羅)'. 청색으로 투명하게 비치는 꽃과 봉황 문양을 배경으로 물결무늬와 어용(용의 머리와 물고기 꼬리를 가진 상상의 동물)을 금박으로 그려 넣은 직물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금박의 재료로 가짜 금인 자황을 사용했다는 점. 유황과 비소의 화합물로 만든 자황에 대한 문헌 기록은 있었으나 실제 유물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현존하는 고려복식 9점이 전시된 것도 드문 일이다.



자황을 사용해 금박 무늬를 새긴 '담청색천화봉황문지인자황수파어용문라'. 고려시대 뛰어난 직물 제작 기술을 알 수 있는 수작이다.

폭이 13미터나 돼 한번도 펼쳐져 전시돼본 적이 없다는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권 제8>의 펼쳐진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를 더 한다.

특별전의 또 하나의 자랑은 도록. 수덕사근역성보관은 일반 도록 외에 <불복장 직물문양집>도 제작했다. 전시된 직물의 문양을 일러스트 전문가가 작업, 그래픽화한 것으로 전통 문양의 형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덕사근역성보관장 정암 스님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복장이 갖는 성스러움을 손상치 않으면서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며 "특별전을 계기로 복장 유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전은 12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수덕사= 박익순 기자**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의 특징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림.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농 협 053-02-109450 윤재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9>



끝만 좋으면 다 좋다구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똑똑해서 부모가 뭐든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렇지 못하여 한 두 마디 단어가 이어지기만 해도 외지 못했습니다. 어느 덧 세월이 흘러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형은 한 비구스님에게서 부처님의 가르침 한 토막을 듣고는 그 깊은 뜻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그날 밤에 삼장을 다 외웠고 깊은 사색과 선정에 잠겨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홀로 집에 남겨진 동생은 워낙 어리석은지라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걸식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스님이 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거지 행색의 초라한 동생을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형은 하루라도 빨리 동생을 깨우치려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내 동생은 머리가 좋지 않으니 계송 하나만 외게 하자.'

"세 가지 악한 업을 짓지 말고
세상 모든 중생을 괴롭히지 말라.
바른 마음으로 살펴서 탐욕의 대상은 공하다고 알아서
아무 이익없는 괴로움을 멀리 떠나야 하리라."

동생은 열심히 외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외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소 치던 사람들이 그것을 외웠다가 동생이 물으러 오면 가르쳐 줄 정도였습니다.

형은 동생의 우둔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보내보았지만 그 사람 역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동생을 절 문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대체 내 머리는 왜 이리도 나쁜 것인가! 사랑하는 형마저도 나를 포기할 정도이니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녀석이다.'

동생은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워 서러움에 북받쳐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의 슬픔이 부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들여 자상하기 이를 데 없는 아난존자에게 그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난 존자도 포기했습니다. 결국 동생의 교육은 부처님 몫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는 먼지를 턴다. 나는 때를 없앤다'라는 두 구절만 외우거라."

하지만 동생은 그것조차도 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에게 먼지떨이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에 있는 스님들의 신발을 털어라. 그러면서 너는 '나는 먼지를 턴다. 나는 때를 없앤다'라고 자꾸만 생각해야 한다. 그건 할 수 있겠지?"

처음에는 신발을 맡기려고조차 하지 않던 스님들은 부처님의 의중을 알고 난 뒤에 동생에게 신발을 맡겼습니다. 그는 열심히 털고 또 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외우게 하신 먼지와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열심히 신발을 털던 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 그 먼지는 흙먼지가 아니구나.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먼지라고 말하는구나.'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탐진치 삼독을 깨끗이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맺고 앉아 깊은 선정에 들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어리석던 동생은 아라한을 이룬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주리반특이었습니다.<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31권>

불자들이면 누구나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 아무리 어려운 부처님 말씀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될 거야. 주리반특도 해내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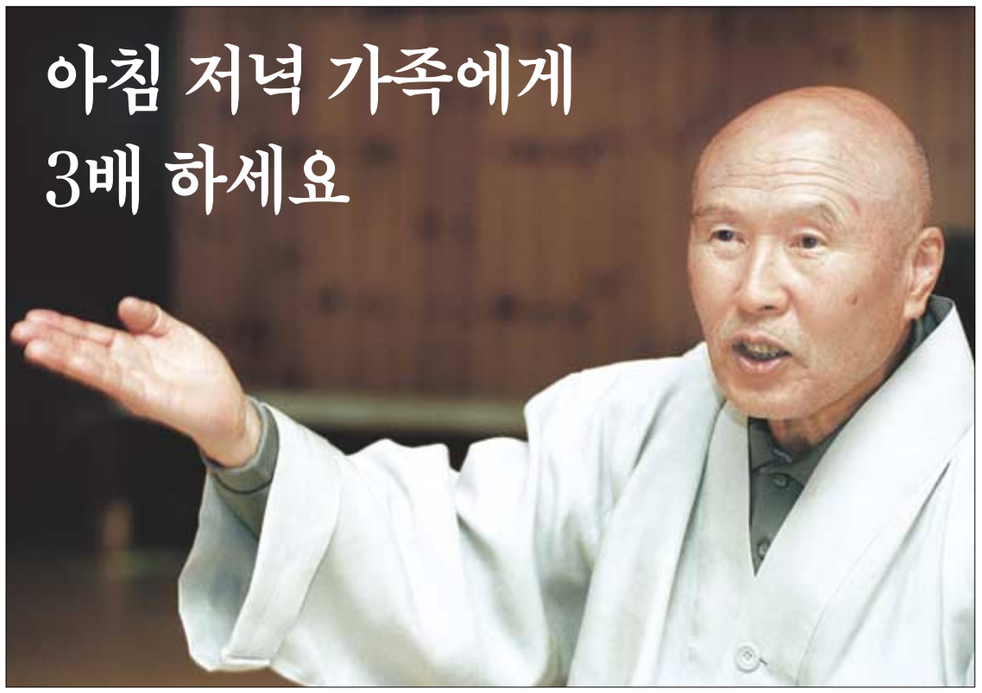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다른 방향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리반특이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는 '천천히 깨달아갔다'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멸시와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모자람을 절실히 깨달았고, 짧은 구절 하나를 외기 위해 온 몸으로 노력한 그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과정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지요. 일단 불고 보자는 마음이 수능시험의 부정행위를 불러왔습니다. 어른들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들 말하지요? 아닙니다. 끝만 좋다고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과정이 좋으면 끝이 좋은 법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주리반특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짧은 구절 하나 외기 위해 노력한 주리반특
부족함 알고 애쓴 하루하루가 깨달음의 순간



아침 저녁 가족에게 3배 하세요

우룡 스님은 늘 불교는 작은 '나'를 죽이고 큰 '나'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지상 백고좌

우룡 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경주 남산자락의 새 절 함월사 마당에서 우룡 스님을 뵈었다. 과일쟁반을 들고 있으신 스님에게 합장 반배로 인사를 올리자 "큰스님들은 서울에 다 있는데 이런 시골에는 뭣하러 내려 왔냐"고 되물었다. 그래도 멀리서 온 기자를 내치지 않고 요사로 들인 스님은 별로 할말이 없다고 했다.

"맨날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무슨 이야기해야 해요?"라며 기자의 맥을 뺐다. 세상 사람들이 스님의 말씀 갈지 않음을 섭섭해 하는 혼잣말처럼 들렸다.

이런 저런 근황과 건강을 묻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마침 주지 스님이 자리에 없어 우룡 스님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한참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던 스님이 천천히 입을 뗐다.

"결에 스승이 있으니까 결의 스승한테서 배우세요. 불교는 출발점이나 도착점이나 똑같아요. 가는 코스도 정해져 있어요. 화두 염불 주력 기도 어느 것이든 가까운데서 스승을 찾고 물어서 그길로만 가면 돼요." "…"

"누구이야기는 되고 누구 얘기는 안 된다는 것도 없어요. 내 결의 스승 찾아서 그분들에게 질문하면 돼요." "…" 스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상대가 스님을 찾아뵙겠다고 떼를 쓰는 모양이다.

"그런 분별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보살님은) 아침저녁으로 부모, 자식, 부부간에 3배씩 서로 절합니까?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루 세끼 밥상머리에서 합장한번 할줄 모르고 아침저녁으로 내 가족에게 무릎한번 꿇지도 않는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법문 들었다, 어디 절 갔다왔다가 무슨 소용이에요? 결에 있는 스승을 찾으세요."

스님을 찾아간 11월 17일은 대입 수능시험이 치러지던 날이었다. 전국의 사찰에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모습을 담은 뉴스가 연일 지면과 방송을 뒤덮고 있던 때였다.

"뭔가 잘못됐지요. 일상생활에서 내 일을 착실히 잘하면 되지, 그렇게 별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엄마, 아버지, 학생이 얼마나 한마음으로 일체가 되어 있을까요? 어제도 어떤 보살이 여기 와서 아들이 시험 본다며 밤을 새워 새벽 4시까지 3000배 하신 것 같아요. 그 엄마의 노력과 그 아들의 책장 넘기는 노력이 얼마나 일치할까요? 엄마 아버지들이 하는 만큼 자식의 노력도 상응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사람들은 불교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된 거예요."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 가족간의 유대 없이 일방적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옆의 부처님인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옛날 어른들은 혓바닥이 칼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평소 생각 못하잖아요. 살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가슴 콕콕 찌르는 말 숱하게 하면서도 잘못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 자식 형제동기간이라도 말로 상처 주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게 윽박지르고 고함지르고 때리는 건 업이 아니고, 업이 되더라도 쉽게 녹아져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게 더 안 녹아져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안 풀릴 수 있어요. 이 응어리가 남은 동안 해탈은 이루어 질수가 없어요.

나만 알면서 기도해서 뭐하나

또, 내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당신은 당신가족을 형제를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늘 요거 껌데기(볼을 꼬집고 때리며) 이거 하나 밖에 모르지 않느냐? 모양도 소리도 빛깔도 냄새도 없는데 '나'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밖에 몰라요. 나만 생각하고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생각 않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우물 파듯이 절에가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밝은 눈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본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거라고 할 거냐? 빛깔도 모양도 냄새도 소리도 없는 이것, 어떤 이는 '부처'라고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진리'라고 하고 가장 쉽게는 '마음'

천년을 이어 가는 생명의 잠자리!!!

부모님께 활력을!!! 후손에게 가보를... 대를 이어 전하세요.



• 1 인 보 료 - 값 4,000,000원
• 보급형보료 - 값 2,800,000원 (체격이 작은분)

※ 보료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희담석 방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희담석 보료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기에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아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되므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지병 등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희담석 찜질팩

그냥 사용하셔도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출됩니다



[이럴 때 사용해 보세요]
- 근육통, 어깨 결림, 오십견, 척추디스크 및 교통사고 후유증등으로 찜질을 원하시는 분
- 야간근무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등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통상 렌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끓인 후 수건이나 헝겊에 싸서 사용하지만 희담석의 모든 찜질팩은 찜질 부위에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 주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희담석 허리 찜질팩 값 44,000원
희담석 어깨 찜질팩 값 66,000원
희담석 찜질팩 값 38,000원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22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이라고 부르는 이것. 우리하고 항상 공존하고 생성하는 '이것'을 아느냐 이겨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내외간에, 형제, 부모 자식간에 그 모진 소리, 독한 소리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은 못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내게 어떤 결과로 돌아 올 것인지 생각 안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족이 있느냐? 가족을 진정 사랑하느냐? 의문이에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원결(怨結)을 맺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극락과 지옥은 생활속에 있어

스님은 이어 세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며 나쁜 업의 무서움을 이야기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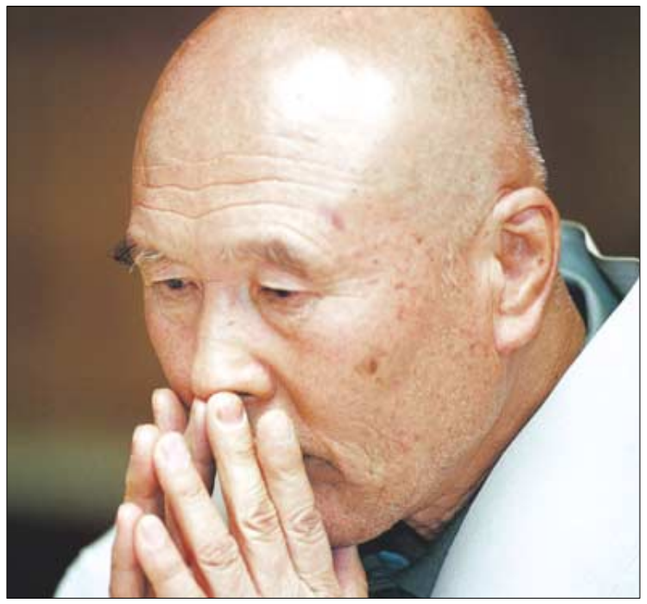
"불자들이 착각을 하해요.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이 (불을 탁탁 때리며)요거 없어진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내 가족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지내면 그곳이 극락이라는 생각 왜 안 해요? '너 때문이다' '네 잘못이다' 하고 매사에 따지고 들어뜯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 지옥과 극락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법당에서는 절 안 해도 된다, 아침저녁으로 내 가족들에게 3배해라, 부모 남편 아내 자식에게 서로 3배씩 꼭 해라, 그게 가장 진실한 예불이고 기도다, 아침저녁으로 꼭 그렇게 해라. 내가 늘 부탁해요."

스님은 얼마전 찾아왔다는 50대 거사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스님 책을 읽고 가족들에게 매일 3배씩 실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3배를 하려니 쉽겠어요? 일주일을 망설이다 이제 겨우 자기 방에서 혼자 가족들이 있는 방향으로 3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장하십니다!' 하면서 같이 웃었어요. 또 조계종 신도회장을 지냈던 울산의 처사님은 설날 아침 60평생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맞절을 했다 합니다. 말은 쉬워도 막상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법당에서는 무릎 안 굽혀도 좋으니 내 가족들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 가족에게 쌓인 원결 풀고 가족에게 복을 짓는 밑바탕이 된다!"

스님의 말씀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졌다. 이어 스님은 불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불교인은 어떻게 신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소 생각을 천천히 풀어 나갔다.



내결의 스승을 찾아 수행을 실천하는 것에 불교의 참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는 우룡스님.

"불교는 그 '나'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해서 내 육신을 죽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라고 점찍는 것, 마음, 그게 죽어야 불교인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두들 어디 절에 나가고, 어디 스님 법문 들었다하면 전부다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풀어야 하는 것은 결국 내 응어리입니다.

내가 억지소리 많이 해요. 부처님 말씀 팔만대장경은 당신이 사람이면 사람 자리에 서세요, 그리고 사람의 길 가세요, 그게 팔만대장경이라고 말해요. 불교는 벗어나는 게 목적이다, 해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른들이 생각해낸 방편이 염불 참선 주력 기도 간경입니다. 이쪽으로 생각을 집중시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의 응어리가 엷어지고 풀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 불교의 목적이 참선 염불 기도 같지만 이건 다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어쨌든 불교는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답답하면 염불 주력 화두라도 부지런히 해라 하죠. 부지런히 하다보면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가 분리된 정(靜)의 세계, 삼매라는 것을 한번 두번씩 겪으면서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마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가슴속 응어리 풀어야

이 우주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마운 것인지 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런 곳에 생을 받았다는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하고 복 받은 일인지 저절로 느껴지고 그것을 알게되면 불평불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 옆의 누구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어요. 불교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불교에 발을 들여 놓았다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실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지예요."

스님은 대화 내내 작은 '나'를 죽이고 큰 '나'를 살리는 일이 가족과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임을 거듭 강조했다.

경주=조용수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禪敎 겸비한 대강백

우룡 스님은 이날 3시간이 넘게 어린 아이를 가르치듯 기자에게 보살행의 어려움, 인정과 정성으로 채워진 불교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일러주었다. 하나라도 더 많은 가르침을 주기위해 애썼던 스님은 취재를 마치고 일어서는 기자를 향해 합장하며 "오늘 쓸데없는 넋두리 많이 했습니다"라며 빙긋이 웃었다.

스님의 말씀 끝날 무렵 불국사 강원 학장으로 있는 맏상좌 덕민 스님이 찾아 왔다. 우룡 스님은 문안인사를 온 제자에게 도리어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누구에게나 먼저 베풀고자 하는 평소의 자상한 인품이 그대로 드러났다.

1932년 일본에서 태어난 우룡 스님은 선과 교를 겸비한 선지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47년 고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3년 김천 청암사 불교연구원 전강을 시작으로 화엄사 법주사 범어사 강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대강백으로 오랜 세월동안 길러낸 제자들이 제방 강원의 교직자로 두루 활동하고 있다.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직지사 등 선방에서 정진한 스님은 울산 학성선원에서 20여년 넘게 납자들을 지도해오고 있다.

<불교신행의 주춧돌> <영가천도> <생활속의 금강경> 등의 책을 낸 스님은 쉽고 편안한 대중법문으로 신도들의 불교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승범 스님 (上)

승범(乘梵) 스님은 선암사의 상선원인 칠전선원(七殿禪院)의 선원장이자 선암사 주지인 지허 스님의 맏 상좌다. 지허 스님이 선암사의 대선지식이었던 선곡 스님의 지도와 소개를 받아 해인사 용탑선원, 통도사 극락선원, 동화사 금당선원, 주안 용화사 선원 등에서 안거를 한 것 빼고는 조계산을 떠나지 않았듯이 상좌인 승범 스님도 동진출가 이래 선암사를 벗어나보지 않았다.

선암사에서 이력을 마치고 금산사에서 개설한 화엄학림에 가서 공부한 기간을 빼고는 선암사 바깥 땅을 밟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해도 조계산과 선암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을 한다.

선암사를 한 번이라도 가 보았던 사람이라면



그림 · 문병성

스님이나 신도를 막론하고, 또 불교인이나 비불교인을 가리지 않고 선암사 안내 또는 불교 강의를 들었던 스님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사람으로 승범 스님을 첫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스님이다.

어느 날 승범 스님의 처소가 있던 심검당에 스물 대여섯 살로 보이는 아가씨들이 들어가더니 깔깔대고 웃어대는데 도저히 웃음을 그칠 수 없다는 기세였다.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 하는 나에게 아가씨중 하나가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내 입에서도 웃음이 배시시 배어 나왔다.

승범 스님이 뒤뜰에다 꽃씨를 심어 놓고 꽃말 표지판을 세워 놓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다.

"꽃이름: 봉숭아, 꽃말: 여루어서 못살것소…"

이렇게 써 놓았으니 아가씨들이 배꼽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보통 사람이라면 봉숭아의 꽃말인 '부끄러움'을 예사로 적었을 것이나 평생을 전라도 그것도 선암사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라 사투리로 써 놓았던 것이다.

"'여루어서'가 뭐예요?" 물으니 "아, 그것도 몰르요. 부끄럽다는 말 아니요, 고것이."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맛이 있소잉. 잭재금지 나름의 얼굴로 소리를 해대는디…" 그러면 아가씨들이 "잭재금이 뭐랑가요?" 묻고, 승범은 "아, 제 각각이라고 꼭 한자를 써야 알아묵것소?" 하면서 하나 둘 전라도 사투리를 가르쳐 주었다.

선암사가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叢林)인데다가 옛 모습을 손상치 않고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찰이다 보니 수련대회나 성지순례 및 연수 차원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다 선암사 역사 및 전각에 대해 안내를 받고자 한다.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 지쳐서 빼기도 할 법한데 승범 스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국의 관람료 사찰에서 선암사 승범 스님 만큼만 열정적이고 자세하면서도 재미있게 설명을 해 준다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교를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미확인의 신념이 있을 정도다.

선암사를 찾은 대중들을 대웅전에 앉혀 놓고 선암사 창건 유래와 역사를 이야기 해주고 대웅전 뜰방 위에서 밀짚모자를 쓰고 안내를 하면 누구나 귀를 쫑긋 세운다. 물론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가 사람들의 귓전을 사로잡는다.

"부처님이 주장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선암사 지킴이' 자타 공인 구수한 사투리 사찰안내 인기

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아라. 그런 말이 바로 이념의 꼬라지를 알아부러라~ 그 말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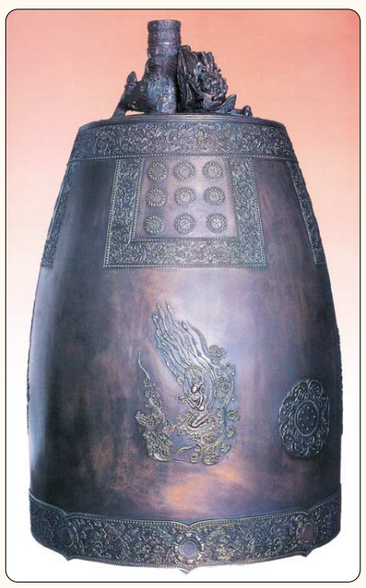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종교의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여러 종교가 포교나 선교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종교간의 갈등이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있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간 대화의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케이씨알피나 크리스천아카데미 그리고 유알아이(URI) 등의 모임이 그것이다.

작년에는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평화고리라는 작은 모임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젊은 종교인들이 여러 곳을 순례하는데 선암사를 마지막 코스로 잡아서 참배할 기회가 있었다. 서로 종교가 다르기는 해도 불교 예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108배를 하고 난 뒤에 선암사 안내 및 불교 이야기를 승범스님에게 듣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러 날을 보내고 여러 종교의 성지를 거쳐 오면서 사람들이 다 지쳐서 108배만 대충하고나서 잠이나 빨리 잤으면 좋겠다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승범 스님 앞에 앉았는데 스님 자신도 "한 이십분이나 하면 좋겠지요?"하고 의사를 물으면서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찌나 재미있고 유익하던지 청중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다 가셨다는 듯이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 더 해 주세요~"를 연발해 저녁 11시가 넘어서야 모임이 끝났다.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쓰는 설문 조사에 가장 재미있었던 곳과 가장 유익한 곳으로 선암사를 쓰고, 가장 기억나는 사람으로 승범 스님을 적었음은 물론이다.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 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서울역~송추~서울역 순환
교외열차 매달 6회 운영
라이브 카페 운영
파티 · 이벤트 장소로도 좋아



'환상의 야경열차 속 작은 음악회'. 야경열차 안에서 은은한 음악소리를 들으며 멋진 밤 풍경을 바라보는 것보다 멋진 추억이 있을까? 사진 제공=KTX 관광레저

서울 야경열차

낭만 싣고 추억만들기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애인과 황홀한 조명이 들어온 한강다리를 바라보며 한 잔의 칵테일을 마셔야지!"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열차 안에서 깜짝 파티를 한다면 열 번째 생일을 맞는 딸아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연인 가족 친구를 위해 영화 속 한 장면 같이 낭만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딱 알맞은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5월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낭만과 추억의 교외선 열차 구간을 활용하는 '야간 관광전용 열차'가 그것.

철도청 산하 KTX 관광레저는 지난 10월부터 서울역~신촌~수색~능곡~일영~송추~의정부~성북~청량리~응봉~용산~서울역 등 수도권 교외와 한강변을 끼고 한바퀴 도는 '라이브 카페와 함께하는 환상의 서울 야경 순환열차'를 매달 4 · 9 · 4 · 19 · 24 · 29일 여섯 차례 운영하고 있다.

환상의 서울 야경 순환열차는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차창 밖 야경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 편의 '작은 음악회'를 선사할 것이다. 움직이는 차창 속에서 늘상 무관심하게 건너다니기만 했던 한강 다리에 비친 아름다운 조명빛과 도심 빌딩 숲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추억거리를 제공한다.

정기 운행일이 아닐 때는 기업이나 이벤트 행사용으로 전세도 내준다. 출발지인 서울역에서만 승차가 가능하다. 라이브 공연 등 문화행사와 함께 야경을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다. 소요시간은 2시간30분 정도. 출발시간은 오후 7시 30분.

운행 열차는 무궁화호 특실 객차를 완전 개조한 것이며, 총 198석의 객차 5량 등 모두 7량이다. 가족실 및 단체실, 음향시설을 갖춘 이벤트실 및 카페룸, 일반 객차 등으로 구성됐다. 문의 (02)393-3100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야경열차 운행노선◆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9일 07:05 아침저널
30일 16:45 룸비니동산
1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2일 22:05 BBS신행상담실
3일 18:15 뉴스 파노라마
4일 20:05 김병조의 다시듣고 싶은 노래
5일 18:15 문화공감-상상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9일 07:50 명상음악산책
30일 16:50 향토음식기행
1일 23:40 한국의 명찰
2일 12:00 산중대담-선지식을 찾아서
3일 20:30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
4일 12:30 TV법회
5일 08:50 부처님경전이야기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박진선의 트롯시대(12월 4일 저녁 7:00~8:00) 추억이 묻어나는 이야기와 통쾌한 웃음이 있는 시간. 트롯가수들의 진솔한 인생 스토리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나의, 트롯인생' 코너도 마련돼 있다.

■**불교텔레비전**: 지운 스님의 대승기신론(12월 1일 오후 3:10~3:50) 지운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쉽게 풀어서 강의한다. 강의는 <대승기신론>의 총론 부분을 다룬 뒤 각론과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불교상품전문쇼핑몰 마하몰이 천연수분조절기 산호로 만든 108염주를 선보인다. 산호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바치면 사면받았다는 종교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보석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피부 수분 조절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 가격은 6만원, 8만원. (02)732-1520

산호 108염주



공연

이매방 춤인생 70년

12월 3 · 4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우봉 이매방 선생의 '승무'는 인간의 희열과 인욕의 세계를 담고 있다.

우봉 이매방 선생이 70년 춤인생을 결산하는 '칠순 전통춤잔치'를 12월 3 · 4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선보인다. '우봉 이매방 춤인생 70년 기념공연'은 그의 춤맥을 잇고 있는 김명자, 김정녀, 한혜경, 진유림, 임이조, 채향순, 김묘선, 최창덕 등 90여 명의 우봉전통무용보존회 제자들이 출연하는 대작 공연이다.

'승무'(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등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춤과 이매방 선생이 직접 창작한 '장검무' '기원무' '보렴무' 등 총 2시간30분의 공연 시간 동안 12작품의 춤을 선보인다.

호남형 '승무'를 구사하는 이매방 선생은 10여명의 제자들과 함께 '승무'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과 신명을 동시에 지닌 '살풀이춤'은 독무로 선보인다. 정적미의 단아한 멋이 일품인 이매방표 살풀이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불교 의식무의 춤사위와 조형미를 독보적으로 그려낸 창작무 '보렴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번 공연의 백미. 중국의 유명한 경극배우 매란방에게서 배운 대륙적 정취가 담긴 현란한 '장검무'와 신라시대 때의 전투적 성격이 희석된 시종 평화롭고 유연한 동작으로 연결되는 '검무'를 비교 · 관람하는 재미도 남다르다. 12월 3일 오후 7시 30분, 4일 오후 5시. (02)338-6420 강지연 기자

전시

근대조각 거장 3人3色

로댕 · 부르델 · 마이욜 작품 28점 선보여


로댕갤러리에 전시된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 세 번째 모형'.

서울 태평로 로댕갤러리에서 2005년 2월 6일까지 한국조각 형성기에 큰 영향을 미친 '근대조각 3인전'이 열린다.

인체를 통해 인간 내면의 정신성을 드러내고자 한 로댕과 조각의 건축성을 재발견한 부르델, 일관되게 여체의 아름다움을 탐구한 마이욜 등 서구 근대 조각가들의 작품을 비교해 볼 좋은 기회다.

로댕의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과 '나르시스' '앗상블라주:저주받은 여인과 무릎꿇은 여인' '지옥의 문, 세번째 모형' '칼레의 시민, 장 데르 나신상' '비극의 여신' 등 17점이 선보인다.

고대 그리스 로마조각에서 영감을 얻어 활기찬 구조를 만들어 낸 부르델의 작품은 '활을 쏘는 헤라클레스' '사포' '베토벤' '모자상' '과일의 여신' 등 6점이 출품된다.

마이욜의 작품은 '여인 두상' '꽃의 요정' '기대 누운 여인' '과일의 요정' '드뷔시를 위한 기념비' 등 5점이 전시된다.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된 작품을 갤러리 내에서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갤러리 드로잉'과 철사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철사 조각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미술교사와 함께 하는 어린이 아틀리에도 열린다. (02)2014-6552 강지연 기자

극장가



까불지마 / 코미디 / 90분
개봉예정일: 12월 3일
감독: 오지명
출연: 오지명, 최불암, 노주현
등급: 15세 이상

마침내 동팔을 만난 3인방. 딸 은지를 보살펴 달라며 동팔이 거래를 청한다. 벽돌, 개떡, 삼복 3인방은 얼떨결에 은지를 보살피며 보디가드가 된다. 한편 동팔을 음해한 야수는 동팔의 숨겨진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은지를 노리고 마침내 3인방과 대적하게 되는데….



포가튼 / 스릴러 / 97분
개봉예정일: 12월 3일
감독: 조셉 루벤
출연: 줄리안 무어, 알프레우 다드
등급: 15세 이상

"비행기 사고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당신의 상상입니다." 텔리(줄리언 무어분)는 아들 샘의 흔적을 확인하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지워진 비디오 테잎, 가족 사진, 백지 일기장뿐. 필사적으로 싸우던 그녀 앞에 단서 하나가 놓여지게 되는데….

20면 상식 퍼즐 정답

파	로	호		도		
사		반	신	반	의	
석			시		남	
탑	비				매	일
	상		별			심
	금	상	첨	화		동
		석		사	구	체

게시판

공부합시다

정토회 청소년 인도캠프 정토회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 대상으로 2005년 1월 19~2월 2일 청소년 인도캠프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둥게스와리 수자타아카데미 지역에서 현지 생활을 체험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02)587-8994

청소년지도자연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현성)는 12월 1~3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왜, 청소년분야와 기업이 함께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 48회 청소년지도자전문연수를 개최한다.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종규 소장(기업사회공헌연구소), 양용희 대표이사(엔씨스콤) 등이 강사로 나선다. (02)2667-0874

인체탐험캠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은 2005년 1월 3~15일 과학 인재양성을 위한 '제 2회 인체탐험캠프'를 개최한다. 캠프에서는 '첨단 인체모형 모델의 분리와 조립', '마네킹을 이용한 응급처치법, 인공호흡법',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현미경 표본 만들어보기' 등을 탐구한다. 지난 여름캠프 수료자 20명(심화과정)을 포함해 초등학교 5 · 6학년 대상(기본과정)으로 80명 선발. 수강료는 기본과정 18만원, 심화과정 10만원. 신청기간은 12월 10일까지. (033)250-8814

꿈나무 무료캠프 캠프 포털 캠프나라연합에서 겨울 방학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1004명의 학생들에게 캠프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꿈나무 천사 캠프'를 개최한다.

저소득층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상. 100명은 1박2일 캠프에, 904명은 일일 캠프에 초대된다. 12월 15일까지 선착순 1004명. www.campnara.net

함께 해요

사랑의 우유나누기 부산 몰운대종합복지관은 재가어르신 '사랑의 우유나누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 2~3회 배달이 가능하면 된다. (051)264-9033

영어교육박람회 아리랑TV와 국제영어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2004 국제영어교육박람회'가 12월 2~5일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린다. 박람회 홈페이지(www.englishexpo.co.kr)에서 온라인 초청장을 인쇄해 현장에서 제출하면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02)968-1382

불지회 회원모집 (사)불지회는 불교 포교와 사회봉사 등을 통해 불교문화 보급과 자비행 실천에 동참할 회원을 모집한다. (02)997-9468

장애인 정보화교육 부산 몰운대종합복지관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그래픽 기초, 홈페이지 제작, 웹디자인, 자격증 등 컴퓨터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051)264-9033

종이부인 展 한국화가 정종미 씨가 12월 3일까지 서울 동산방화랑에서 '종이부인'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고구려신화에 등장하는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 조선시대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에 등장하는 여인 등 다양한 한국 여성의 이미지들을 커다란 화판에 표현했다. (02)733-5877

대한불교교사대학 신입생 모집 대한불교교사대학이 7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규과정과 인터넷 과정이 있으며 어린이불교지도교사 자격증(조계종포교원), 졸업장,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활동 알선 등의 혜택이 있다. (051)852-0820

수험생 열린음악회 인천 챔버오케스트라가 수험생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12월 1일 오전 11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032)438-6040

세계불꽃축제 사진전 10월 9 · 16일 펼쳐졌던 세계불꽃축제의 화려한 모습을 담은 '2004 세계불꽃축제 사진전'이 12월 31일까지 63빌딩 전망대에서 열린다. 또 불꽃사진 작품을 엽서로 제작해 판매 수익금을 불우 이웃돕기에 사용하고, 관람객중 추첨을 통해 초대형 불꽃사진 브로마이드를 선물한다. www.63.co.kr, (02)789-5663

공공근로사업 신청 청주시가 실직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05년 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청주시청 경제과와 양구청 경제사회과에서 130명을 모집한다. (043)220-6081

여성의 광장 강좌 인천 '여성의 광장'이 IT전문가, 어학전문가, 한식이나 화훼 등 전문인력양성분야, 서양화나 사진 등 문화교육, 재즈댄스나 헬스 등 체육분야, 여성창업 등 취업 교양강좌를 개설한다. 12월 6~8일 모집. 강의는 내년 1월 6~3월 31일, 수강료는 6만원. www.incheonwp.go.kr, (032)815-7101

여성문화축제 여성문화예술기획은 12월 2~6일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김공주, 궁전예식장 접거하다'라는 주제의 여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결혼식 퍼포먼스. 동네잔치 이벤트, 체험! 신부대기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2)587-0590

즐겁게 떠나요

해인사 백련암 순례 불교문화유적답사회 옛돌불교문화는 12월 5일 당일상품으로 합천 해인사(사진)와 백련암, 홍제암, 원당암 등을 도는 성지순례 상품을 내놨다. 회비 4만2000원. 오전 8시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02)924-3311



신행수기

관세음보살의 가피력 〈하〉

김해인 (서울 노원구)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정성을 다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외손자 목숨을 구해 주십사' 고 합장 정근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있는 다른 중환자 보호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관음 염송 기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제가 정년퇴직하기 이전이어서 낮 근무시간에는 빠져 나오기 힘들었기에 저녁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퇴근 시간에 병원에 들러 중환자실 앞에 대기하고 있는 여러 보호자들에게 "불교를 믿는 분은 문 앞으로 오시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영험을 담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법문을 읽어 드렸습니다.

"만약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가령 큰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리니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만약 큰 물에 표류하는 바가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리라.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서 금 · 은 · 유리 · 자거 · 마노 · 산호 · 호박 ·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폭풍이 그 배에 불어 닥쳐 나찰귀국(羅刹鬼國)에 표류해 닿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에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만약 삼천국토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악귀가 오히려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든 하물며 다시 해치려 하겠느냐. 가령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채우고 칼을 씌우고 쇠줄이 그 몸을 결박하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벗어나게 되리라.



그림 · 문병성

매일 세차례 108배와 관음기도 1주일 지나자 "기적적으로 회복"

이 보살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대들이 만약 명호를 부르면 이 원적에서 마땅히 벗어나게 되리라"

차근차근 읽은 후 관세음보살의 명호만 불러도 그 영험과 공덕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중환자들이 하루바삐 회복되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기원하며 염불을 드립시다"라고 제의해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 〈반야심경〉 독송과 관음정근 염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해간 〈법요집〉을 나눠 주고 제가 선창하면 뒤따라 염송하도록 시범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낮, 저녁에 세 번 씩 하자고 제의했더니, 사위와 딸애는 매일 아침 저녁에 교대로 병원 가까이 있는 봉원사에 가서 108배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절에도 가고 중환자실 앞에서도 하고 해서 관세음보살님께 철석같은 굳은 마음으로 매달리자" 고 했더니 동의해 줬습니다.

아침과 낮은 제 사위와 딸이 중심이 되어 관음 염송 기도를 올리고 저녁에는 제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염불기도를 계속한 지 1주일 쯤 되었을 때 외손자 담당의사가 "이상하다"면서 일반 입원실로 아기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와 딸, 우리집 가족 모두 너무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말하기를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에 최선을 다 했으니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포기한 상태였는데 회복한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원인은 의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살핌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병원이고,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도 거의 기독교인이므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응보(因果應報)로 관세음보살님께 올린 염불 기도의 과보임을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손자는 점차 호전되고 열흘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을 것이라' 고 여겼던 외손자가 완쾌되어 현재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감기 몸살 정도의 잔병은 앓았으나 그래도 잘 자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되어 공부를 잘 하며, 학급 반장 일도 맡아보고 특별활동으로 피아노 레슨과 영어 회화 등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발달된 현대 의학으로 소생시킬 수 없다고 포기했던 제 외손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온 가족이 관세음 보살님께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관음 기도의 가피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딸애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그 때 중환자실 앞에서 관음정근을 같이 한 중환자의 보호자 한 분을 종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뇌진탕으로 입원했던 자기 남편도 소생하여 건강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동안의 소식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21세기의 과학 만능시대라 할 지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모두 대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가르침인 불교를 신해행증(信解行證)합시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⑦

묘사와 서사

사물의 현상 · 변화과정 등 정확히 전달되게

1. 묘사란

묘사는 어떤 대상적 사물의 현상을 보고 듣고 관찰하여 그 인상을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서술의 한 양식이다. 실제의 상황이나 실제의 경치를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맛보게 하기 위한 표현이다.

우리는 누구나 슬프든 즐겁든 의식이 '어떻게' 든 반응하지 않고는 그 진미(眞味)나 진경(眞境)을 표현해 내기 어렵다. 그 '어떻게' 를 알려면 감각해야 한다.

①눈이 유리창에 내리고 있다. ②싸락눈이 유리창에 부딪치고 있다. ③싸락눈이 유리창에 싸라기처럼 싸락싸락 부딪치면서 나뒹굴고 곤두박질을 치다가는 또르르 또르르 굴러서 토방 위에 새하얀 떡가루처럼 소복이 쌓이고 있다.

위와 같이 묘사의 정도는 ①문보다는 ②문이, ②문보다는 ③문이 더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다. ③문에서는 세부적인 인식과 묘사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실제로 그 대상을 보는 듯 그려진다.

유의할 점은 ①객관적일 것. 냉정한 관찰을 거칠 것. ②정연할 것. 시간과 공간상의 순서를 지킬 것. ③대상의 요점과 특색을 가려 거두는 반면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한다.

2. 서사(敍事)란

서사는 사건의 진행, 사물의 변화 과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모두 무엇인가의 '움직임' 이다. 그런데 움직임은 반드시 '시간' 의 추이에 따르게 마련이다. 서사는 단순히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떤 움직임을 그려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움직임의 무언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움직임' 과 '시간' 과 '의미' 는 서사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자세한 내용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릴레이 수행일기 (上)

금강경>이야말로 생활불교의 의전(依典)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성학

능인선원 IT본부

내 양복 안쪽 호주머니에는 항상 〈금강경(金剛經)〉이 들어있다. 1979년 정음사에서 출간된 문고판인데, 나는 이 책을 8년 전 신림동 헌책방에서 500원에 구입한 후 지금껏 지니고(受持) 다닌다. 인연으로 따지면, 사람과의 인연, 물건과의 인연, 장소와의 인연 등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이 〈금강경〉 소책자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그동안 표지가 헤져 비닐 책표지를 두 번 새로 쌌다. 〈금강경〉을 가지고 다니며 일상생활에서 출퇴근 혹은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것이 내 수행의 요체가 된 셈이다.

정신없이 바쁜 재가불자들이 수행을 위하여 매일 시간을 낸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다. 또 이렇게 매일 수행에 해본 재가불자들이라면,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본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무슨 수행이든 재가불자인 내게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이었고, 한 달 이상 끌고 가기가 힘들었다.

8년전 헌책방에서 구입한 '금강경' 매일 뜻 새기며 읽어…하심 생활화

그래서 게으른 성격상 나름대로 찾아본 방법이 바로 하루 아무 때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경전 읽기' 였다. 나는 이것을 간경수행(看經修行)이라 부른다.

간경수행! 구태여 독경(讀經)과 구분하자면 독경은 뜻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음만 읽는 것도 공덕이라 하여 포함시키지만, 간경(看經)은 '볼 간(看)이라는 한 자가 손(手)을 눈(目) 위에 대고 읽는다' 는 것처럼 경전의 의미를 마음으로 되새기며 읽는 수행이다. 얼마 전 열반하신 일타 스님도 불교 4대수행법 중 의미를 알고 읽는 간경수행법을 의교관행문(依敎觀行門)이라 하여 중요하게 여겼다.

내가 〈금강경〉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 것은 1996년 가을 서울 신림동 연화정사에서 한정섭 법사로부터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된 때부터다. 나는 고향인 광주 관음사에서 상인 스님으로부터 학륜(學輪)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현실불교에 회의를 느껴 한동안 불교를 멀리했었다. 여러 사상적 방황 끝에 재발심해 다시 절을 찾은 날, 마침 한 법사의 〈금강경〉 강의는 마음의 고향을 다시 찾은 것과 함께 그간 느슨했던 내 마음에 우레와 같이 다가왔다. 〈금강경〉이야말로 생활불교의 의전(依典)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윗사람에게는 하심을, 아랫사람에게는 공경법을 길러주는 경전중의 경전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이후 난 〈금강경〉을 더욱 파고들었다. 본격적인 수행방편으로 〈금강경〉을 읽게 된 것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계기가 됐다. 1997년 겨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는 선배가 49재 동안 매일 〈금강경〉을 읽어주면 공덕이 된다고 해 어머님에게 읽어드렸다. 이후 습관이 되어 지금까지 계속 읽고 있으면서 〈금강경〉이 수행방편일 뿐만 아니라 망자에게도 공덕경(功德經)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금강경〉은 읽어볼수록 묘미가 다르다. 그런데 왜 유독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 3국에서 예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읽고 연구했을까? 그것은 대승불교에서 반야지혜야말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불교의 핵심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이고, 〈금강경〉이 바로 반야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은 환희심을 느껴 직장동료, 불교동호회 회원들에게 〈금강경〉 소책자를 수십 권 사서 보시하기도 하였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금강경〉을 한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매일 금강경을 읽어보자. 따로 시간 내기 힘든 분은 소책자도 좋다. 간경(看經)은 눈과 귀를 넘어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수행법이기에 그렇다. (계속)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누비
- 면누비(먹물)
- 모직누비
- 물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동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먹물, 면

장삼, 가사, 조끼 몸빼, 셔츠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기공안내 氣功案內

- ♠도(道)를 닦거나 기공수련의 기초 관문인 **경락소주천(經絡小周天)** 운행을 기공사가 직접 **1개월 이내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 ♠**11~13세 미만** 아이들에게 대뇌를 개발하고 **인체투시(천안통, 천이통)**기능을 1주일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기억력, 창의력 증가)
- ♠**6세 미만 벙어리** 아이들을 말을 하게 하고 **16세 미만의 간질병** 아이들을 경기 뚝, 확실합니다.
- ♠**얼굴형 교정**(광대뼈 두드러지고, 넓은턱), 거칠은 피부, 검은피부를 부드럽고 예쁜 하얀 피부, 얼굴로 바꿔 드립니다.
- ♠**불임**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아기를 낳고 싶으신분) 해결해 드립니다.
- ♠**척추디스크, 심혈관 계통(혈액순환기 계통), 소화기 계통,** 난치병(폐장암, 위장암, 대장암, 당뇨, 뇌졸증, 관절염)등 중병 질환에 특수한 인체조절, 예방효과가 있는 **氣功 수련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 ♠말로, 책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성명쌍수(性命雙修) 수련법 진수**를 전수해 드립니다. **경락소주천**과 **대주천**을 완벽하게 운행할 수 있는(인연이 닿는 분은 3개월 이내) **기공사**(기공치료 의사)를 양성합니다.

무료 상담 환영

대불통령내단공(大佛通靈內丹功)修練院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오피스텔 1212호 (교대정문사거리)
TEL : 02)3471-7277
H · P : 016-299-4864 / 016-214-4864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화로들. 조선시대 돌화로(맨 왼쪽, 가운데)와 백동화로.

차화로란 숯불을 피워 차솥이나 탕관(湯罐)을 올려놓고 찻물을 끓이는 다구로, 흔히 다로(茶爐)라고도 한다. 옛날 우리네 가정에서 화로는 유일한 보조 난방기구이자 간단한 취사도구로 쓰였다. 겨울이면 으레 아궁이에 타다 남은 숯불을 재와 함께 화로에 담아 방안에 두어 밤을 굽거나 물을 끓였다. 요즘에는 차화로를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통 다례의식 시연이나 다례 발표회 때에만 사용한다.

차화로는 크게 바람구멍이 없는 화로와 바람구멍이 있어 불을 세게 피울 수 있는 풍로로 나뉜다.

바람구멍 유·무에 따라 구분
전기기구들 범람으로 설 자리 잃어

재질에 따라 진흙으로 만든 질화로와 은화로(銀火爐), 놋화로, 무쇠화로 등이 있고 풍로에는 흙으로 만든 전로나 곱돌로 만든 것 등이 있다. 석재화로는 열에 강하고 온기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공이 어려워 주로 활석(滑石)이나 곱돌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숯불이나 섶나무를 피우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크롬이나 스테인리스로 만든 전기열선 혹은 알코올 램프를 넣어 사용하는 화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차화로는 추운 겨울날 찻자리에 훈훈함을 더하는 중요한 차도구입니다. 생활방식도 변하고 다양한 전기기구들이 쏟아져 나와 설 자리를 많이 잃었지만, 은근하게 찻물을 끓이는 차화로 하나가 찻자리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0여 년간 전남 무안에서 작품 활동을 펼쳐 온 정철수 대표. 그동안 분청사기에 전념해 온 그가 잊혀져가는 차화로의 전통을 잇기 위해 올해 봄부터 차화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과 다도 강의를 하고 있는 부인의 찻자리를 좀 더 아늑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 찻그릇 보다 훨씬 굽이 두껍고 큰 차화로를 만드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장작 가마의 열을 너무 높여 화로가 터지거나 깨지는 경우도 수차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야 '그럴듯한' 차화로가 완성됐다.

정철수씨 인사동서 '차화로전'
자연재질로 질감 표현, 정형화 탈피

정 대표는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두드리거나 눌러서 차화로를 만든다. 단조로움과 정형화를 피하기 위해서다. 화로의 겉면에는 돌맹이나 나뭇가지 등을 두드려 자연스러운 질감을 만든다. 이러한 질감 때문에 그의 차화로는 언뜻 보면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작품은 30여 점. 아직 작품이 무르익지 않아 전시회까지 열 계획은 없었지만 지인들의 요청으로 전시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에서도 차화로 전시를 하고 싶다"는 정 대표는 "처음 차화로를 만들어 시행착오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빨간 숯을 피운 차화로 위의 솥에서 보글보글 물이 끓는다. 조심스레 물을 따라 차를 우리면 방안 가득 차향이 번진다.

많은 차도구 중에서 겨울이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차화로다. 물을 데우고 찻자리에 온기를 더하는 차화로.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전기 주전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겨울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잊혀져가는 차 도구인 차화로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도예가 정철수 씨(55 · 몽평요 대표)가 인사동 나눠요 갤러리에서 12월 1일까지 펼치는 '차화로전'을 통해 차화로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몽평요 정철수 대표(맨 왼쪽)가 '차화로전'에서 선보인 차화로와 차솥. 사진=고영배 기자

茶 단신

보성군, 中 선양시에 녹차 직판장 개설

전남 보성군(군수 하승완)은 11월 19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소자둔(蘇家屯)구에 보성녹차 직판장을 열고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중국에 직영 특산품 직판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양시 번화가에 위치한 20여 평의 녹차 직판장에서는 대한다업과 보성녹차테크 등 보성지역 녹차관련 업체 9곳이 생산한 55개 품목인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군은 직판장을 내기까지 4차례의 시장조사를 통해 생잎차 보다는 녹차 캔과 티백, 녹차비누, 마사지용 녹차가루, 녹차강정 등 녹차가공품 위주로 수출품목을 주력 상품으로 선정했다.


전남 보성군이 11월19일 중국 선양시에 문을 연 녹차 직판장 내부 모습.

군 관계자는 "보성 녹차가 중국차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나 상품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국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 음료수 대용으로 녹차 캔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직판장 개설로 연간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성군은 1999년 소자둔구와 자매결연한 것을 계기로 두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직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다.

박순관 씨 '수레질 찻그릇 이야기' 展

경기도 하남시에서 도예공방 거칠뫼를 운영하는 박순관 씨의 초대전 '수레질 찻그릇 이야기'가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옹기 성형 기법인 수레질을 이용해 만든 질박한 느낌의 찻그릇과 항아리, 옹기 굴뚝, 화병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053)426-1515 여수령 기자



삼국시대 ⑥

신라, 삼국통일하며 음다풍습 계승·보급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고 통일되어 신라는 두 나라의 음다풍습은 물론 제반문물을 자연스럽게 계승하게 되었다. 선왕들의 제례에 차를 올리고 불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차는 여염으로까지 넓어졌다. 왕궁과 사찰에서 차를 마시니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따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불전(佛殿)과 조상신에게도 차를 올렸다. 제물(祭物)은 제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먹는 것이니 저절로 차를 마시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대외적인 교류 못지않게 일반인들에게 차가 많이 보급되어 음용되기 시작한 때라 하겠다.

현재 출토된 유물 중 자명(字銘)이 있는 찻그릇이나 질그릇 편을 보면 나라에서 차를 전담하여 마시는 곳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전과 조상신에게 차를 쓰니 여타의 제사에도 차를 썼고 그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게 됐다. 따라서 이 시기는 차가 많이 보급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때라 하겠다.

① 문무왕은 모계(母系)가 가야쪽이므로 수로왕 17대손 갱세급간에게 매년 명절마다 술, 떡, 밥, 차, 과자 등의 제물을 바치게 했다.

② 남의 의복과 음악을 배운다면 음다풍습이 옮겨온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③ 1975년 임해전지에서 '언정다영(言貞茶榮)'이라 쓰여진 토완(土碗)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신심용왕(辛審龍王)' 명의 찻그릇도 나왔다.

④ 삼국의 통일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음다풍습에 새로운 형태의 차생활과 다구가 첨가되었다.

⑤ 오대산에 들어가 수도한 보천과 효명 두 왕자가 매일 같이 문수보살에게 차를 올렸다. 〈삼국유사〉

⑥ 설총이 쓴 〈화왕계(花王戒)〉에 "차와 술로서 정신을 맑게 한다"고 했다.

⑦ 영광, 안상, 술랑, 남랑의 네 화랑이 선도(仙道)를 닦으며 다닌 행적으로 강릉에 한송정, 우물과 석지조(石池竈)가 남아 있었던 기록이나 시문(詩文)이 많이 남아있다.

⑧ 행기(行基, 668~749) 스님이 일본 안의 49개 소에 차나무를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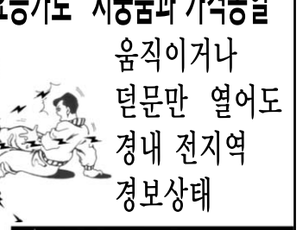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삼국시대	655 일본에 150명의 사신 파견	655 백제정벌(소정방)	
	660 백제 멸망	657 낙양천도	
	661 수로왕릉에 제례를 올리게 함 ①		
	664 당의 의복, 음악 등이 보급(신라) ②		
	668 고구려 멸망, 선왕들의 묘에 삼국통일을 고함		
남북국시대	670 의상 스님 당에서 귀국, 검모잠의 고구려 부흥운동	674 당, 유인제를 보내 신라를 공격	672 임신의 난
	671 고구려 상부(上部), 대상(大相) 등이 도일		@ 성무천황 때 차를 베풀다 〈화사시다사담(和事始茶事談)〉
	672 낙산사 창건		
	674 임해전(안압지) 조영 ③ 당의 신라 공격		@ 행기 스님 ⑧
	676 부석사 조영, 삼국통일 ④		
	679 사천왕사 낙성		
	682 감은사, 중원칠층석탑		
	@ 대산오만 진신(臺山五萬眞身) ⑤		
	690 〈화왕계(花王戒)〉 ⑥	690 무측천의 등극	
	691 백률사 건조		
	695 원측(圓測)이 당에서 〈화엄경〉 한역		
	698 발해 건국(대조영)		
	@ 사선(四仙)들의 유적 ⑦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 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법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을 교육하고자 2005년 신입생을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총 2년 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원)
❶ 학년 과정
● 사 물 : 목탁.요령다루는법
● 송 주 : 도량석.종성등
● 예 경 : 향수해례.사성례.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 권 공 : 사시불공.삼보통청.퇴공.각단불공등
● 재의식 : 49재 및 천도의식.시달림등
● 시 식 : 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구병시식.일반시식등
❷ 학년 과정
● 상주권공 : 할향.등게.합장게.고향게.개게.세수게.복청게.사방찬.참회게.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39위).상단권공.중단권공.관음시식.봉송회향(49재 및 일반천도의식)
● 바라춤 : 요잡(막바라).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 나비춤 : 도량게.다게.운심게.욕건이(옴남).사방유신
● 사 물 : 태징.북.요령.목탁(전통의식타법)
● 특 강 : 향화게착복.가지게.괘불이운.종사이운.점안의식 등
2. 개강일시 : 2005년 3월중 (1학년 매주 목요일 오후2시-6시까지 2학년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편입가능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10만원 (교재비 포함), 월10만원
5. 강의장소 :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8. 접수기간 : 2005년 2월 25일까지
9. 연 락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 교육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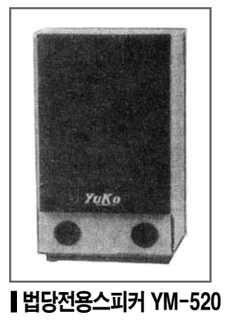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모든 것을 안으로 찾고 안으로 굴려야

법문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문 마음공부를 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스님께서 펼쳐 놓으신 법문을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보거나 듣게 되면 왠지 모를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내가 그런 소리 잘하죠.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쳐짐으로서 불이 들어온다구요. 둘 아닌 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물은 예도 없고 대답한 예도 없는 겁니다. 말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큰 에너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에너지를 불리고 또 쓰고 또 불리고 하는 것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력이 얼마나 크면, 즉 말하자면 엄마들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거와 같이 이 은하계에서도 그렇게 한번 터지면 수없이 나오는데 그 뒤로 또 그게 모여서 새로 나온 것은 크고 나중엔 늙어서, 사람이 늙으면 옷을 벗듯이 원소가 나오면 그 원소끼리 또 모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도리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주인공이라는 샛별을 진짜로 믿는다면 연방 통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멀어도 먼 사이가 없고 가까워도 가까운 사이가 없고 가고 옴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까우면 가고 옴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 에너지는, 금방 우리가 말을 했다면 그 말은 보이지 않게 했는데 보이게끔 나타났다 건져졌다 이익하게 됐다 하는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가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상관이 없는 거죠. 우주 안에 전체가 다 그런 거니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이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름 모르더라도 좋아요. 이름을 알고 한다면 벌써 이미 늦어지니까요. 6·25 때 보니깐 사람이 먹고 체했는데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을 때, 그러면 의사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없을 땐 어떡하느냐? 그래서 말없이 그 체기가 낫게끔 하는 것이 원력인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

문 종교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불교다 기독교다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등, 종교가 사람을 참되게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교에 의해서 아픔과 상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참다운 역할과 종교를 믿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우주의 근본이 한 사람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전체의 공에서 내 마음 자체가 그대로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그거고 그것도 그거다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불교라는 것도 이름이고 기독교라는 것도 이름뿐인 것이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것은 이름뿐이지, 진짜 인간이 공심으로서 공생하고 공식하고 있고 공체로 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으나 만약에 그 도리를 몰라서 지혜를 펼치지 못한다면 건건이 걸리게 되죠. 마음이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데서 멈춰지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가 믿는 종교가 절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불교로서의 절대적이라는 게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건건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기독교인이면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교인이라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들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는 체험해서 둘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서 감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둘이라고 볼 때는 반드시 일은 일어나죠. 상대가 있고 내가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상대와 나와 둘이 아닐 때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스님이 아주 도가 높으신데, 마적 두목이 칼을 들고서 "당신 속에 뭐가 그렇게 묘한 게 들었는지, 보물이 들었다는데 당신의 가슴 속에 내가 칼을 넣는다면 안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째 보겠다고 했는데, 가서 째 보려고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추운 겨울 날씨에 고목이 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스스로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을…. 고목을 잘라 봤던들 그 속에서 꽃이 나오겠느냐?"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적 두목도 그 스님한테 마음을 숙이면서 겸손하게 몸도 숙였답니다.

마음이 숙여지면 몸도 저절로 숙여지죠. 그 마음이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얼어붙으면 겨울과 같습니다. 아주 잔뜩 얼어붙은 얼음과 같아서 마음이 녹질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우니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삶을 보람되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공부라는 것은 한 쪽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은 버려야만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 또 좋은 것만 해야만 불법이라는 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런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파악하고 우리가 그 진리에 의해서 순응하면서 항상 자유스럽게 내가 촐나촐나 나투면서 생동력 있게 그것을 용(用)을 하면서, 계발하면서 좀 더 삶의 보람을, 우주의 섭리를 한꺼번에 쥐고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각기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하고 그저께도 말하고 만날 앉으면 되풀이하는 말입니다만, 되풀이를 삼 년을 하고 나도 영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삼 년이 되던 해에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되풀이 안 하겠습니까? 되풀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어차피 우리는 되풀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면서 우린 역력히 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체 만물이 다 물질적인 자체가 허망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렇게 계발되면서도 아주 화합적이고 화합하면서 자비스럽게 나갈 수 있는 생동력,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공용으로서, 공심의 능력으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어저께가 오늘이고 어저께 한 것을 오늘 갖다가 함으로써, 둘이 아님으로써 내일의 개발이 오늘의 개발입니다. 오늘의 내가 한 생각 내지 않았다면…, 나쁘게 냈든지 좋게 냈든지 내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소나무가 사철 푸르듯이
항상 청새와 같이 푸를 수 있어

음이 봄이라면 산천초목은 조화를 이루고, 향기롭게 푸르고 말입니다. 물은 유수와 같이 흐르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그렇게 흐를 뿐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도 봄이라면 그렇게 푸르고 조화를 이루면서 도도하게 강물은 흐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맥이나 동맥이나,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오르락내리락할 때 몸에도 이롭고, 벌써 어떠한 감정이 나서 그것을 편치 못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을 잊지 못하고 꼬부리고 있을 때는 그것이 차차차차 조금씩 쌓이다 보면 병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됩니다. 봄이라야 생동력 있게, 즉 말하자면 저 산천초목이 푸르듯, 소나무가 겨울 여름이 없이 항상 사철 푸르듯이 마음이 항상 청새와 같이 푸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지혜로우니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삶을 보람되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꼭 하룻밤 자야만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일을 저질러 놨든지 또는 일을 잘해 놨든지 수습을 해 놨든지, 바로 오늘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이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이 이따가 다가오는 거, 어저께 해 놓은 것이, 아까 해 놓은 것이 지금 다가오는 것, 이것이 모두가 삼심이 바로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살고 있는 생활이니만큼 그 생활을 떠나서는 불법도 없고 기독교도 알라신도 모두 종교라는 것은 이름이지, 생활을 떠나서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 떠나서 부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

그러니 모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점도 많지만, 그전에도 그런 얘길 했죠. 서대문 위에 능금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쪽을 지나서 얼마 안 가면 산모퉁이에 그전에 일본 사람이 짓고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방에서 죽는 게 아니라 꼭 바깥에 나와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흉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집에서 잘 지냈는데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팩팩 그렇게 죽었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그 도리를 그래도 웬만큼이라도 알아서 한데 뭉칠 줄 알고, 한데 뭉쳤다가 다시 뭘 줄 알고, 폈다가 다시 웅그릴 줄 아는 사람이 들여놨다 내놨다, 내논 것도 없고 들여놓은 것도 없이 들이고 내는 것이 유유히 자유스럽게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사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을 사 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애들을 유학도 보내고 그 집을 팔아 가지고 딴 데서 살지만요. 그 사람네가 그 집을 흉가에서 살 수 있는 집으로 면해 놨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 한생각에 달려 있는 건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부딪치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어떻게,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깨달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에 의해서 나고 드는 것이 공에서 나왔다 공으로 든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으로 찾으며 모든 것을 안으로 굴리면서 내고 들이는 것이 내 안으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또 오관을 통해서 내고 들이는 것이, 바로 오관은 문이란 말입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그래서 잘 정돈하고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책정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생각에 일체 신이 들어 있으니까 이 종교를 믿는다 해도 아니요 저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기에 달린 거다 이 소립니다.

내가 그 도리를 안다면,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고 마리아가 될 수 있고,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법신이 될 수 있고 보신 화신이 다 될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나누어서 말할 건 없죠. 허나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좋겠는데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면 서로가 저쪽에서 조금 세면 이쪽이 집니다. 우환이 생기죠. 저쪽에서 세면 이쪽이 우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서 만약에 부처님의 참 뜻을 잘 파악할 줄 안다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든, 기독교 믿는 사람이 세를 들었든 그것을 다 커버해 나갈 수 있어요. 그걸 다 나로 돌려서, 하나로 돌려서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불교를 믿는다고 미워해도 이쪽으로 와서 화살이 맞을 수 없어요. 그건 자기의 생각들이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쪽에서도 자비심이 없고 법으로 나간다면 화살은 여기 왔다 다시 그쪽으로 되갑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보살행이라' 이러는 것은 내가 그 도리를 완전히 안다면 그 화살이 나한테로 온 것이 그리로 다시 가서 맞게 하지도 않고, 항상 굴리면서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 큰 강물에 똥물이 들어가든 흙물이 들어가든 빗물이 들어가든 항상 한 강물이 되듯이, 그렇게 마음의 지혜를 넓히고 상대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크다면 아무하고 같이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도량이 넓지 못하다면 무슨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금 있는 데 무쇠가 갈리 없고 또 무쇠 있는 데 금이 갈 리 없고, 세상 진리가 그러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생각하는 대로 지혜가 넓고 적고 이런 데서 오는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바람을 거스르는 향이 있다는데…

문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바람을 거슬러 가진 못하는데 거슬러가는 향도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지요?

답 질문 잘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섯 가지 마음의 계향(戒香)을 마친다면 자재천(自在天)에 들어 아주 자재로이 계율을 더했다 덜했다 할 것도 없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도 없을 것이니라. 성불을 한다 못한다도 없을 것이니라. 여자 남자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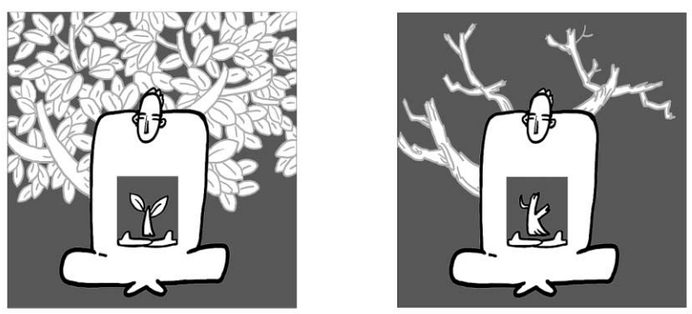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것이든지 다 놔서 다 버려야

☞29면에서 계속

도 없을 것이니라. 길고 짧음도 없을 것이고 어제 오늘 내일도 없을 것인데, 그 까닭은 수행을 다 끝마쳐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나왔으면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고 일체 만법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증오도 미움도 없을 것이고, 세상 법에 누(累)가 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도 없이 계율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니까,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기고 들고 나고 하는 걸 알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 잘되게 나오는 것도 그 자리라고 믿고,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는, 패기 있게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늚으로써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면세계와 물질세계를 둘로 보지 않는 관찰 체험,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셋째입니다.

또 넷째는, 그렇게 둘이 아니게 관찰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가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자생중생의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얽히고설킨 그 무명이, 묶여 있던 것이 스스로 풀어진다 이겁니다. 묶였던 게 스스로 풀어지고, 풀어지니까 여여하게 다스리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나에게 닿기만 하면 그 무명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다섯째,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삼라만상, 그 만물만생을 마음으로 항상 느끼죠? 느끼고 보살핌이 항상 밝아요. 여여하고 항상 밝고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구족(具足)함을 해탈지견향! 거기까지 마쳐야만이 여자 남자도 없고, 더하고 덜함도 없고, 즉 말하자면 성불을 한다 못한다도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도 없고, 계율을 잘 지킨다 못 지킨다도 없이 자재천(自在天)에 들어서 자유롭게 나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고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는데, 거슬러 가는 향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랬는데 그것은 다섯 가지 계향을 마치고 난 뒤에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요, 둘째는 전체 놓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놓고 가듯이 말입니다. 어떤 거든지 다 놔서 다 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다 놓는 거예요. 다 놔서 다 얻는 것을 둘째라고 한다, 다 놓게 되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문제가 나와요.

셋째는 다 놔서 다 얻었다면 모든 일체 중생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천차만별로 달라고 하더라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완결돼야 바로 바람을 거슬러 가는 향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기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바람을 거슬러 가는 향도 그 다섯 가지의 계율(戒律)을, 마음의 계향을 다 마치고, 또 세 가지 조건까지도 마치고 난 뒤에야 거슬러 가는 향이 있으니 그때 가서는 거슬러 간다 거슬러 가지 않는다도 없는 것이죠. 사방팔방에 모든 향음이 어느 법계에나 어느 중생에게나 닿지 않는 데가 없기에 종소리가, 종을 치면 종소리가 났는데 그 종소리를 일체 만물이, 만물만생이 다 듣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문제요. 발전시키려면 이롭게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까지 마친 사람에 한해서는 사방이 툭 터졌을 것이요, 지붕도 없을 것이요, 땅도 따로 없을 것이요. 그러니 평등공법(平等空法)이면서 활궁공법(活宮空法)이면서 또는 수레공법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평등한 공법(空法)이요, 맷돌 얘기 가끔 하죠? 맷돌 추는 움죽거리진 않아요. 곡식을 갈아 낼 때에 맷돌 추가 움죽거리는 게 아니라 힘만 가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 놓는다는 게 어느 물건이든지 다 맷돌에다 넣어서 갈아 내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그 추는 바로 움죽거리지 않는 불성을 말하고, 움죽거리고 돌아가서 갈아 내는 것은 법을 말하고, 또 할 수 있는 마음 자체의 다스림은 바로 갈아 내는 이걸 말하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했으니 진짜 여러분의 실상이면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고 '나는 몰라서 그렇고, 업보가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세요. 자꾸 의식적으로 돌아가니깐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생활을 떠나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함이 없이 하라는 뜻은?

문 함이 없이 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한 식구라도 원망을 하고,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모두 남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건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아갈 때가 많죠. 근데 따지고 보면 각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남의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그렇게 안다면,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 더불어 둥글려서 나오고 또 그걸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러지 않고도, 몸을 가지고 그렇게 애 쓰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잘나잘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함이 있이 하며, 우리가 삶이 있이 사는 겁니까? 삶이 없이 사는 겁니다. 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모두가 공했다고 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살고 이렇다는 게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뻔히 알기 때문에 함이 없어요.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고 사시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이거를 원망하고 저걸 원망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느라고 사는 재미가 없이 살아요. 그게 사람이 어디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더라도 저 건너 산이 보이면 내 정원으로 생각하고 거길 갈 수 있고 그래야 되겠죠.

이런 소리 하면 좀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겠지만, 어떤 선지식이 병원에 가서 다리를 수술하러 니깐 몹시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릴 떼어 놓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더니 얼마 있다가 깨어나시라고 자꾸 건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나 보다 그러고 얼른 와서 자기 몸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깐 다 됐더랍니다. 그래서 아픈 걸 면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경험을 해 보지 않고는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어찌 말로 새록새록 다 하리까. 사람 사는 데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삶이 있다고 단정 지어서 몇 마디도 할 수가 없죠.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죠. 귀정지어 놓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닿다가도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닿다가 생기면 가다가 뗏목이 걸쳐 있으면 그냥 한다 안 한다도 없이 그거 치우고 갈 겁니다.

49재와 100재에 대해서…

문 사찰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분을 위해서 49재와 100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49재와 100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답 사십구재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사십구재라고 뜻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를 갖다가 놓고 볼 때 동서남북이 한데 합쳐서 사방천, 이렇게 할 때는 법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 들어가면 질문을 하죠? 문제의 답변을 받고 전부 쓰고 그렇게 해서 모두 그걸 가지고 법을 청하죠. 그거와 같이 49재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문의 받고 나서 그 뒤에 무죄로 나오든지 유죄가 돼서 들어가든지 하는 것와 같습니다. 그런데 100재다 한다면, 공부한 사람들이 알고 본다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9재 지내고서 100재 납은, 그 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상들을 한데 모아서 재를 지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이익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살아오던 대로 이게 그르고 저게 옳고 하면서 일일이 따져서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아주 간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뛰어넘으세요.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고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2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핌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당 하(茶) 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퇴마승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엄마 · 아빠 행동이 아이들의 교과서죠

서광 스님(미국 보스톤 서운사 주지)이 최근 자녀 교육법에 관한 책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북폴리오)를 펴냈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10여 년간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이어온 경험과 심리학 박사의 이력을 살린 스님의 글에는 부모와 아이 모두가 함께 크는 가정의 지혜가 담겨있다. 책의 내용과 스님의 조언을 토대로 공부방법 · 인성교육 방법 등 자녀교육 전반에 대한 얘기를 엮어봤다. 강신재 기자

■ 서광 스님에게 듣는 '자녀교육, 이렇게'

환경 조성 중요…차담등 통한 마음공부 지도

▽ 공부 시키는 방법?

강요로 이뤄지는 공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아이도 부모가 원한다는 사실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멋있고 매력있는 사람이 되는데 공부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는 달라진다.

공부와 놀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모가 아이의 놀이에 함께 참여하면서 모르던 사실을 하나씩 배워가는 그 행위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다. 차담을 나누며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이나 마음수행과 연결시켜 지도해 주는 것이 '불교 놀이'의 한 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원인 및 결과 그리고 해결방법을 차근차근 일러주면서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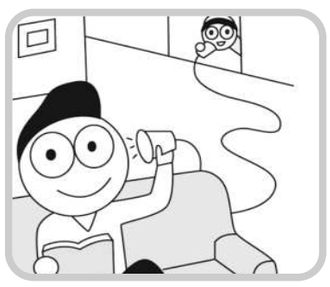
일방적 전달 방식은 잘못…수시로 대화 필요

▽ 부모 자식간의 대화 요령은?

부모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아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에만 급급한 것이 부모의 특성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는 항상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게 되고, 부모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이는 서서히 입을 닫기 시작한다.

문제가 일어난 후 그제서야 왜 그랬는지 얘기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문제가 일어난 후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변비나 설사로 고생할 대로



고생한 아이에게 뒤늦게 약을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화는 그때그때 이뤄져야 한다.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듣고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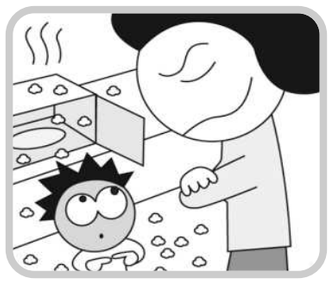
다그치기 보다 미숙한 부분 함께 풀어가야

▽ 아이의 잘못 어떻게 고치나?

아이가 전자레인지를 잘못 사용해서 온통 더럽혀 놓았다면? 대부분의 부모가 성부터 내거나 "그냥 내가 하고 말지!"라며 아이들을 밀쳐내기가 일쑤다.

아이들은 모든 것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 전후 관계에 대한 파악없이 무작정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아이의 문제해결 능력을 꼼꼼이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숙하게나마 작업에 임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거치자. 그러면 아이들의 책임감, 합리적인 사고 능력 또한 증대된다.

부모가 무조건 나서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아이의 일을 떠맡아 시작했다가 힘이 부치기 시작할 때서야 비로소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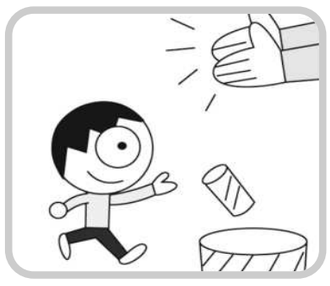
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는 부모가 많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미 부모에 대한 의존심이 자랄 대로 자라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약해져 있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일관성 없는 부모의 행동에 상처를 받기 쉽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다양한 매체 통해 '바람직한 행동' 인지시키길

▽ 아이의 인성교육 어떻게?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부모는 신문 · 잡지 · 책 · 영화 등의 매체를 이용해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각성시켜 주는 것이 좋다.

우선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공공장소에서 휴지를 휴지통에 버린다든지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면 "엄마, 아빠는 너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곱 살이나 된 아이가 식당에서 큰 소리를 내며 투정을 부릴 때면 "그것이 나이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정



확히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일관성있는 태도 및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

수행 방식 달라도 불법으로 통해요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21〉

홍종덕 거사네

몸과 마음이 한데로 내몰리던 IMF시절, 홍종덕(64) 거사에게도 여지없이 찬 바람이 불어 닥쳤다. 잘나가던 대기업 영업이사직을 내어 놓은 홍 씨. 막막한 마음에 전국을 유람하며 절을 떠돌았지만, 절마당을 휘감던 푸른 안개도 능선을 타고 오르는 붉은 태양도 그에겐 아무런 약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계사 앞마당 한 귀퉁이에서 '한글로 푼 연화의식문'을 만나게 된다.

"불교식 상례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육신을 떨치는 그 순간에 염불로써 생의 편안을 기원할 수 있는 '염불봉사'라는 방편에 매료됐지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홍 씨는 3개월간의 장례의식 교육을 시작으로 염불봉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약속도 없이 떠나는지라, 부름이 있는 날이면 그 어떤 약속도 모임도 제치고 장례현장을 찾았다. 환갑잔치가 있는 날에도 예외가 없어 60년 그의 행적을 이름모를 이의 빈소에서 곱씹을 정도였다.

진실한 마음은 또다른 진실 앞에서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는 연고없는 이들의 시다림(망자를 위한 염불)을 무료로 집전하며 타종교인의 마음을 열었다. 염불봉사에 감동받은 한 망자의 가족은 상을 치른 후 가족 전원이 조계사 불교대학에 등록해 홍 거사의 마음을 흐뭇하게 채워주었다.

"아내의 소리없는 내조가 없었더라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언제가 됐건 묵묵히 목탁과 의복을 내어주는 아내는 망자를 직접 대하지 않고도 극락왕생 염원의 마음은 늘 저와 같았습니다."

염불봉사 외에도 조계사 문수법회장으로서 수많은 모임을 이끌고 있는 홍 거사의 든든한 지원자는 아내 전봉순(64) 보살이다. 전 보살은 그의 활동을



각자 다른곳에서 불심의 싹을 틔운 홍종덕 거사 가족. 왼쪽이 부인 전봉순 보살, 가운데가 딸 경아양.

IMF때 불교식 상례 접한 후 '염불봉사' 시작
조계사 문수법회장 하며 아내·딸 불심 싹틔워

말없이 지원하며 자신도 참선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용화사 시민선방에서 안거를 맞이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기복신앙에 치우쳐 제 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홍 거사는 전 보살의 손을 잡고 선방을 찾았고, 전 보살은 이제 부처님 법에 의지한 본격적인 수행의 궤도에 안착했다.

부부가 뿌린 불심의 씨앗은 딸 경아(36) 씨의 가슴에도 싹을 틔웠다. 오랜 기간 불교를 가슴에 담지 못하던 경아 씨는 최근 해인사에서 3000배를 마쳤다. 피아노를 전공한 이점을 살려 수련회 때 찬불가 반주를 맡으며 불교음악 연구도 시작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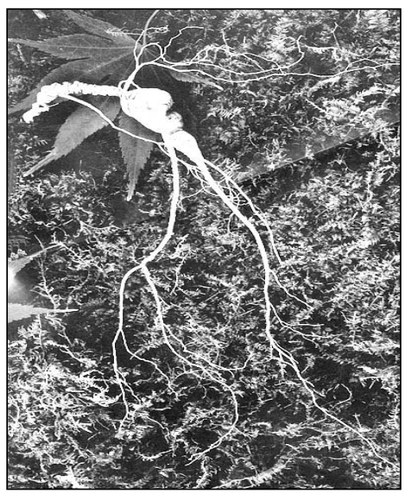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지만, 우리 가족은 부처님 법으로 통합니다." 강신재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청취자들의 힘입니다”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700회

타 방송사들 이웃돕기 기폭제 역할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보시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금 오전 9:05~10:00)’이 오는 12월 10일로 700회를 맞는다.

불교방송이 ‘거룩한 만남’을 시작한 1991년만 해도 종교방송은 물론 KBS, MBC 등의 유수한 방송사들도 이웃돕기 모금에 적극적이지 않은 때였다. 당시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BBS 불교방송이 이러한 모금운동을 펼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고 주변의 만류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만남’은 1회당 500~1000만원의 성금을 모았고, 다른 방송사들이 이웃돕기 모금운동을 펼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방송에 소개된 성금 수혜자들은 정부로부터 긴급구호 대상자로 보호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생존문제에 부딪쳐 힘겹게 삶의 끈을 붙잡고 있는 절박한 이웃들.

‘거룩한 만남’은 지난 13년 동안, 유명인사나 재산가의 뭉텅이 돈이 아니라 순수한 청취자들의 참여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우리 주변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왔다는데 의미가 크다.

‘거룩한 만남’을 듣는 청취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반신불수의 몸으로 다리에 타이어를 대고 기어 다니며 리어커를 끌며 수세미와 손톱깎이, 이쑤시게 등을 팔아 번



거룩한 만남 제작팀의 취재(오른쪽) 및 성금전달 모습.

한달 수익금 40만원 전액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 달라’고 선뜻 기부한 뇌성마비환자. 1만원 성금을 계좌이체 시키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3만원 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뗀 트럭운전기사 아저씨. 결혼식 때 들어 온 축의금 400만원을 들고 불교방송으로 직접 성금을 전달한 신혼부부. ‘거룩한 만남’을 듣고 발심해 2천 만원의 성금을 내놓은 간암 말기의 모 그룹회장 등등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성금을 줄잇게 했다.지금까지 모금된 총액은 약 34억 원. 이 성금은 어려운 750여 세대와 ‘나눔의 집’, ‘둥지마을’ 등을 포함한 10여개 단체에 전달됐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한 세대 한 세대가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하게 지원한 것도 ‘거룩한 만남’의 돋보이는 점이다.

꾸준히 이어온 이웃돕기의 공로를 인정받아 ‘거룩한 만남’은 지난 1992년과 1998년 한국방송대상 2회 수상을 비롯해 1993년에는 한국프로듀서상 진행자상, 2001년 ‘이달의 PD상’ 등을 받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는 최윤희 PD는 “불교방송이 건재하는 한 ‘거룩한 만남’을 통한 사랑의 리퀘스트는 계속 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코너와 아이디어 계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4회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맡아온 도현 스님(서울 상도동 정혜사 주지)도 “우리 주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루빨리 무거운 업연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따뜻한 보시행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는 감회를 밝혔다.

12월 10일 생방송될 ‘거룩한 만남’ 7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과 역대 리포터들과의 방송 뒷얘기, 불자 연예인 김흥국, 정수라, 서민정, 옥주현, 앙드레 김, 이승철 씨와 함께하는 이웃돕기모금운동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와 11월 18~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골수기증 캠페인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들과 2500번째 골수기증 신청자인 조희정(왼쪽 세번째)씨가 기념촬영했다.

‘골수 기증자 2500명 돌파’

생명나눔실천본부 캠페인 실시 6개월만에

12월 3일 ‘회원만남의 날’ 행사

생명나눔실천본부가 6개월만에 2500명의 골수기증자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이사장 현성)와 공동으로 11월 18일~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나눔’을 주제로 제 28차 골수기증캠페인을 개최해 올해 골수기증자 확보 목표였던 2500명을 조기에 달성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청소년교화연합회 실무자 자원봉사자 40~50명이 참가한 이날 캠페인에서 채혈 90건을 통해 87명의 골수기증희망자가 등록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골수기증캠페인에 2500번째로 등록한 조희정씨(20)에게는 구급함과 책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의 검사비 지원을 받아 전개된 생명나눔실천본부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사업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매주 한차례 종로타워 앞에서 불자연예인들과 7명의 홍보팀이 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는등 담당 실무자인 이혜숙 사무총장, 홍은미 부장 등이 여름휴가도 반납하면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

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경주 불국사 · 대구 동화사 · 김천 직지사등 사찰과 동국대 중앙승가대등 학교, 대학로 문예회관 앞 · KBS본관 앞 · 부산 용두산 공원 등 전국 곳곳을 찾아가며 28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했다.

홍은미 부장은 “지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를 종일 내다보면 어느새 목소리가 쉬고, 다리는 붓기 일쑤였다”며 “고생은 했지만 큰 자비를 실천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3일 오후 4~9시에



골수 기증을 위한 3cc 채혈 모습.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골수기증희망자로 등록한 회원을 초청해 ‘회원만남의 날’ 행사를 갖는다.

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차와 대화, 초청자 인사, 골수기증 등록회원 소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연대사업을 진행해온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와 특별봉사회원 감사장 수여, 저녁공양, 작은공연, 이혜숙 사무총장 인사로 회향된다. (02) 734-8050

김원우 기자

따뜻한 나눔축제 성황

대구 보현암, ‘2일 장터…1천여명 동참’

“스카프 얼마예요?” “장난감도 있네, 우리 손자가 좋아하겠는걸.”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한 입시학원 1층 로비에는 찹쌀, 흑미를 비롯한 우리 농산물과 각종 건어물, 내의, 스카프, 어린이 장난감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진열됐다. 대구 수성구 보현암 신도회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따뜻한 나눔 축제’를 개최한 것.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작은 사랑을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보현암은 신도 100여명 남짓의 크지 않은 자그마한 포교당이다. 그러나 뜻 깊은 일에 모든 신도가 나섰다. 3일 전부터는 노보살들까지 나서 청국장도 띄우고, 무말랭이도 말리고, 김치도 담그며 맛있는 먹거리를 장만했다. 여기저기서 후원품도 답지했다. 스카프 도매업을 하는 신도의 지인이 손수건과 스카프 500점을, 장난감 가게를 하는 불자는 재고품을 모두 기증했다. 게다가 보현암 다도회 회원은 이틀간 따뜻한 차를 보시하겠다며, 녹차를 비롯해 인산오룡 용정차 국화차 등을 준비했다. 이틀 동안 1000여명이 넘는 대중들이 다녀갔다.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이란 말들을 쓰는데 그들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불우할 수 있기에 ‘불우이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말했다.

보현암 신도회는 ‘따뜻한 나눔 축제’의 수익금 전액을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돕기에 회향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25242’ 참여하고 福 지으세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2만5천 결식아동돕기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대학생불자들이 대구시내 결식아동 돕기에 나선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대학생불자회(이하 대불회)는 12월 11일 오후 6시 영남불교대학 3층 큰법당에서 ‘제 2회 25242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대불회는 대구시내에만 2만 5천명이 넘는 결식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사명에 ‘25242’를 넣었다. 또 이번 행사의 공연티켓 대금 2000원도 결식아동 한끼의 점심 값에 맞춰 책정했다.

대불회 회장 이지현(계명대 식품가공학과 2학년)양은 “티켓 한 장을 구입한다는 것은 대구시내 한명의 결식아동에게 한끼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풋풋하고 다채로운 응원, 패션쇼 공연과 독도 수비대의 독도사진전, 리틀발레무용학원 초등생들의 발레 공연, 환경동화구연에서 대상을 수상한 강민경 양의 동화구연, 댄스 스포츠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다.

영남불교대학 들어오는 입구에는 떡볶이 어묵, 뽑기 등 추억의 먹거리 바자회가 열리고, 염주만들기, 컵 등 만들기, 탁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영남불교대학 대불회는 작년 활동사진과 홍보 전단지 등을 들고 이번 행사를 위해 1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대구백화점 앞에서 거리홍보캠페인을 나갈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02)737-888,1(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나눔의 성금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장지원보살 – 19만원
충주 광덕사 밀양 용정사 김선문 강병도 김원우 – 27만3천410원
총 누적금액: 28,181,070원

▌살림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연말을 맞아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1차로 11월말 서울경기지역 12개 종립학교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금 접수에 많은 동참바라며, 올 한해 전국에 배포한 ‘나눔의 저금통’도 수거하고자 합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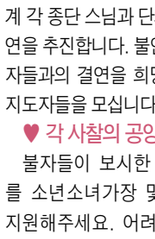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저금통 접수

서울 광진구 중곡3동 샛별어린이집(원장 김재순)	저금통– 120개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신일미용실(원장 함영숙)	저금통– 5개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